건축사

KIRA 2011 07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www.KIRA.or.kr

칼 럼 적정기술(適正技術)을 아십니까?

시 론 건축사 구보씨, 길을 잃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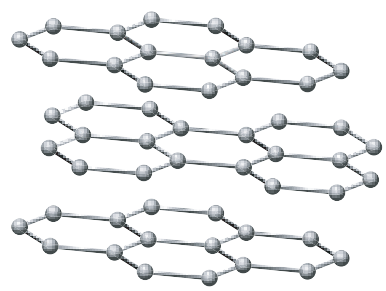
촌(村) 티 나는 문화에 발 담그기

KOREAN ARCHITECTS

18℃를 지켜라!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 에너포르

흑연의 판상형 구조



* 흑연의 특별한 구조가 외부의 열을 흡수합니다

흑연으로 실내온도를 지킨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쾌적한 실내온도 18℃를 유지합니다
흑연이 첨가된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가
완벽하게 막아 단열재의 수준을 한단계 높입니다

세상의 열을 다스리는 흑색기술 – 에너포르

고효율 단열재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는 흑연을 첨가하여 동일기준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단열 성능이 20% 향상된 고효율의 단열재입니다.

친환경 단열재 에너포르는 높은 단열성능으로 공간적, 경제적 최소화로 보다 향상된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 효과를 주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웰빙 단열재 에너포르는 독립된 미세한 기포구조로 이루어져 습기, 세균, 곰팡이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강한 웰빙단열재입니다.

에너포르

www.kkp 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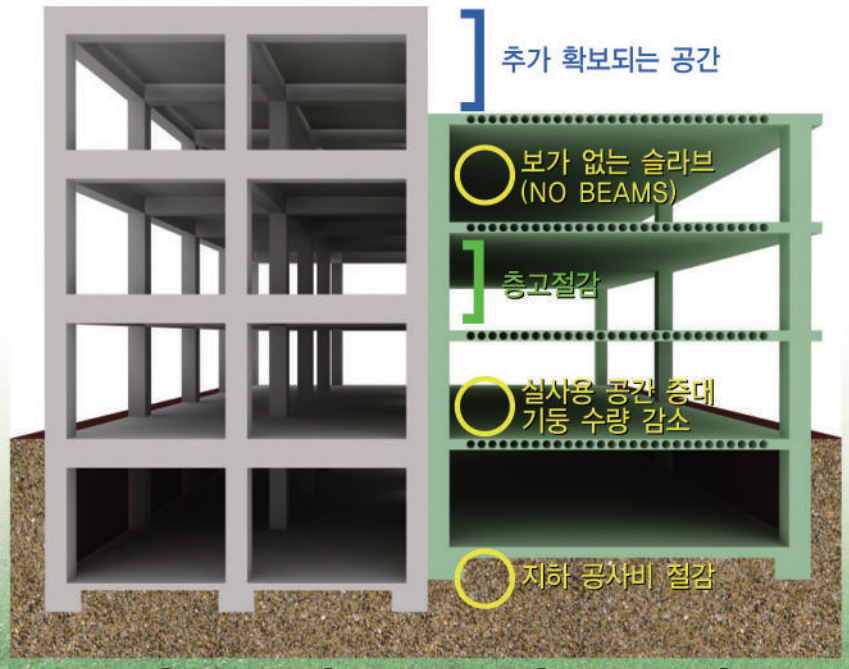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ENERPOR) 는 종래의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하여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개념을 도입, 동일비중의 단열재에 비하여 열전도율이 10~20% 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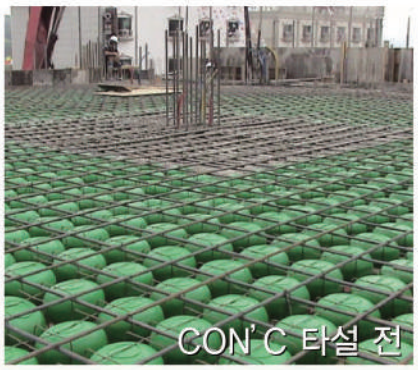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테크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87-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QR코드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A/S : 02)333-4448
-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E-mail : cgp210@kornet.net
- FAX : 054)973-0067

A better environment inside and out.™

Solar Gard® WINDOW FILMS

솔라가드® 건축용 윈도우 필름

빌딩 냉방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

- 에너지 비용 최대 30% 절약
- 빌딩 에너지 분석 시뮬레이션 제공(CAPSOL)
- 업계 최초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및 탄소 네거티브 제품(Carbon Negative Products) 인증
- 자외선 차단 및 섬광 제거에 의한 실내 거주 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솔라가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53 창우빌딩 3층 베카르트코리아 Tel 02 539 8761 · Email js.park@bekaert.co.kr

http://www.solargard.com

경동 나비엔
제품 구입 및 A/S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588-1144
국민 여러분!
이제 보일러하면~
온수기하면~수출점유율
71%나 차지하는
경동나비엔을
추천합니다!
경동 나비엔
NEWS
※2010년 상반기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의 71%(한국무역협회 기준)
보일러 하면, 20년 동안(1991~2010년) 압도적 업계 수출 1위의 경동나비엔입니다!
온수기 하면, 2009년부터 2년 연속 미국 순간식 콘덴싱 가스온수기 시장점유율 1위인 경동나비엔입니다!
(BRG Consult, USA Heating 2010)
콘덴싱 하면, 아시아 최초 콘덴싱보일러를 생산 판매하며 업계를 선도해온 23년 역사의 경동나비엔입니다!
품질 / 서비스 하면, 2010년 업계 품질·서비스 부문 최다 수상에 빛나는 경동나비엔입니다!
(한국표준협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여성신문사)
on水
NAVIEN
Condensing
2010년
'한국소비자웰빙지수' 가정용 가스보일러 부문 7년 연속 1위
'한국사용품질지수' 가정용 가스보일러 / 콘덴싱 가스보일러 부문 1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가정용 가스보일러 부문 1위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업계 콜센터 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여성소비자가 뽑은 품질 / 서비스' 가정용 가스보일러 부문 1위
여성신문사
업계 최초
업계 최다
업계 최초
업계 유일
업계 최초
업계 최초
업계 최초
북미 CSA
유럽 CE

KOREAN ARCHITECTS

10 **칼럼**

적정기술(適正技術)을 아십니까?

_정익현

11 **시론**

건축사 구보씨, 길을 잃다
_구만열

촌(村) 티 나는 문화에 발 담그기
_박헌춘

13 **만평**

_곽희수

17

22

14 **회원작품**

흥아기연 오정공장

_안우성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20 **회원작품**

도산서원 선비문화 체험 교육원

_이동현
아원 건축사사무소

26 **회원작품**

안산 상하수도사업소청사

_조민석
단아 건축사사무소

32 **회원작품**

서초동 M+L 빌딩

_김영수
(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

36 **회원작품**

엠 파이브

_선은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40 **인터뷰**

건축초대석
_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_박찬정

45 **지상중계**

라틴아메리카의 인종과
정체성 문제

_김창민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장

27

34

52 **설계경기**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군자녀기숙형고등학교

65 **연재**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규정(SIA 102) 분석을 통한
건축사의 역할

_임구성

72 **기고**

우리나라의 건축계의
건축도면에 대한 단상

_한동수

76 **건축기행**

땅 끝에서 길을 찾다
_이종호

78 **건축 에세이**

조선 왕릉의 사계
_소영선

82 **건축마당**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해외건축 동향 _김은미
통계

발 행 인	강성익
담 당 이 사	정익현
위 원 장	박찬정
위 원	구만열 · 김희곤 · 송호섭 · 이동우 · 정병협 · 최동호
취재 · 편집	최락청 팀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 – 55 건축사회관
우 편 번 호	137–877
전 화	대표 (02)3415–6800
팩 시 밀 리	(02)3415–6898~9
인 터 넷	http://www.kira.or.kr
인 쇄	(주)화신문화사 Tel : (02)2277–0624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3415–6862~4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Vol. 507 July 2011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1년 07월호 통권 5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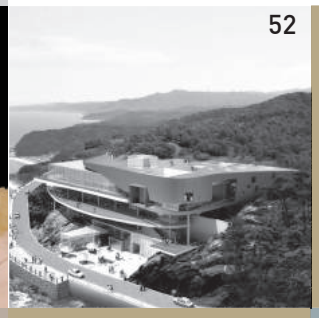
Contents

10
COLUMN
Do you know the Appropriate Technology ?
_Jeong, Ik-hyun

11
FOCUS
Architect Mr. Gubo, got lost
_Gu, Man-yeol
Immersing into the village
_Park, Heon-choon

13
CARTOON
_Kawk, Hee-soo

39

52


14 WORK
Hoong-A Ojeong Factory
_Ahn, Woo-sung

20 WORK
Scholar Culture Experience and Education Center at Dosan Seowon
_Lee, Dong-hyun

26 WORK
Ansan Water and Sewage Government Office
_Cho, Min-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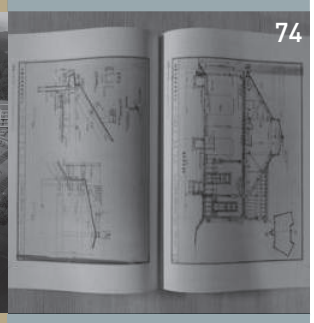
32 WORK
Seocho-dong M.L Building
_Kim, Young-soo

36 WORK
M 5
_Sun, Eun-soo

40 INTERVIEW
Invitation to Achitecture
_Yu, Jae-han
Korea Finance Corporation president
_Park, Chan-jeong

45
Latin American Culture PAPER RELAY
The Issue of Ethnic group of Latin America and Identity
_Kim, Chang-min

58

74


52 COMPETITION
Experience Space for mysterious sea route in Jin-do island
Dormitory High School for military officer's children

65 SERIAL
Regulation governing architects' services and fees (sia 102) by analyzing the role of architects
_Lim, Gu-sung

72 FEATURE
A Few Ideas for Architectural Drawings of Korean Architectural Community
_Han, Dong-soo

72
ARCHITECTURE TRAVEL
Finding a road at the end of land
_Lee, Jong-ho

78
ARCHITECTURE ESSAY
Four seasons of Chosun Dynasty Royal Mausoleum
_So, Young-sun

89 ARCHITECTS' PLAZA
Kira News
Archi-Net
Overseas News Review
_Kim, Eunmee
Statistics

Publisher	Kang, Sung Ik
Director	Jeong, Ik-hyun
Committee Chairman	Park, Chan-jung
Committee	Ku, Man-yeol & Kim, Hee-gon & Song, Ho-seob & Lee, Dong-woo & Chung, Byung-hyup & Choi, Dong-ho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98~9

적정기술(適正技術)을 아십니까?

Do you know the Appropriate Technology ?

정익현 | Jeong, Ik-hyun, KIRA
예전 건축사사무소

약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 전 충북건축사회 회장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책은 이렇게 서두를 연다. '지금 세계에는 63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 중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은 남자입니다.' e메일로 떠도는 이야기를 일본인 '이케다 가요코'가 편집해 출판한 이 책은 2002년 한국어판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다.

책은 이렇게 계속된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는 당신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안다는 것이 가장 소중 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죽기 직전이고, 그러나 15명은 비만입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매일 풍족하게, 당연한 듯 먹고 있을 때 지구상 10억 인구는 물 부족이거나 오염된 물을 먹었다는 이야기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생활은 더 편하고 풍요로워졌지만,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첨단 과학과 기술이 그저 사치일 뿐이다.

전기가 있어야 사용가능한 값비싼 정수기 보다는 2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공급되는 휴대용 '생명의 정수기(Life Straw)', 어린 아이라도 75리터의 물을 한 번에 길어 올 수 있게 고안된 굴리는 물통 '큐 드럼(Q-Drum)'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처럼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실질적 기술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개념을 '적정기술'이라 한다. 이 적정기술은 1970년대 영국 경제학자 E.F. 슈마허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보다 더 먼저 인도 간디의 '물레(차르카) 돌리기'를 효시로 보는 사람도 있다.

적정기술은 '저비용'과 '쉬움'을 원칙으로 한다. 현지 조사를 통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 사용하기 편리하고 재료구입이나 유지 보수를 쉽게 하여 현지화(現地化)를 이룩해야 한다. 또한 집짓기나 물품 등의 일회성 구호(Relief)가 아닌 기술을 전해 주는 것, 즉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적정기술의 활용 사례는 '라이프 스트로우'나 'Q 드럼' 외에도 냉장고 역할을 대신하는 '팟 인 팟 쿨러(pot-in-pot cooler)', '사탕수수 숯', '진흙 정수기'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 적정기술이 소개된 것은 대략 2007년으로 아직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대한민국 적정기술 1호로 알려진 '휴대용 온열기'는 몽골 유목민의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주었다.

그렇다면 적정기술이 먼 나라의 소외된 계층만을 위한 것일까. 시선을 안으로 돌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적정기술의 개념을 연구할 필요는 없을까? 얼마 전 경북 영양군에 짓고 있는 '흙 부대 집'이 소개된 적이 있다. 채소 포장용 그물망에 흙을 채워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 주거용 집을 지은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주변에서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태양열 집열판을 만들어 난방이나 농산물 건조에 응용했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훌륭한 건축을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이는 건축문화만 쫓을 것이 아니라 소외 계층의 노후 건물에 대한 냉,난방 문제의 건축적 접근이나 마을 단위 농어촌 개발의 마스터 플랜과 저비용, 저에너지의 친환경건축에도 눈을 돌려 농어촌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외연(外延)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시선을 더 안으로 좁혀 건축사 업무에 초점을 맞춰 본다. 근자에 불거진 구조안전에 대한 체크 및 구조계산 문제는 회원에게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금년 7월 1부터 신용 평가 항목이 추가된 국가 발주 설계, 감리 용역의 진입장벽 문제는 모두에게 공평 한지, 그 혜택은 누구에게 가는지를 적정기술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적정기술이 지향하는 것은 '인간사랑'이기 때문이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먼저 당신이 사랑하세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당신과 모든 이들을. 진정으로 나,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을 사랑해야함을 알고 있다면 정말로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비열한 힘으로부터 이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지, 욕기생(愛之, 欲其生) –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게끔 하는 것이다.' 〈논어〉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 온다.

건축사 구보씨, 길을 잃다

Architect Mr. Gubo, got lost

구만열 | Ku, Man-yeol, KIRA
(주)건축사사무소 한녹

약력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건축사지편찬T/F위원회 위원

답답한 하루하루다.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니 우리 건축사들은 구조안전확인서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다. 글로벌 시대는 맞다. 리만 형제의 미 은행 부도로 세계경제에 쇼크가 오더니 하던 프로젝트는 가버리고 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건축사사무소가 독식하다시피 하는 일감은 이제 아주 씨가 말랐다. 구보 씨, 작은 건축사사무소를 업으로 하는 아름다운 꿈이 있는 건축사다. 건축설계가 생계의 수단이며 삶의 즐거움이다. 허나 십 수 년 전부터 건축설계업계 판의 흐름은 크게 달라졌다.

세계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되면서 건축설계업에도 변화가 왔다.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량의 건축사를 허용했고, 대다수의 큰 프로젝트는 턴키라는 형태로 발주되다 보니 기존 큰 규모 사무실은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공룡처럼 부풀어 오르며 설계 업계를 바꾸어 놓았다.

중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점차 시들어 갔다.

큰 사무실은 과연 무슨 경쟁력이 있어 그 많은 일을 수행하고, 모 사무실은 코스닥에 등록까지 하여 자신의 몸집과 이익을 뽐내나?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프로젝트에 간택되기 위하여 외국사와 연계하여 디자인을 가져오기도 하고 전국적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가 하면, 직원들은 일이 많아 실시설계를 외주관리 하여 실제로 디테일 도면을 그려보지 않는 다고도 한다. 가히 철저한 분업과 효율을 가진 비즈니스 집단이다. 경제적이지만 비문화적이고 경쟁에 강한 모습이지만 몰염치하며, 독점 천민자본주의를 닮았다. 정글 속 강력한 사냥꾼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강력한 사냥꾼들은 많은 일과 인적 자원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성을 쌓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료 사무실의 일감을 독식한 결과 프로젝트 수행을 바탕으로 커야 하는 많은 건축사들의 일감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적법한 자본주의 체계에서 용인된 방법으로 생긴 일 일지라도.

자본주의 속성이 경쟁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 한다.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신의 몫을 다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요즈음 공정사회란 말이 이슈화 되고 있지만 과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회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건축설계업계나 세상을 보면 구보씨 마냥 답답하다. 상대적 박탈감, 또는 상실감, 점점 편중되어가는 일감, 20대 80사회, 진입장벽….

지금의 현실은 모든 건축사사무소가 같이 경쟁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대형사의 조직력과 자금력, 업무추진력은 그렇지 못한 사무실에게는 넘지 못할 장벽이 된 상황으로까지 왔다. 모든 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수준으로 경쟁하는 것은 이미 불공정한 게임이 되어 버렸다. 이 불공정한 게임에 조정자의 손길이 필요한 절대 절명의 순간이다.

절박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 건축문화 산업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건축설계업계를 보아야할 것 인가?

건축은 문화고 이야기고 도시에 사람을 끌어 들이는 자석이다.

구보씨 수년전 유럽여행 중 바르셀로나를 가보고 도시에서 건축물의 위상, 건축가 가우디란 브랜드를 보고 감동했었다. 게리가 빌바오를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되살렸듯이… 이러한 건축물을 디자인 한 거장들은 큰 조직에서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작품을 꾸준히 갈고 닦고 만들고 또 좋은 프로젝트를 받고 하는 좋은 흐름 속에서 탄생되었다.

건축사 구보씨 정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만 희망을 가슴에 품는다. 건축설계 흐름의 기준이 되는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견과 신예 그룹의 건축사들이 자신의 기량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규모 이하의 프로젝트는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해 본다. 가우디 도시 바르셀로나에서는 아직도 그가 성당을 지어가고 있다. 이러한 거장을 우리도 갖고 싶다. 건축사 구보씨 정글에서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희망은 한줄기 햇빛처럼 빛난다.

도종환 시인의 시구가 가슴에 사무친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촌(村) 티 나는 문화에 발 담그기

Immersing into the village

박헌춘 | Park, Heon-choon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지역개발과 전문관

약력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국토디자인 시범사업 실무계획가 역임
- 도시.건축 에코뮤지엄연구소 연구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부수리 사무장 역임
- 제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대상 수상

종종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대화를 해 보면 '도시건축'은 뭔가 '매력'과 '꺼리'가 있어 건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반해, '농촌건축'은 '그게 뭐에요?'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왜 이렇듯 농촌지역이 건축전문가들에게 외면의 대상이 되었을까? 단순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농촌=농업'이라는 오해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촌(村)은 결코 업(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도 건축전문가도 '村=業'으로 여겼고 때로는 '業〉村'의 공식을 적용했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촌(村)에 무관심 할 수는 없다. 건축전문가들은 촌(村)이란 공간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사회적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이제 그 때가 왔다. 바로 지금!!!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정책국에 부여했던 선임국 지위를 농어촌정책국으로 이전시켰다. 이것은 촌(村) 중심의 농정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공표한 것으로, 농정기조의 획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사를 짓는 곳이 농촌이 아니라, 농사도 짓는 곳이 농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농촌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첫 걸음을 떼었다. 도시든 농촌이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건축과의 관계를 결코 도외시 하고 살 수는 없다.

얼마 전 건축설계를 가르치는 교수로부터 도시과는 공간을 다루고, 조경과는 수목을 다루고, 건축과는 공간과 환경과 사람을 다룬다는 말을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능력을 왜 스스로의 틀 속에 가둬두고 사회와는 나누지 않는가.

건축전문가들의 무관심 속에 농촌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 마을단위의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문제는 농어촌의 마을단위 사업에 건축전문가의 참여가 없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농어촌 거주자의 대부분이 건축전문가를 단지 도면을 그리거나 건물을 짓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공간에 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건축전문가 풀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지자체의 마을단위 사업에 건축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광역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하여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에서 중복 지원해 오던 다양한 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 소도읍 육성,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주거환경개선, 산촌생태마을, 거점면개발 등)들을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하로 일반농산어촌지역에 해당되는 120개 시 · 군, 시군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 도시활력증진지역(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과 성장촉진지역(개발촉진지구, 도서종합개발)은 국토해양부,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도서)은 행정안전부로 나누어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70% 이상이 농어촌지역이라는 점과 농어촌의 미래와 가치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한다면 건축전문가가 농어촌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다만 농어촌 공간에 뛰어들기 전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농어촌 공간은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마음, 특히 '사명감'이란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자연과 문화와 사람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농어촌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에 건축전문가들이 진심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길 희망하고 기대해 본다.

Korean roule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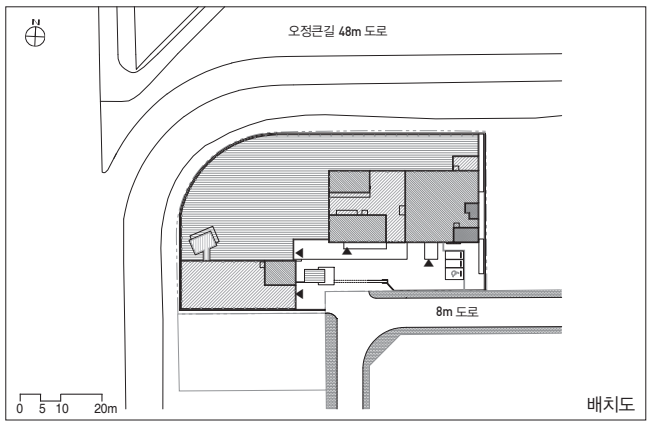
곽희수 | twitter@idmmA

약력
- 홍익대학교 졸업
- 이뎀도시건축 대표
- 홍익대학교 튜터
-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흥아기연 오정공장

Hoong-A Ojeong Factory

Project team | Jin, Tae-ho / Kim, Bo-mi
Client | Hoong-A Corp.
Location | Bucheon-si Ojeong-gu Ojeong-dong 758-6,7,8
Site Area | 3,837,40m^2
Building Area |3,000.99m^2
Gross Floor Area | 11,936.92m^2
Floor Area Ratio | 222.21%
Building Coverage Ratio | 78.20%
Structure | Precast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Electrical Engineer | Jaram & Su Engineering
General Contractor | COREMSYS CO.,LTD
Building Scope | B1-5F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mass Concrete, Punching Metal, Drybit, Pair Glass
Photographer | Lee, Gi-hwan Cost |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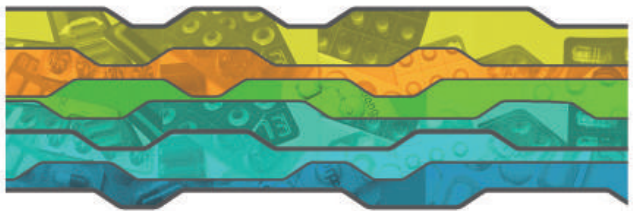
안우성 — 정회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Architects — Ahn, Woo-sung, KIRA

배면 전경

상경호혜(相敬互惠)
1970년 창립한 흥아기연의 기업철학은 상경호혜의 정신이다. 이러한 기업정신은 이번 오정공장의 공간 곳곳에 잘 묻어나 있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한 주차장과 전용식당은 물론 휴게실, 운동실, 농구장과 옥상을 이용한 운동공간과 휴게공간, 흡연공간까지 배려하였다. 그래서 기업은 새 공장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대지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흥아기연은 포장된 제품을 생산하며, 이것은 건축의 개념이 되었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바닥면적을 최대화하면서 1, 2층에 공장이 배치되었다. 사무동과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라커룸이 포함된 별동 등 두 건물에는 넓은 휴게공간을 계획하였다.

알미늄 타공판은 포장기계의 메커니즘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Movement에 착안하여 건물 외벽을 감싸는 알미늄 타공판의 외형을 곡선으로 디자인 하였고, 곡선의 형상은 제품의 이동경로와 형태를 닮게 하였다. 외부재료는 일반노출콘크리트와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를 교차하여 사용하였다. 파동치는 외벽의 입면은 건물의 앞과 뒤를 휘감아 돌며 대지의 형상과 자연스럽게 조화가 된다. 이러한 건물의 입면은 기업의 철학과 제품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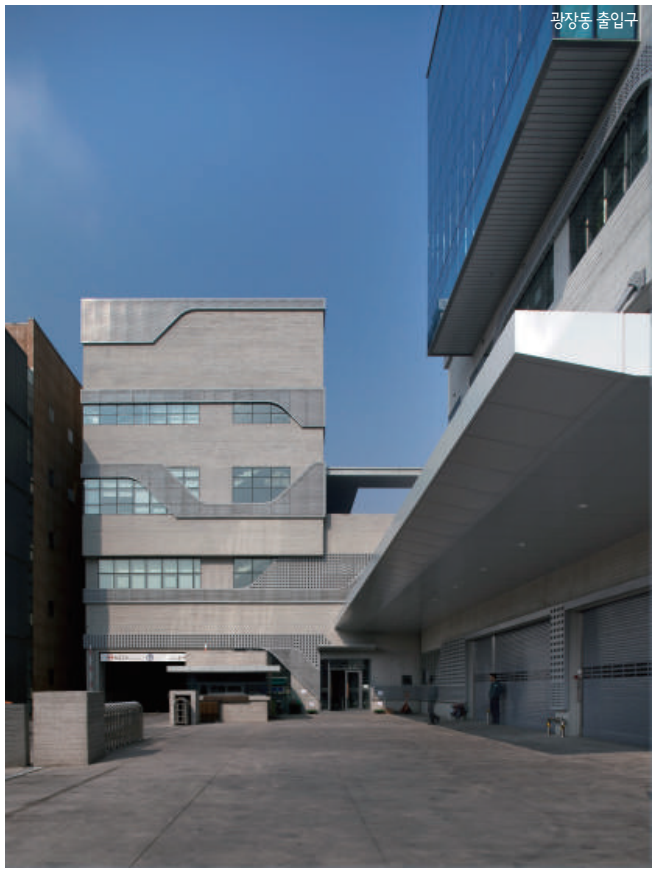

개념이미지

남측 전경

mutual repect, mutual prosperity
Hoong-a Company is established in 1970, its catchphrase is mutual respect, mutual prosperity. The employer tries to equip employee's rooms such as fitness center, lounge, and cafeteria. So the company decided to own a new site and build a factory to move all in.

The company produce the packaging system machines, that becomes the design concept. The manufacturing shop is podium of building, occupying 1st and 2nd floors.Idesignedtwomasseson thepodium,oneisoffice,theotheriscafeteriaincludingguesthouse,fitness,andlockerro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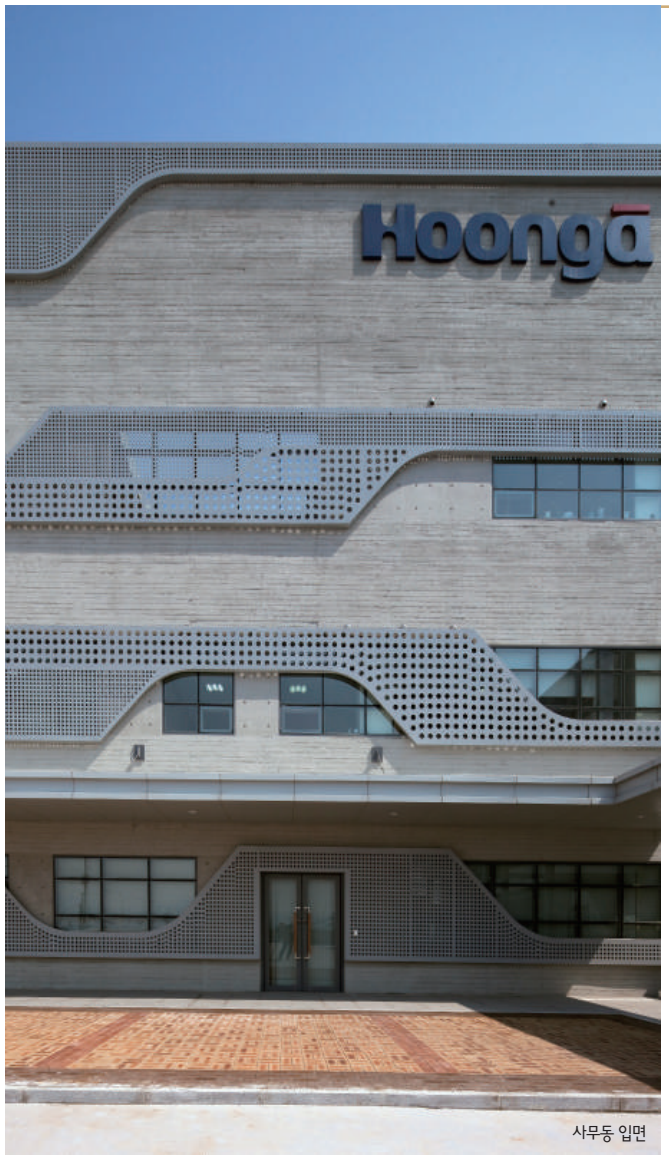
The aluminum louver on the wall is the expression of packaging machine mechanism, which is continual rolling and pressing of packing materials. The size of punching holes varies in order to draw another line on the louver. These various curves means the materials' movement. Major finish material is exposed concrete. It plays a role of background of aluminum louver. It wraps all the sides of building. Articulation and elevation of building means the company's philosophy and product.


공장동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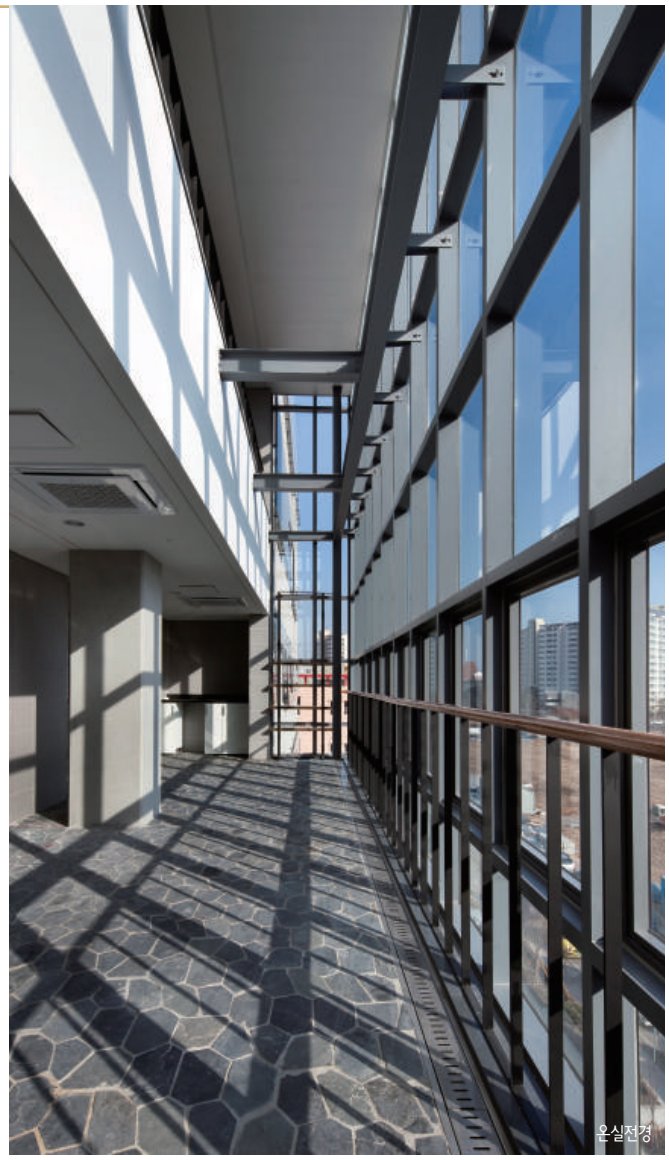
외부 전경

식당동 북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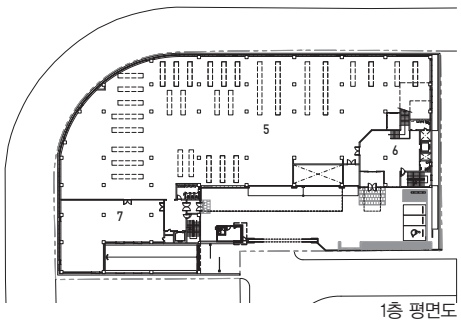
사무동 북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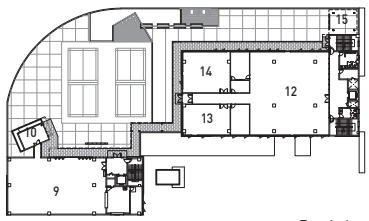
사무동 입면


온실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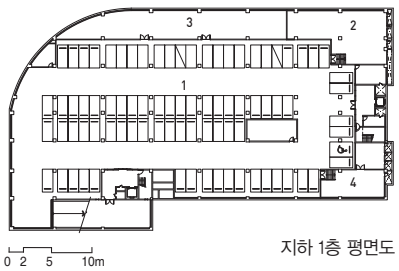
01_ 주차장
02_ 기계실
03_ 창고
04_ 전기실
05_ 조립장
06_ 로비
07_ 사무실
08_ 시운전 자재창고
09_ 식당/강당
10_ VIP식당
11_ 회의실
12_ 설계실
13_ 부설연구소
14_ 도면서고
15_ 흡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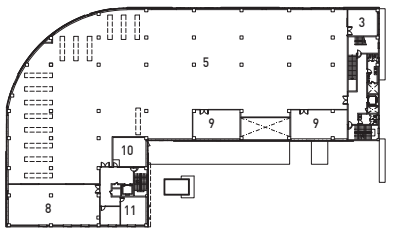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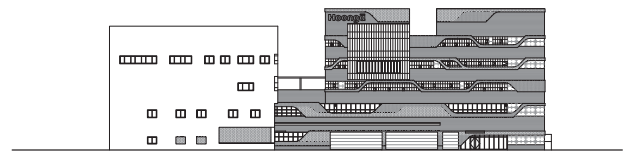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VIP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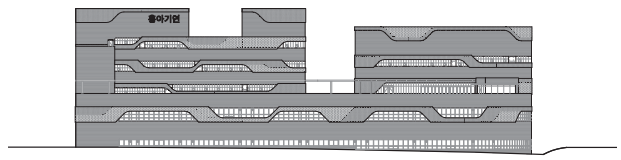
로비 전경

3층 설계실



0 2 5 10m

남측면도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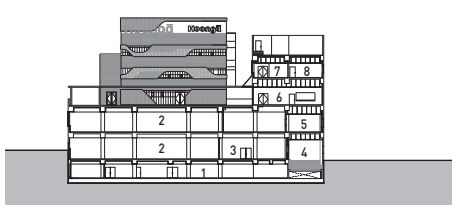
홀 전경

온실

5층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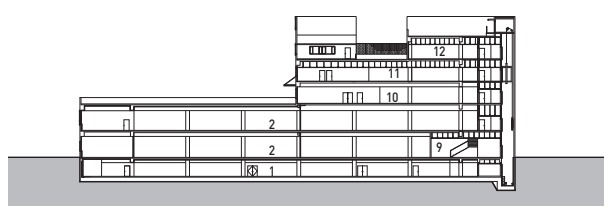
5층 회의실

01_ 주차장
02_ 조립장
03_ 몰드조립/품질검수
04_ 주차램프
05_ 생산관리팀
06_ 식당
07_ 운동실
08_ 휴게실
09_ 로비
10_ 설계실
11_ 사무실
12_ 대회의실



0 2 5 10m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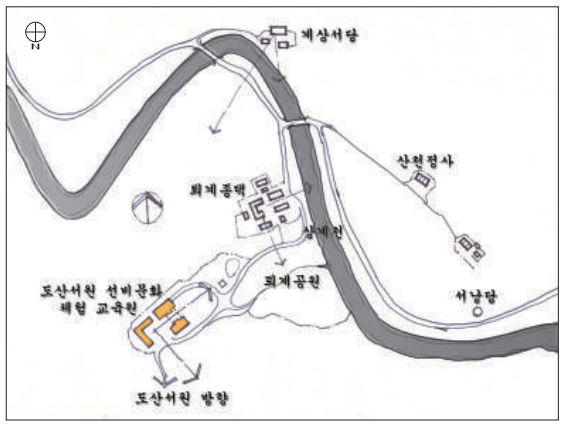
횡단면도

도산서원 선비문화 체험 교육원

Scholar Culture Experience and Education Center at Dosan Seowon

이동현 – 정희원 아원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Lee, Dong-hyun, KIRA

Project Team | No, Hak-jin / Lee, Byeong-jin / Jeon, Pan-su / Hong, Chang-woo / Jeong, Min-kyeong
Client | Scholar Culture Experience and Education Center at Dosan Seowon
Location | Gyeosangbuk-do Andong Dosan-myun Togye-ri 468-4
Site Area | 5,699.003m^2 Building Area | 1,073.64m^2
Gross Floor Area | 2,069.63m^2 Building to Land Ratio | 18.84%
Floor Area Ratio | 21.86%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Dohwa Structural Engineers Co,Ltd
HVAC Engineer | Dongdo Mechanical Electric Construction Inspire Co,Ltd
Building Scope | B1-2F
Electrical Engineer | ELLIM
Finishing Materials | not disclosed
Photographer | not disclosed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교육동 전경

조감도

교육동 전경

유교문화의 근간인 퇴계 선생의 사상과 실천덕목 등 선비문화의 체험을 통해 올바른 사회윤리관을 확립하고, 교육, 숙박, 체험 등 사계절 전천후 체험교육관을 건립하여 선비문화의 근본을 알리며 현시대에 접목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대지는 도산서원과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퇴계 선생의 서당교육이 시작된 유서 깊은 계상 서당(溪堂)과 상계천이 가로 흐르고 전통건축물이 주변 환경을 이룬다. 퇴계 종택이 자리 잡고 있는 퇴계공원 내에 선비문화 체험교육원을 설립함으로써 과거의 정체성과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건축물에 투합시켜 문화환경 경관의 한 면으로 자리 잡도록 했다.

주어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인공적인 규모와 장식은 과장되지 않게 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환경에 스며들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건축물을 배치했다. 건물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건축적 사고를 통해 단아함과 풍부함을 간직한 공간과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건축물로 계획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겨울을 벗어나 상계천에서 매화의 향기와 함께 봄의 편안함을 느끼고,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전통적인 문화와 자연과 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혼연일체가 되어 인성을 함양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선비문화 체험교육의 장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The Scholar Culture Experience and Education Center is located near Dosan Seoweon, a memorial facilities to honor Toegye Lee Hwang, who was a distinguished Confucianism scholar and statesman. The purpose of the Center is to establish just ethics in the society by having people experience the scholar culture of Joseon dynasty Confucianism; focusing on the thoughts and teachings of Great Scholar Toegye, that are the important essence of Confucianism culture. The Center has facilities to enable education, lodging and experiencing around the year. The Center provides people with locality that combines the Confucianism thoughts with modern thinking by teaching the foundation of scholar culture to people by staying, experiencing and learning in the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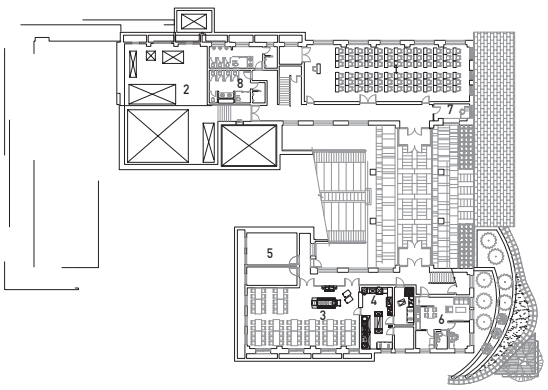
The location of the Center is in the Toegye Park, which is not far from Dosan Seoweon. In the Toegye Park, there is the Gyesang Seodang, which is the building in which the Great Scholar Toegye had first begun the 'seo-dang' (elementary school system during Joseon dynasty) education. Sangye-cheon Brook runs across the Toegye Park. All building in the Toegye Park are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There is also the 'jong-ga' (the house that is inherited by the eldest son in the family) of Great Scholar Togye. The Scholar Culture Experience and Education Center was built in this Toegye Park by combining the identity from the past and the traditional element with the modern architecture. The Center became an area of the cultural environment and landscape of Toegye Park.

The given natural environment was utilized as far as possible. There is no artificial scale or an exaggerated decoration. The architecture permeates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without harming any part of nature. The building was designed with rational and practical architectural thinking. It was planned as a building with flexibility by way of elegant but rich spaces it has.

After such very cold winter of last year, one can feel the comfort of spring together with the fragrance of apricot flower at Sanggye-cheon Brook. One can become a good friend of the traditional culture and the nature. We hope the Center will become a valuable facility for the experience and education of scholar culture. We also expect that people would be able to enhance their personal character and foster greater spirit here by becoming with one body with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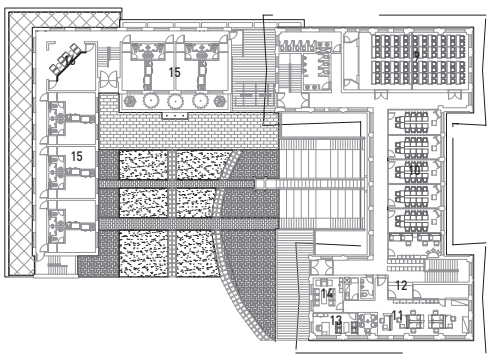
남측면 전경

01_ 다목적 체험실
02_ 기계실
03_ 식당
04_ 주방
05_ 창고
06_ 관리자숙소
07_ 관리자사무실
08_ 화장실
09_ 특별강의실
10_ 분임토의실
11_ 사무실
12_ 안내실
13_ 원장실
14_ 이사회의실
15_ 숙소
16_ 리넨 및 휴게실



0 4 10m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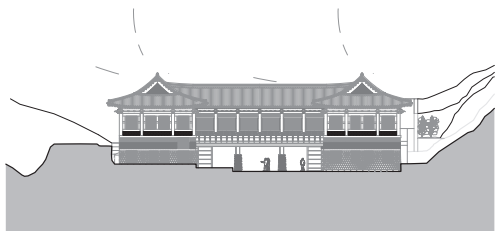
교육동 우측면

주출입구

교육동 후면

열린공동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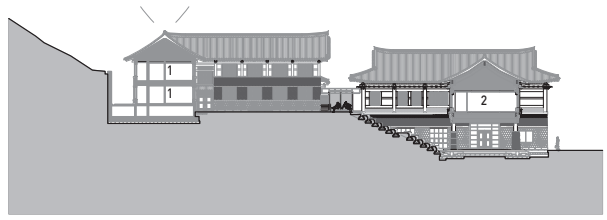
케스케이드 및 스탠드계단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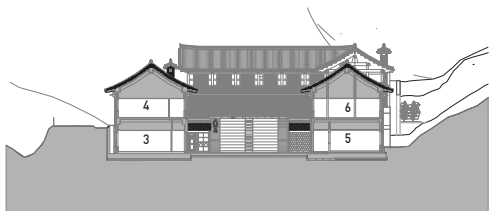
좌측면도

0 1 5 10m

01_ 숙소
02_ 분임토의실
03_ 식당
04_ 사무실
05_ 다목적체험실
06_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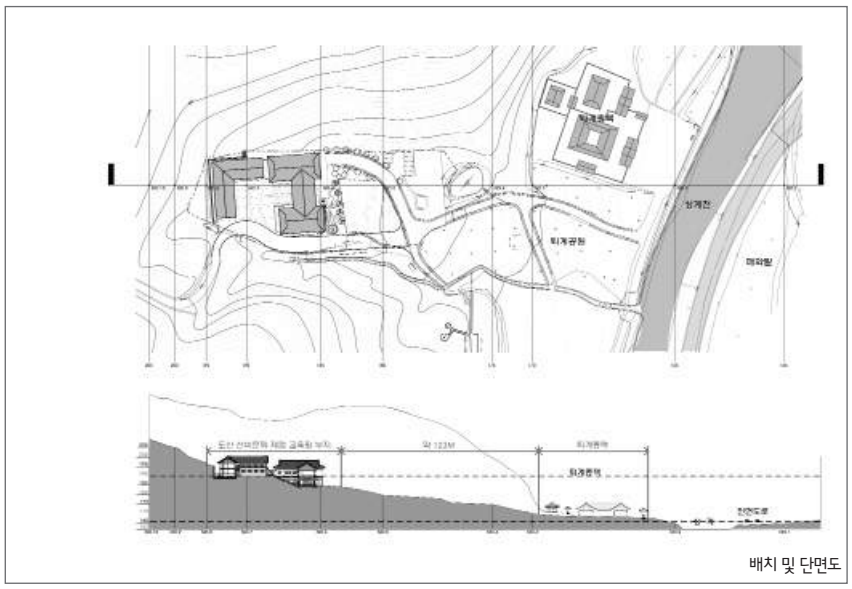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다목적 체험실

특별강의실


배치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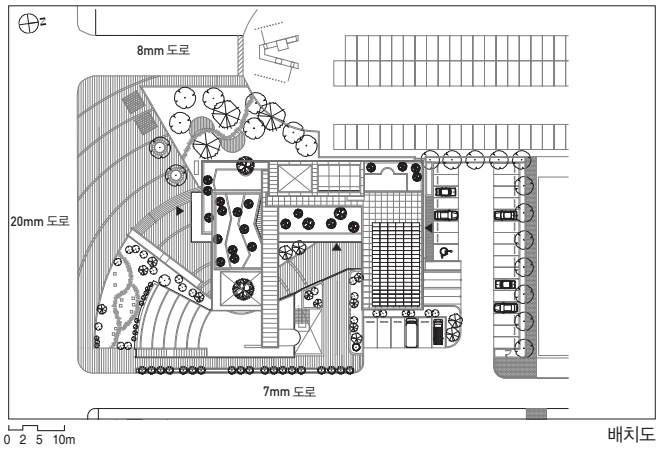
투시도

안산 상하수도사업소청사

Ansan Water and Sewage Government Office

조민석 — 정희원 단아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Cho, Min-suk, KIRA

Project team | Kwon, Eun-bo /Park, Young-sil /Choi, Jin-hyup
Client | Ansan city
Location | Ansan-si Danwon-gu Gojan-dong 523-4,5
Site Area | 4,456.00m^2 Building Area | 1,300.07m^2
Gross Floor Area | 4,857.05m^2
Building to Land Ratio | 29.18%
Floor Area Ratio | 77.73%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han structral engineers
HVAC Engineer | seaum M&C
General Contractor | KR indusrty company
Building Scope |B1-5F
Finishing Materials | AL-panel, AL-sheet EIFS finish coat
Photographer | Pack, Jea-young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안산 상하수도사업소는 안산시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공건물로써의 공공성을 전달하고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적 건축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Mass의 중심부를 비움으로 자연의 접촉을 극대화 하였고 띄움과 비움(피로티, 중정)에 의한 길의 형성으로 대지와 주변 외부공간과의 소통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자연에 순응된 Mass 안에서 남측 전면도로의 열린공간을 무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징체인 Water Fall을 계획하였고 시민들의 개방된 휴식공간으로 Pond 및 대청마루를 계획하여 공공시설 안에서 자연과 소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근무하는 청사 직원들을 고려하여 선큰가든 및 휴게정원, 하늘정원 등의 자연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였다.

외관계획에서는 배치 및 평면 계획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물결처럼 흐르는 창호, 원호로 퍼지는 벽체그래픽 등 물에 대한 상징적 느낌에 힘을 더하여 주었다.

과거와 같이 권위적인 공공건축을 지양하고, 공공에게 열리고 쓰임을 받는 상하수도사업소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자의 말씀처럼 "그릇의 쓰임은 그릇의 비워짐에 있다"는 그 비움의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시민들의 공공편익을 위해 다시 채워져 쓰임 받는 청사가 되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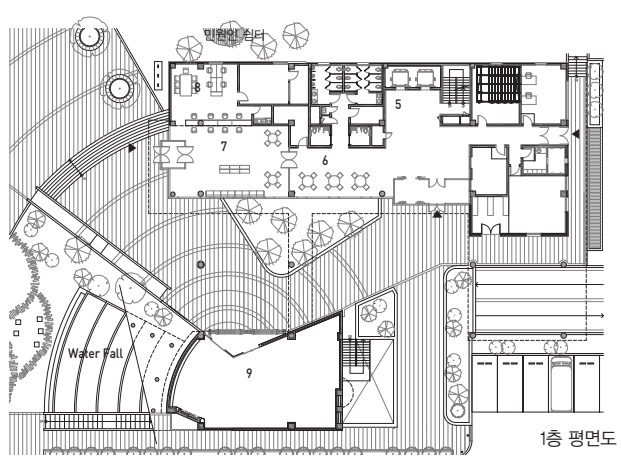
Ansan water and sewage business is a public organization where manage water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 Ansan citizen's life and we have tried to be an eco-friendly public organization as interactive with citizens and deliver publicness.

Our organization have maximized contact with nature, being empty the main of MASS. Creating the paths by spacing out and being empty(pilotis, courtyard) led us to make communication with the land and around outside places.
As in such co-friendly Mass system, we planned WATER FALL in public space of south road which is symbolic to water and sewage business organization. We also planned public facilities so that citizens can feel the nature with such POND and main hall as places to relax.
Moreover, we organically arranged nature places such as the sky garden, sunkeun garden and rest area for employee in organization and citizens who visit such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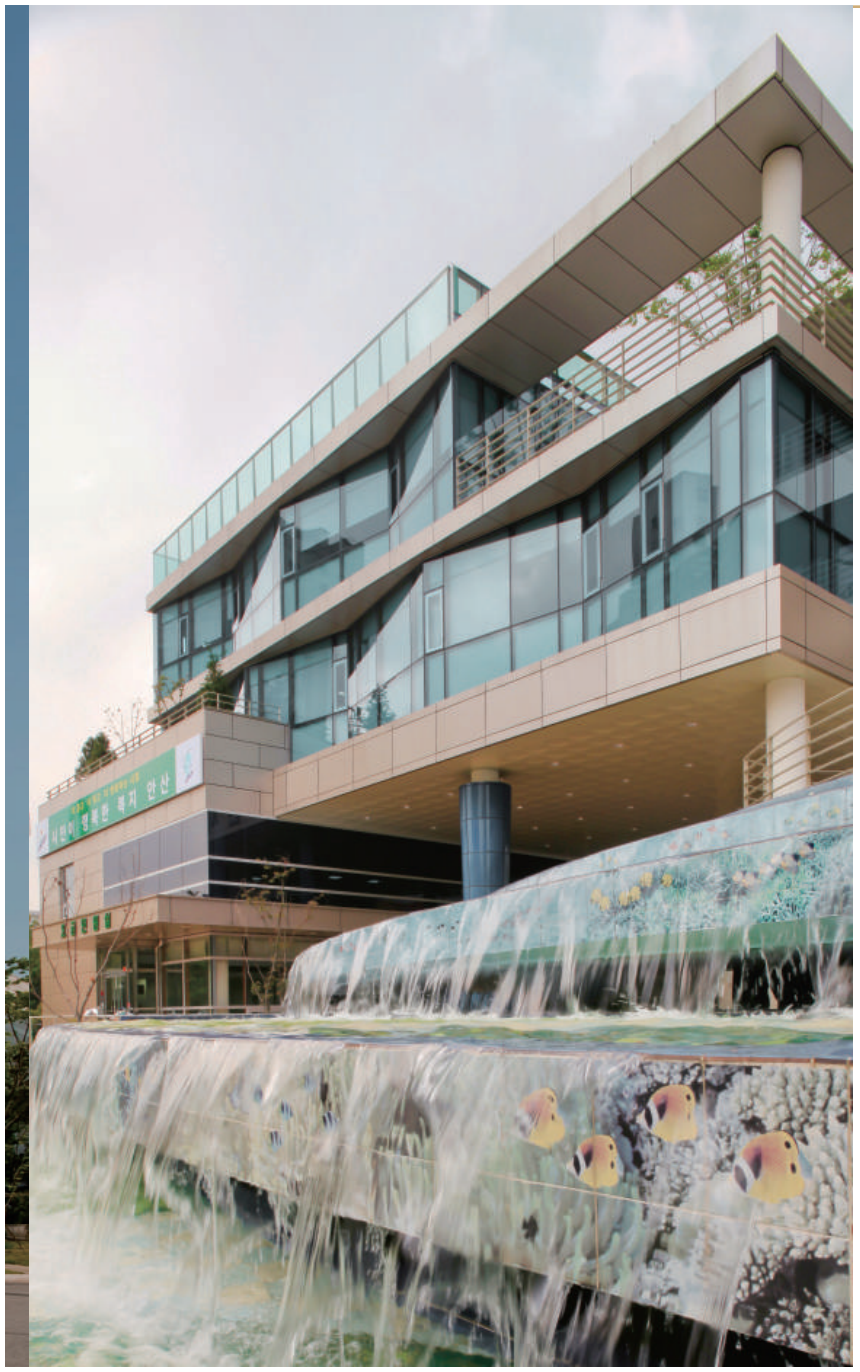
For outside plan, we added symbolic feeling about water such as wall-graphic which spreads windows and doors and circular arcs just like naturally related to water wave and plans of arrangement and plane.

We sublate such authoritative public buildings such as past and to create water and sewage business which is used by public citizens, we all should recall "A bowl's use is for being empty." which was said by Lao-tzu and remind the philosophy of being empty, again. We hope to be the government office building which will be utilized by citizens for their own public benef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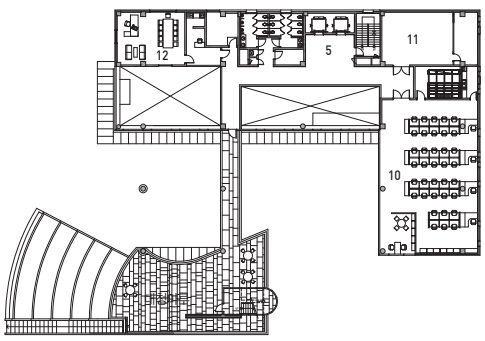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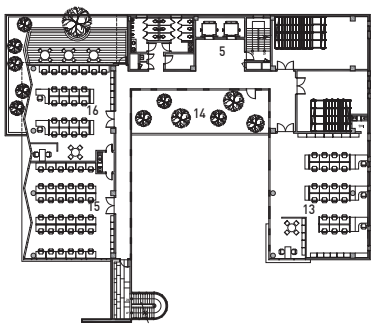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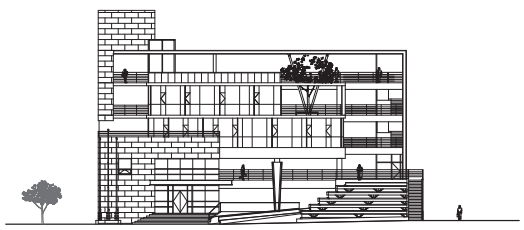
01_ 직원주차장
02_ 홀
03_ 기계실
04_ 전기실
05_ 로비
06_ 휴게라운지
07_ 민원휴게실
08_ 요금민원실
09_ 홍보관
10_ 수도시설과
11_ 종합상황실
12_ 소장실
13_ 하수과
14_ 공중정원
15_ 검침원실
16_ 수도행정과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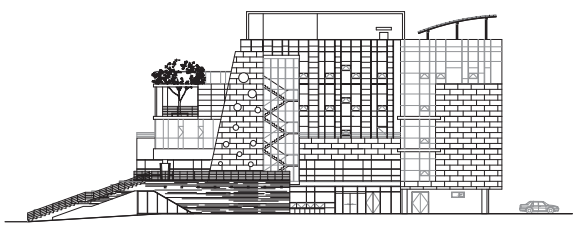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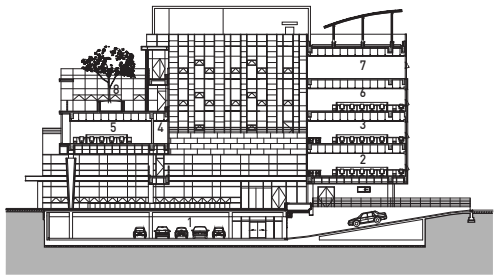
0 2 5 10m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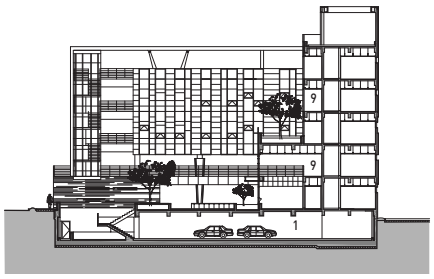


우측면도

01_ 직원주차장
02_ 수도시설과
03_ 하수과
04_ 복도
05_ 검침원실
06_ 본청3과
07_ 식당
08_ 휴게정원
09_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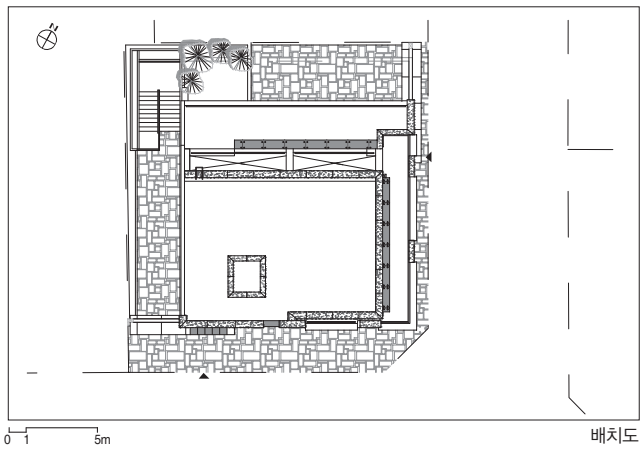
주단면도-1


주단면도-2

서초동 M·L빌딩

Seocho-dong M·L Building

Project team | not disclosed
Client | Milips Trading Co., Ltd
Location | Seoul Seocho-gu Seocho-dong 1343-5
Site Area | 320.70m² Building Area | 163.68m²
Gross Floor Area | 936.37m²
Building to Land Ratio | 51.04%
Floor Area Ratio | 223.22% Structure |R.C
Structural Engineer | DSK Architects & Engineering Co., Ltd
HVAC Engineer | Kun Yang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Kun Chang Engineering Cunsultants Co., Ltd
General Contractor | not disclosed
Building Scope |B1-5F
Finishing Materials | T30 Jeju Stone /T150 AL Curtain Wall
Photographer | not disclosed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김영수 — 정회원 (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Kim, Young-soo, KIRA

정면 전경

대지의 조건이 8차선의 효령로에 면한 이면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이 오래된 중, 소규모의 사무실과 주거지로 밀집된 지역으로써 도자기 작가의 작업실 및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오래전 증축의 영향으로 무질서한 내부공간과 콘크리트 옹벽에 창이 없는 구조로 이루어진 기존 건물의 외부형태는 다소 답답함과 음습한 느낌으로 대지가 갖고있는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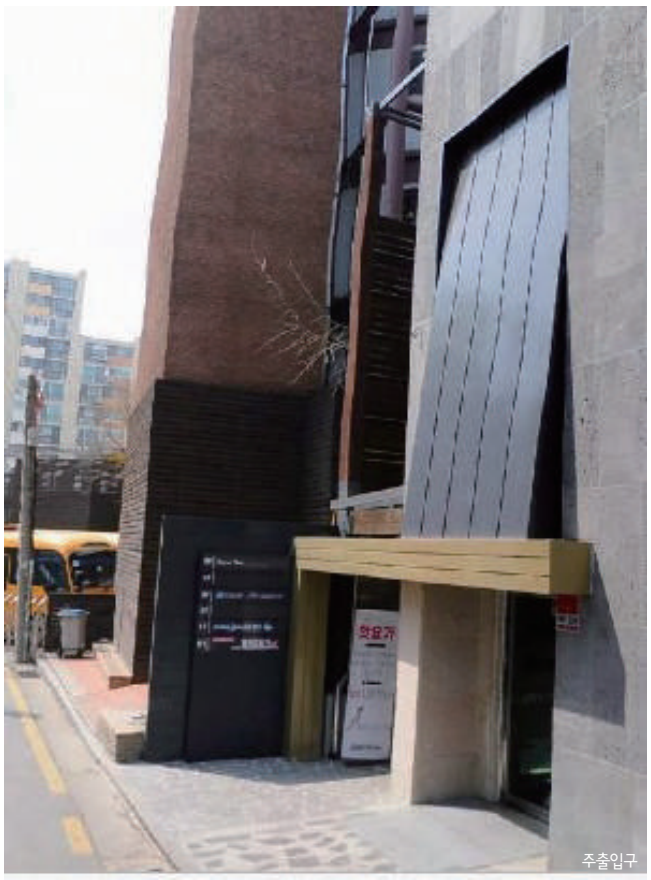
이러한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도로 쪽에 면해있는 콘크리트옹벽을 최소한의 벽면을 남기고 과감하게 철거한 후, 제주돌과 알루미늄 커튼월을 사용하여 폐쇄적 공간을 개방적 공간으로 변화를 줌과 동시에 커튼월의 단점인 수직과 수평적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외벽을 경사형태로 디자인하여 내부 사용자와 외부의 통행자 및 관망자들에게 우리의 옛 돌담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주출입구의 형태는 일반적인 개념의 캐노피를 지양하고 2층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사형태로 철판위에 불소수지도장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입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셋째, 내부공간의 불규칙하게 구성된 설비공간을 한곳으로 집중, 배치하여 각층의 내부공간을 극대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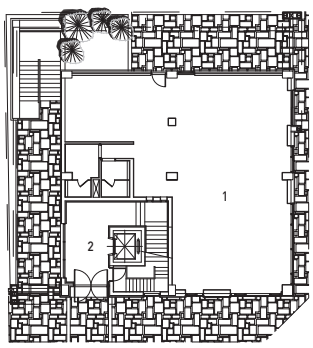
The Land is located at the conner on the second road from Hyo-Ryung Main Road with eight-lane, as region surrounded with offices of small and Midium Size and residential districts. Before remodeling this Building, it was used as Restaurants and Workplace of ceramist, was too old building, consisted in disordered inter-space and concrete wall without any Windows, the exterior of building had very oppressive atmosphere, was not made the most of characteristics as this location

We had an eye to followings, to improve such negatives and closures for this Building
1. Change to Open Space and comfortable.
After dismantling Concrete wall without Window, we layed out remaining minimum wall, to avoid monotonous of Vertical and Horizontal from, designed as inclined from with granite of Jeju Stone and AL Curtain Wall, and so as for Users and Lookers have comfortable like as feeling from our traditional stone wall.
2. Renewed concept and Harmony.
We designed main entrance and Exit by inclined steels coated with Fluorine resin painting from the Second Floor, it is as to Sublate general Canopy concept, will make renewed concept and Harmony in the sense of Sight.
3. Maxmized inter-Space
We layed out maxmized inter-Space, to do so, made Scattered and irregular HVAC spaces centralized displayed to one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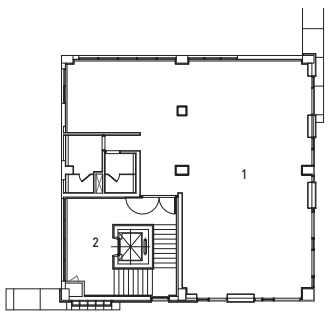

주출입구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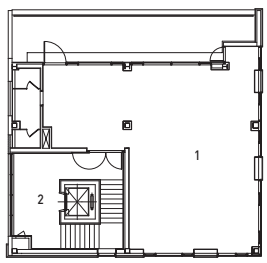
01_ 근린생활시설
02_ ELVE.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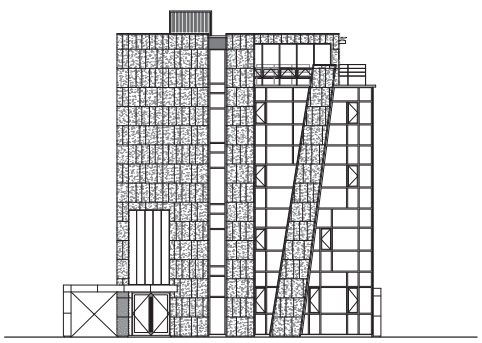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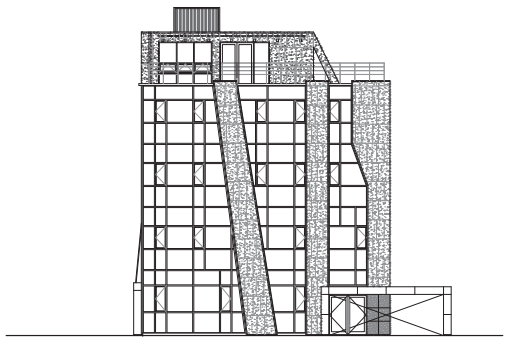
4층 평면도

주출입구 전경



0 1 5m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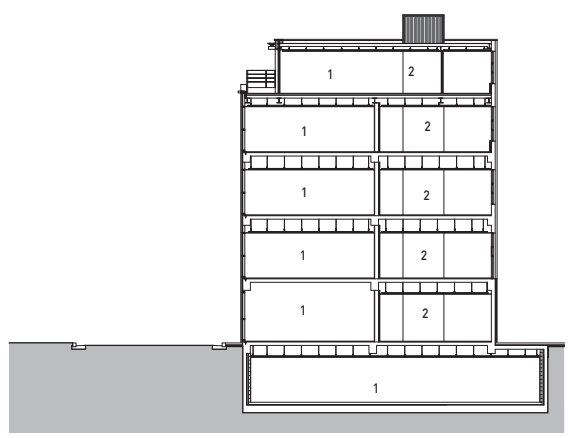
동측면도

공사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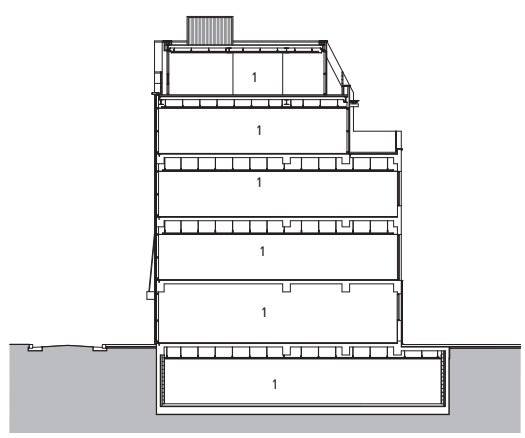
제주석 시공패턴

1층 커튼월 코너부

01_ 근린생활시설
02_ ELEV.홀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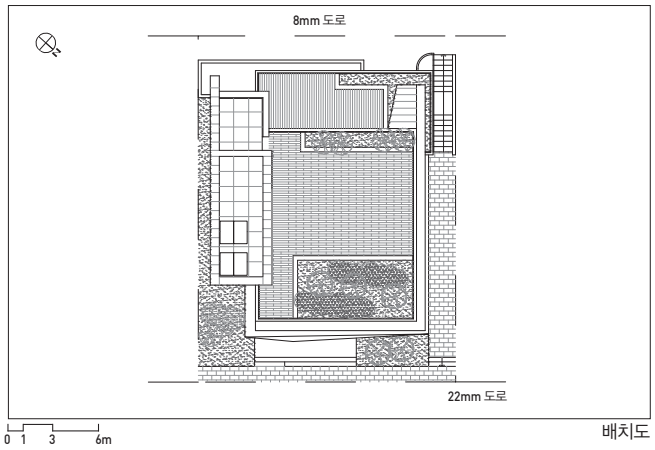


횡단면도

엠 파이브

M 5

Project Team | Kang, Jung-yeol /Ko, Gyeong-m
Client | Kang, Chun-ran
Location | jeju-do jeju-si Ara2-dong 3012-5
Site Area | 392.90m^2 Building Area | 235.055m^2
Gross Floor Area | 1,152.32m^2 Floor Area Ratio | 248.39%
Building to Land Ratio | 59.80% Structure | R.C
Building Scope | B1-5F
HVAC Engineer | not disclosd
Electrical Engineer | not disclosd
Structure Engineer | not disclosd
Finishing Materials | exposde concrete,zinc,macheon-ston
Photographer | not disclosd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선인수 – 정회원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Architects—Sun, Eun-soo, KIRA

전경

pologue_급변하는 현대화 속에서 도시를 상징하는 거대한 도로망과 기능별로 분리된 블록들, 고밀도로 지어진 주거단지는 짧은 기간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편리와 기능위주만으로 짜여진 현재의 모습은 표정이 없는 도시, 무개성한 도시로 남게 되었다.
현 건물이 위치한 이도2지구단위계획구역도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규제와 지침을 설정하여 많은 건축물이 획일화된 모습들로 채워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건축물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접근이 선행되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Re_organize_제시된 프로그램과 규제의 틀에서 형성된 정형화된 불륨은 새로운 힘에 의해 재조직 되면서 다양한 방향의 facade가 파생된다.

Iconic_빛과 시간의 변화에 반응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미지는 도시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이를 공유함으로서 소통의 매개인 icon의 성격을 부여한다.

Open space_전면부에 형성된 Open Space는 자유로운 선택적 공간으로 Public Space의 확장과 후면부로의 연속된 흐름을 유도하여 도시민들에 다양한 Activity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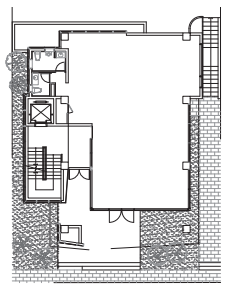
With rapid modernisation giant network of roads, separate blocks by function and high-density residential district, which symbolise the city, achieved significant efficiency.
It got formed but with function and features of position present time became the nothing individual one city.

'Ido 2-Dong' District Unit Plan Area , the site of our project, is effected by a lot of regulations and rules which were established for reasonable land use. However the area ,ironically, is filled with uniform structures because of the legal limit. So we feel it is necessary to try some new design attempt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of the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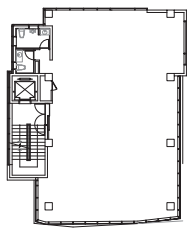
Re_organize
Formulaic volume, which is formed by proposed program and regulation is reorganised by new energy, and makes multidirectional facade.

Iconic
Not only do the image which reacts to changes in light and time make new landscape in the city, it shares the landscape. Therefore it shows the nature as a vehicle for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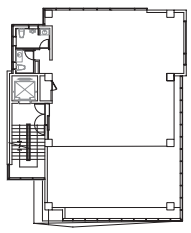
Open space
The open space in the front is a highly selective space. it provides various activities for towners with extension of the public space, as well as leading continuous flow to the rear.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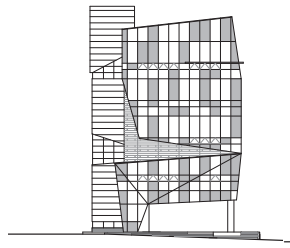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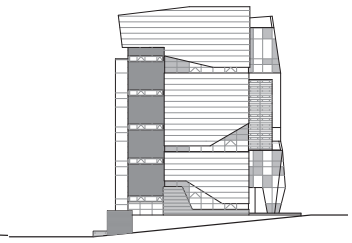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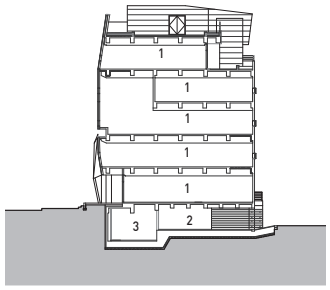
01_ 근린생활시설
02_ 주차장
03_ 물탱크실
04_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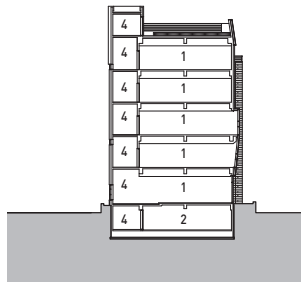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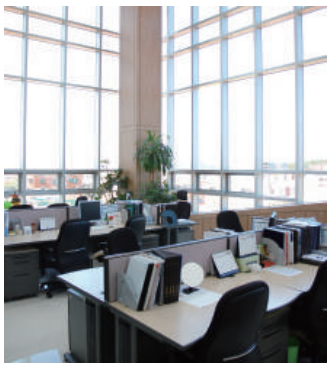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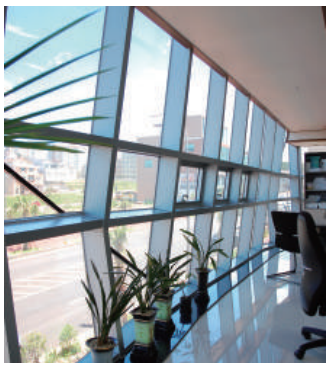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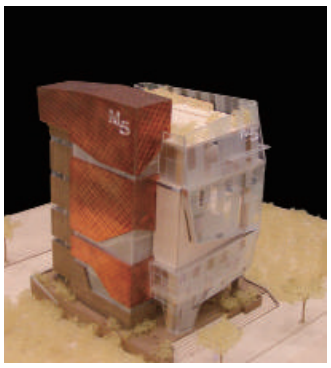


횡단면도

01 3 6m







건축 초대석

Invitation to Achitecture

유 재 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미 펜실베이니어 대학원 경제학과 / 행시 20회 / 총무처 / 재무부 재정금융심의관실 /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 금융정책과장, 국고과장 / 국장, 정책조정국장 / 금융정보분석 원장 / 정책홍보관리 실장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한나라당 정책실장

건축의 사회적 지평확장을 위해

이제 시대와 사회는 전문화와 함께 열린사회, 통합화, 대중화를 도모하며, IT의 발전은 그 개방, 참여, 공유의 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또한 위계적 사회 체계를 넘어 본질적이고 수평적인 평등과 협력, 소통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근래 건축 또한 기술이나 건축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길, 환경과 녹지, Landscape, 지속가능성 등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강제적 규제에서 재량적이고 창의적인 틀을 수용하고, 각 지역민의 삶과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건축사들도 그를 책임 지고 관리 할 역량은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제1의 건축 공동체인 본 협회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사회적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극적 소통을 도모하여 그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히며 개별을 넘어 공론적 건축의 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작은 파장이 큰 울림이 되도록 기원 드린다.

도시화, 현대화와 함께 도시, 건축도 복합화, 거대화, 종합화 현상이 빈번해졌고, 개발 방식도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 분야의 중요성은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런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음에도 이 두 분야의 상호 이해나 교류가 미약했음은 부인 할 수 없다.
서로의 몇 가지 간략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금융의 최고경영인과의 짧은 접촉이 장차 보다 깊은 이해와 잦은 교류를 통해 국가 경제 및 사회 공익을 위한 큰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찬정 :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재한 : 반갑습니다.

박 : 서로 다른 전문분야인 만큼 어렵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한편 흥미롭고 의미 있는 기회라 여기고 있습니다.

유 : 우리 공사나 제가 해 오던 일에 대한 것이라면 몰라도 건축/도시문화에 대한 얘기는 저로서는 솔직히 생경한 느낌입니다.

박 : 편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래도 마음 쓰이실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럼 우선 수월하신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지요.
정책금융공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유 : 네. 우리 정책금융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발전적으로 승계하여, 중소 · 중 견기업 지원, 녹색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SOC 및 지역개발, 위기 시 시장안전판 역할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 관리합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09. 10. 28. 출범한 신설 기관입니다. 자본금이 15조원으로 정부전액 출자지요.
이를 위해 선진형 정책금융방식인 독일 KfW(재건은행)의 온렌딩(On-Lending) 대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 ·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 : 잘 요약해 말씀해 주셨는데, '온렌딩 대출'이란 어떤 것인지요?

유 : 온렌딩(On-lending) 대출은 중소 · 중견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금융입니다.
공사가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은 자신의 책임 하에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시장 친화적 선진금융기법으로, 중개금융기관이 지원대상과 금리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최고금리(금리Cap)를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저리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온렌딩 대출제도는 독일 KfW(재건은행)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당 공사는 국내 실정에 맞게 운영 중입니다.

박 : 성과는 어느 정도 인지요?

유 : 현재 온렌딩 대출제도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실현하여 조기정착 및 저변확대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0년 기준으로 당초 목표가 2.1조원이었는데, 1.1조원 초과하여 754개 기업에 3.2조원을 지원하였구요,
올 '11년에도 3.3조원 자금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 1/4분기 현재 1.6조원으로 분기목표 대비 초과 달성 중입니다.
앞으로는 최근 약정을 체결한 시중은행 및 비활성화 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중개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개금융기관이 지속적 확대되어 '10년 초 8개에서 현재 15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방은행 6개를 포함해서요.

박 : 초기 책임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 참 자세하게 꿰고 계시는군요.
그럼, 공사가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유 : 네, 우리 공사는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 공사 설립 이후 녹색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총 8.1조원을 공급하였고, 정부도 공사의 이러한 역할을 감안하여 작년 7월에 '녹색금융 선도 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특정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산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박 : 저희 건축문화산업 분야도 부가가치가 높은 '창의 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적극적인 공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사의 업무를 이렇게라도 접해보니 한편으로 반갑고 희망적인 느낌이 듭니다.
장차 건축/도시 분야 또한 '녹색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저희 쪽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사업모델개발을 통해 다양한 제안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 : 국가나 사회 성장 발전에 기여한다면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좋은 제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박 : 2011년 '최고경영자 대상'을 2회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의 소감이 어떠셨는지?

유 : 최근 『사회책임경영』과 『상생경영』부문에서 최고경영자 대상을 2차례 수상했던 경험은 올해 들어 가장 감회가 깊은 순간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론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중소 · 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확대 등의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박 : 새로 설립된 조직의 경영으로 수상하신 것이니 그 느낌이 어떠하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평소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 말씀이나 좋아하시는 경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유 : 네. Jone A. Shedd의 '배가 가장 안전할 때는 항구에 머물 때이다.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이유가 아니다.' 라는 문구 인데요.
강소(强少)공기업으로서의 공사는 온렌딩을 위시한 새로운 형태의 친시장적 정책금융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개발하여 실행할 계획인데,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는 있으나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지원함에 따르는 '품위 있고 명예로운 리스크'를 감당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 경구를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 :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이제 건축 관련 생각을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건축 또는 도시가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근본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체험하시거나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유 : 예전의 낮고 답답한 방, 불결한 화장실, 좁은 도로 등 유년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건축은 역시 건강이나 삶의 질과는 불가분의 관계구나하고 생각한 적은 있지요.
또한 근래 초 · 중등 학교 담장을 없애 학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시원하고 개방적인 느낌이 들었었고, 최근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축 시 세대별 설계나 조경시설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질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의 편의나 질적 기반이 건축, 도시에서 오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박 :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지 그 느낌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 이른 것이겠습니다만, 노후생활을 보내시고 싶은 주거 형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유 : 노후 생활을 위한 주거 형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만, 노약자들에게도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가끔씩이라도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 공기나 물, 수목 등이 건강한 소위 친환경적인 주거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도시이든, 지방에서든….
요즘은 최소 70대가 되어야 노인이라고 한다는데 그 때에는 엄청난 기술이나 물질문명의 발달로 아마도 기술적인 서비스나 편리함은 만족할 만한 정도가 될 것 같고, 단지 환경의 질이나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데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요.

박 : 단순한 말씀 같으나 저희들이 기대하고 고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 : 그렇습니까?

박 : 그럼,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자녀들에게 추천하고픈 주거나 건축이 있으신지요?

유 : 일반적인 도시민으로서는 어떤 집이든 자녀들 몫의 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어느 부모나 가지는 희망이겠지요.
솔직히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의 단축'이라 할 만큼의 시대를 살아 왔고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에는 가끔씩 온 가족이 여유로움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집이 퇴근 후 잠만 자거나 단순한 소유재산이라는 그런 집이 아니라, 가족은 물론 이웃들과도 어울리는 여유로움도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 : 그 분야를 다룬다는 전문인들로써 책임감이 더 해집니다.
평소 건축, 도시의 어떤 면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유 : 공사의 주요한 사업 중 하나가 지역개발 금융지원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업무상 건축보다는 도시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물류 및 관광단지 조성, 도시재개발 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 업무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요.
최근 도시개발 계획의 특징이 산업단지라도 이전과 달리 산업과 주거가 혼합된 첨단복합단지로 개발된다는 점인데, 이러한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각 구역 간 유기적인 조화를 고려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쾌적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박 : 앞으로 건축/도시 분야, 에너지나 환경 분야 등에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필요 시 협의나 제안 의사는 있으신지요?

유 : 오늘날 건축 및 도시 프로젝트가 대형화되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금융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도시계획안 임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는 금융조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사장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요.
따라서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전문가들도 금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금융인들도 건축 및 도시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건축/도시 분야에서의 제안이 더 많고 효율적이겠지요.

박 :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건축을 단순히 기술적 종합을 넘어 고유한 창작, 창의 행위로 보시는 것이지요?

유 : 그렇지요. 건축은 기술이 수반된 창작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건축물이 들어설 토지에 적합한 수많은 가능성 중 최상의 안을 도출해 내는 창작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대나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학 기술이 효율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은 창작과 기술이 조화되고 종합된 문화적 소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 : 그 창작인에게 사회적 명예나 존중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창작 유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건축문화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준을 평가해 주십시오.

유 : 솔직히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비전문가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설계자를 준공식에 초청하지 않은 현실을 비판했던 언론 기사를 언뜻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간접적이나마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인들의 입장에선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아마 앞으로도 건성으로 넘어 갔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짧고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한 이런 접촉도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사회나 남이 알아주기를 막연히 바라는 것 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이 먼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문학가나 화가, 음악가 등 여러 창작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 재 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정직하고, 책임 있는 금융'이란 기치 아래,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경영 이념을 가진 유재한 사장님과의 면담은 사전 인터뷰 수용에도 불구하고 바쁜 업무로 인해 쉬이 잡히지 않았다. 결국 많은 비가 뿌리던 7월의 주초 오후에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 짧지만 의미 있는 소통의 기회와 진솔한 생각을 나누게 되었다. 긴(?) 경력에도 나타나 있듯이 정부 공직에 들어 온 후, 재경부의 여러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현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영책임을 맡기까지 자금 및 국고 관리,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등 그야말로 최고의 재무, 금융통임을 알 수 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출입구 관리서부터 사장실에 이르기까지 관계 직원 모두의 빈틈없는 안내와 따뜻하고 정중한 자세, 깔끔하면서 잘 정리된 업무 공간, 금융 업무 시스템 등과 함께 현대적인 이미지와 스마트한 인상을 준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 보다 깊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는 못 하였지만, 상호 소통의 계기나 기회가 적었던 만큼 나름의 큰 보람은 있었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은 없다. 도심 속의 휴식 공간 확보,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한 옥상 정원화 사업 결과도 보다 나은 건축 · 도시 공간을 위한 하나의 실천 사례로서 반갑다. 앞으로 건축사 업무 분야와 정책금융분야와의 보다 넓고 깊은 상생 관계를 기대함은 과한 희망일까?

인터뷰 및 정리 / 박찬정

박 :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그리 이해해 주시니 반갑네요. 주변 분들에게도 그런 취지를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건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유 :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좋은 건축'이란 이용자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미가 갖추어진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물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탄소배출 등이 국내, 외의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녹색선도기관인 공사 입장에서 '친환경 건축'은 좋은 건축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설계자 · 시공자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좋은 건축물과 도시를 만들려는 의지나 의식을 가져야 하고, 또한 그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쉬이 포기하거나 노력의 강도를 늦춰서는 안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본다는 의지를 내셔야 합니다.

박 : 좋은 건축도 건축이지만, 그것을 만들어 갈 기본을 강조해 주시는 군요. 꼭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나 정부, 그리고 건축사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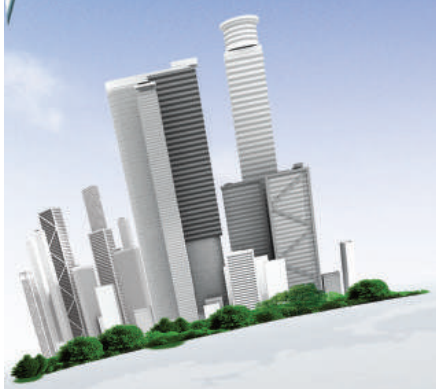
유 : 어디나 그렇겠습니다만,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잘 이해하여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 도시 분야는 대표적인 융 · 복합의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회화나 타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를 해 나가시는 게 중요 할 것 같습니다. 당 공사도 앞으로 지역개발 지원이나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과정에서 건축 관계자분들과 서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름의 노력과 업적을 쌓으셨습니다만, 앞으로의 건축/도시의 문제를 바라볼 때 건축 관계자 여러분들이 더욱 큰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박 : 정말 귀한 시간과 말씀 감사합니다. 늘 건강 하십시오.

협회의 상징!

휘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간혹 공적 혹은 사적으로 협회의 휘장을 사용할 때
협회의 상징인 '휘장'의 모양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휘장은 우리나라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의 상징이므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휘장은 협회의 상징(Symbol mark)으로서,
도안에 응용된 「ㄷ, ㄱ, ㅎ」은 대한건축사협회를 뜻하며
전체적인 모양은 건축적 분위기가 짙은
한국의 고유한 완자무늬로부터 착상되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중남미문화제 지상 중계

'멕시코건축사대회 및 UIA 기후변화포럼'에 참석하기 전 서울대 라틴연구소 김창민 소장과 이성훈 교수, 당시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필자(김희곤 · 건축사지편찬T/F위원회 위원)가 건축사협회 회장실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어렵사리 라틴아메리카의 중심국가인 멕시코 방문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으며 하는 바람이었다.

건축사편찬T/F위원회에서도 가칭 '건축의 지평을 넓히려면'이라는 화두로 고민하는 시점에 건축 밖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진행되었던 중남미문화제의 주옥같은 강연 자료를 건축사지에 초대하기로 하였다.

중남미문화제에 초대된 인사로는 멕시코건축사협회 회장을 지낸 Lizandro de la Garza Villareal, 주한 멕시코대사관 참사 Mauricio Torres, 페루대사 남편이자 건축사인 Diego del Risco를 비롯한 건축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이 이어졌다.

첫 번째 강연자로 중남미 문화지킴이로 알려진 이복형 중남미문화원 원장이 나섰다. 이 원장은 오랜 시간 동안 중남미 대사를 지낸 중남미 전문가로 영어와 스페인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중남미문화에 대한 열정이 화석처럼 굳어있는 분이었다. 학문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중남미문화를 '중남미 문화의 이해'라는 폭넓은 주제로 시원시원한 목소리의 달변까지 더해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우리에게 아직은 친숙하지 않은 중남미문화를 가슴으로 느낄 정도의 따뜻한 체험담으로 중남미는 발견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던 위대한 세계유산임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였다.

두 번째 강연자는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김창민 소장이 '스페인어권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인종을 중심으로 중남미문화가 어떻게 지배자의 잉크에 철저하게 물들어갔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진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세 번째 강사 역시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박병규 교수로 '라틴아메리카 문화적 자의식과 문화이론'이란 주제로 부드럽게 이어나갔다. 박 교수는 우리에게 친숙한 사진들을 중심으로 중남미문화의 주제를 풀어나갔다. 특히 멕시코시티의 맥시코 대신전의 사진 한 장으로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 장의 사진에 멕시코의 3색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아스테카문명을 짓밟고 스페인 식민문화의 상징인 성당이 서있고 그 위에 멕시코의 현대문명인 고층빌딩이 아픈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서있었다.

마지막 강연자로 국민대학교건축학과 박길룡 교수의 '중남미 현대건축문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랜 시간 중남미 현대건축을 답사한 사진자료와 연구를 중심으로 중남미 현대건축문화를 30분의 시간에 총천연색으로 담아내었다. 중남미의 현대건축을 지배자의 문화에서 벗어나 그들의 고유한 문화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건축을 수체화의 감성으로 소개하였다.

필자가 스페인에서 유학한 정회원건축사라는 희소성보다 중남미를 소개하는 무대가 건축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단절감이 중남미 문화제를 기획하게 만들었다. 개인과 사회, 국가와 세계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건축은 이제 건축전문단체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는 온실안의 화초가 아닌 시대로 변해버렸다. 인문학이 인문학의 울타리를 벗어던지고 건축사를 강사로 초대하였듯이 건축사집단도 인문 학자를 초대하여 그들이 바라보는 문화를 들어야 하는 시대로 변해버렸다.

그동안 영어권중심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외교라인이 모아졌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었지만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도 세계중심국가로 당당하게 도움닫기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라 믿었다. 당장 시급한 UIA총회유치에서 UIA회장단에 대한민국건축사를 임원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륙과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인 과제다. 이슬람권인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지역, 중남미 지역을 제외하고 국제무대를 상상할 수 없는 시점이지만 더욱이 국내건축계도 건축이란 틀 안에서 건축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건축이 사회경제시스템과 문화적인 뻘 속에서 피어올린 연꽃임을 잊지말아야함을 중남미문화제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소통과 통섭이 일상의 주제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바라보듯 건축계의 모습을 사회의 거울로 다시 바라본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편집자주>

이복형 중남미문화원 원장

Lizandrode la Garza Villareal 멕시코건축사회회장

Mauricio Torres 주한멕시코대사관 참사

라틴아메리카의 인종과 정체성 문제

The Issue of Ethnic group of Latin America and Identity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라틴아메리카"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누구나 '혼혈'이라는 단어는 떠올릴 것이다. 그렇다.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인종'이다. 인디오, 흑인, 백인이 다양하게 섞여 온 과정이 곧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이고, 문화의 변천과정이다. 더구나 그 인종들 간의 만남은 수백 년 동안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고, 현재도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본질적 요소이다. 동시에 다양한 인종의 만남은 새로운 문화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원천이 되고 있다. 탱고, 삼바, 룸바, 살사, 메렝게, 쿰비아, 마카레나 등의 음악과 춤은 스페인, 아프리카, 원주민 문화의 만남이 만들어낸 혼종의 문화이다. 20세기 서구 소설이 상상력의 고갈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이 "마술적 사실주의"로 소설을 부활시킨 것도, 그들에겐 풍부한 혼종의 문화 토양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종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획되었다. 왜 라틴아메리카 국가마다 피부의 색깔이 다른지, 혼혈과 인종 분포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알아보고, 인종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 정치, 종교, 사회적 문제 등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면서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나라마다 다른 피부색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주지하다시피, 스페인 정복자들이 라틴아메리카에 도착하면서 인디오와 백인 간의 혼혈이 시작되었다. 남성 정복자들과 인디오 여성 간의 성관계는 정복의 특권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정복 초기에 백인 남녀 간 비율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특히 아스테카, 마야문명이 발달했던 멕시코와 과테말라, 그리고 잉카제국이 있었던 안데스 지역의 페루,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메스티소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나라가 되었다. 특히 안데스 국가들은 여전히 원주민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2011년에 전체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 중 백인 15%, 메스티소 30%, 케추아족 30%, 아이마라족 25% 정도로, 아직도 인디오 원주민 인구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지속된 흑인 노예의 유입으로 혼혈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 기간 동안 1천만 명 이상의 흑인이 라틴아메리카에 도착했고, 도중에 죽은 흑인도 1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결국 유럽에서 온 백인보다 더 많은 수의 흑인이 아프리카를 떠나 중남미로 향했지만 오늘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백인보다 적은 것은, 바로 긴 항해 도중 많이 죽었고, 도착 한 사람들도 가혹한 노동과 열악한 삶의 조건, 질병 등으로 많이 죽고, 출산율도 아주

필자 : 김창민,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장
by Kim, Chang-Min

김창민 교수는 1959년 경북 풍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스페인 국립 마드리드대학교에서 중남미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학과 사회』, 『문학 번역의 이해』(공저)가 있으며, 우리말로 옮긴 책으로는 『미국은 섹스를 한다』, 『살라미나의 병사들』, 『검은 양과 또 다른 우화들』 외 다수가 있다. 『한국의 신화』,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김춘수 시선』 등을 스페인어로 옮겼다.

낮았기 때문이다. 유입된 흑인노예 중 브라질에 40% 정도, 카리브 지역에 40%, 그 외 스페인어 사용 국가들에 16%, 북미에 4% 정도 팔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오늘날 브라질은 흑인 인구가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되었고,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등 카리브해 국가도 흑인과 흑인혼혈 인구의 비율이 높다.

아르헨티나는 18세기 페루 부왕령에서 분리되어 라플라타 부왕령이 될 당시에 인구가 80만 명이었다. 지역과 인종별로 보면 안데스 광산지역 40만, 과라니 원주민 15만, 팜파스 지역의 호전적인 아라우카노 원주민 20만,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의 백인과 혼혈인 5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869년 인구는 약 200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당시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유럽식 근대화를 추진하던 엘리트 세력은 유럽의 백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삼았다. 그래서 1880-1930년 사이 이민 정책을 통해 유럽으로부터 300만 명 이상을 받아들였다. 그 중 43%는 이탈리아에서, 34%는 스페인에서 왔고, 나머지는 독일, 러시아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1900년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인구 중 3분의 1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이미 19세기 말경 아르헨티나는 스스로 백인국가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웃나라인 브라질을 인종적으로 얕보기 시작했다. 이 때 생겨난 아르헨티나인의 인종적 우월주의는 그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왔고, 20세기 말부터 아르헨티나가 지속적인 경제적 난을 겪으면서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했다. 또한 19세기 말에는 스페인 사람보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더 많이 아르헨티나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스페인어에는 이탈리아어 발음과 억양이 스며들었고, 음식을 비롯한 대중문화에도 이탈리아 문화의 요소가 많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도 이탈리아 문화가 주류가 되지 못했던 것은, 20세기 초 아르헨티나의 토착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스페인어, 스페인 문화, 가톨릭, 가족, 가부장적 질서 등이 아르헨티나의 문화적 특징으로 더욱 기반을 다졌기 때문이다.

인종 차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대표적인 메스티소 국가인 멕시코에서 일반 식당에 가면 재미있는 현상을 종종 목격한다. 식당에 들어 설 때 입구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사람이나 음식을 나르는 사람은 메스티소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식당이나 주변 도로를 청소하는 사람은 원주민이거나 원주민에 가까운 외모를 지닌 사람이기 쉽다. 그리고 계산대에서 음식 값을 받는 사람은 백인이거나 백인에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1820년 전후에 독립한다. 그러니까 멕시코도 독립한 지 2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인종과 계급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는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식민 시기에도 스페인 왕령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인디오와 스페인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지녔다고 인정했지만, 현실은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식민 시절 멕시코에서 인종을 구분하고, 차별하려는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다. 아래 표는 18세기 당시 멕시코에서 혼혈의 종류를 분류한 내용이다.

- 스페인 사람과 인디오의 혼혈 : mestizo
- Mestizo와 스페인 여성의 혼혈 : castizo
- Castizo 여성과 스페인 사람의 혼혈 : 스페인 사람
- 스페인 여성과 흑인 남성의 혼혈 : mulato
- 스페인 사람과 mulato 여성과의 혼혈 : morisco
- Morisco 여성과 스페인 사람과의 혼혈 : albino
- 스페인 사람과 albino 여성과의 혼혈 : torna atrás ("turn away")
- 인디오 남성과 torna atras 여성과의 혼혈 : lobo
- Lobo와 인디오 여성과의 혼혈 : zambaigo
- Zambaigo와 인디오 여성과의 혼혈 : cambujo
- Cambujo와 mulato 여성과의 혼혈 : albarazado
- Albarazado와 mulato 여성과의 혼혈 : barcino
- Barcino와 mulato 여성과의 혼혈 : coyote
- Coyote 여성과 인디오 남성과의 혼혈 : chamiso
- Chamiso 여성과 mestizo와의 혼혈 : coyote mestizo
- Coyote mestizo와 mulato 여성과의 혼혈 : ahi te estás (there you are)

이처럼 혼혈과 관련된 어휘가 섬세하게 발달한 것은 18세기 멕시코의 현상만은 아니다. 프랑스령 식민지들에서는 인종에 대한 분류가 더 섬세하게 되어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불미스런 역사의 일부로 이미 사라진 것도 아니다. 1987년, 콜롬비아의 카리브 연안에 있는 카르타헤나 도시에서 120명의 다양한 계층의 성인들에게 다양한 인종과 의상을 입은 22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 인물의 인종 분류를 요구했다. 그 결과 22명의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인종 분류에 사용된 어휘가 128가지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평균 한 사진 당 17가지의 어휘가 사용되었다. 인종에 대한 분류가 단순히 대상자의 피부색과 신체적 특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문화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때, 인종에 대한 분류가 개인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만큼 인종에 대한 개념과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인종과 계급 간의 긴밀한 연관 관계가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인종과 혼혈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대단히 높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임에 틀림없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부는 1870년경부터 대대적인 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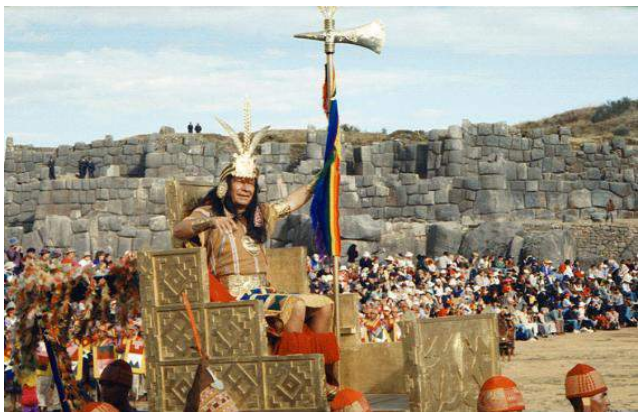
정책을 폄과 동시에, 1880년대에 이르러 팜파에 살고 있던 인디오 부족들을 잔인하게 토벌하여 '야만'적인 요소를 청산하고 인구를 더욱 백인화 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인디오들은 죽거나, 강제로 군대에 입대하거나, 농업노동이나 가사노동에 강제로 투입되었다. 백인 이민과 인디오 토벌 정책의 결과 인디오와 흑인 인구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1869년 인디오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했는데, 1895년에는 전체 인구 약 4백만 명 중 0.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흑인인구도 1830년경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의 4분의 1이나 차지했는데, 1887년에는 2%로 떨어졌다. 그래서 20세기 들어 아르헨티나에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원주민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원주민들을 국민으로 통합하려는 국가적 기획도 없었다. 또 오늘날에도 볼리비아, 파라과이의 하층민은 일자리를 찾아 아르헨티나로 가 농업과 가사 노동에 종사하면서 저임금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는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브라질은 인종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정당이나 인종주의자가 없고, 흑·백인종의 관계가 '민주적'이고도 '유연한' 것이 특징으로 알려진 나라였다. 브라질은 과연 흑인들에게 천국이었는가? 1888년 노예해방이 실현된 지 100년이 지나도록 브라질 정부나 사회는 인종 차별로 인해 생긴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브라질 문화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프리카의 흑인문화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흑인들을 국가 발전과정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인종차별금지법'이 발효될 때까지만 해도 브라질의 일반 주택단지나 상업단지의 건물에는 보통 두 종류의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일반용 승강기(Elevador Social)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인용 승강기(Elevador de Serviço)로, 하인 계급에 속하는 흑인은 절대로 지배 계급이 타는 일반용 승강기에 동행할 수 없었다.

브라질은 북동, 남동, 남부, 중부지방이 사회문화적, 인종적, 경제적 차이가 뚜렷하여 마치 다양한 국가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처럼 보인다. 브라질 각 지역의 뚜렷한 특성을 이루는 근본 바탕은 인종이다. 오늘날 브라질의 1억 9천만 인구 중, 흑인인구는 약 44%를 차지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하다. 예를 들어 백인의 대학 입학률이 43%인 반면 흑인의 입학률은 18%에 불과하여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경우 브라질의 미래 사회에서 흑인의 신분상승은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인종 통합의 노력과 한계

20세기 최초의 민중혁명이라 불리는 멕시코 혁명을 통해서 멕시코 사회는 민족주의 열기로 가득 찼다. 새로운 지도 세력은 멕시코 민중의 대부분이 인종적으로 메스티소라는 점에 상당히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언어, 종교, 의복, 가족 형태, 개인의 의식 같은 요소가 인디오인지 메스티소인지를 결정한다고 믿었다. 또한 그러한 요소들이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개인의 인종도 변화에 얽혀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합의 속에서 엘리트들은 교육을 통해서 인디오를 멕시코 사회에 점진적이고도 비폭력적으로 통합시키려고 시도했다. 그것을 "원주민주의(Indigenismo)"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멕시코혁명에 참여했던 하층계급의 지분을 인정하고, 멕시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메스티소 문화의 한쪽 뿌리를 복원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혁명이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호세 바스콘셀로스는 메스티소를 "raza cósmica"(cosmic race, 조화로운 인종, 세계적 인종)이라고 칭하고, 멕시코를 대표하는 인종이지만, 미래에는 결국 지구를 대표하는 인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주민주의자의 주장은 서구중심주의, 백인우월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스스로 인종의 태생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었고, 나아가 일부는 메스티소와 인디오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백인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잉카의 유적지 삭사우아망에서 열리는 〈태양의 축제〉. 페루 원주민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원주민 문화 회복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열리는 축제이다.

이러한 원주민 운동은 원주민이 많은 안데스 지역 국가들에도 확산되었다. 페루의 경우 칠레와의 태평양 전쟁(1879-1883)에서 패하자 민족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고,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디오를 국민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원주민주의는 사상, 학문, 정치, 예술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그 후 정치인과 지식인이 주도하는 원주민운동이 계속되었고, 20세기 말부터 원주민이 주도하는 원주민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원주민 인구에 걸 맞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인종문제를 해결하고, 인종통합을 이루려는 사회적 공론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 최초의 사회학자이며 인류학자인 질베르투 프레이리(Gilberto Freyre, 1933)는 '인종 민주주의론(racial democracy)'을 내세우면서 "브라질은 인종문제가 없고, 흑·백의 인종 관계가 민주적이고도 유연한 나

라"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브라질의 문화를 '루조-트로피칼리즈무(luso-tropicalismo) 문화'로 규정하면서 포루투갈인, 아프리카흑인, 남미 열대의 토착인 문화의 혼합으로 이어진 문화로 규정하면서, 브라질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 그의 후학들은 이를 발전시켜 "브라질의 인종혼합 경험이 다가올 미래세계에서 다른 나라가 모방하게 될 모델임으로, 브라질인 스스로는 이와 같은 문화적 혼합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브라질 정부는 1930년대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만든 '인종민주주의론'과 '루조-트로피칼리즈무' 신화를 이용해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 정치적 조직을 형성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오히려 정부는 인종차별이 심각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 일부 흑인들을 상징적으로 이너 써클에 끌어안음으로써 대다수 흑인을 사회에서 소외시키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흑인들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 흑인들 중 90%가 자기들이 흑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노예'시절의 과거를 잊으려는 듯 스스로를 '흑인(negro)'이라 부르지 않고, '물라토(mulato)' 아니면 '모레누(moreno)'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100명의 흑인 중 70명은, "인종이 자꾸 혼합되다 보면 전체 브라질 국민의 피부가 언젠가는 '백인화'가 될 것"이라는 실비우 호메루(Silvio Romero)의 주장에 사로잡혀있기에, 예전만큼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추구하지 않으려 한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 하에서도 흑인의 지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1970년대 말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1978년 창설되어 지금은 브라질 전역에서 흑인들의 복지를 주장하는 '흑인운동연합(MNU-Movimento dos Negros Unificados)'은 자신들이 흑인의 후손임을 인정하는 정체성 문제부터 깨우치려는 운동을 펴고 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1995년에 사회학자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브라질 정부는 그 역사상 처음으로 인종적 불평등에 관한 문제를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책의 대 전환을 이루었다. 카르도주 정부는 구조적, 정책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통해 흑인들이 진정한 브라질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다. 특히 흑인문화 재평가 작업에 대한 정책적 후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흑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진정한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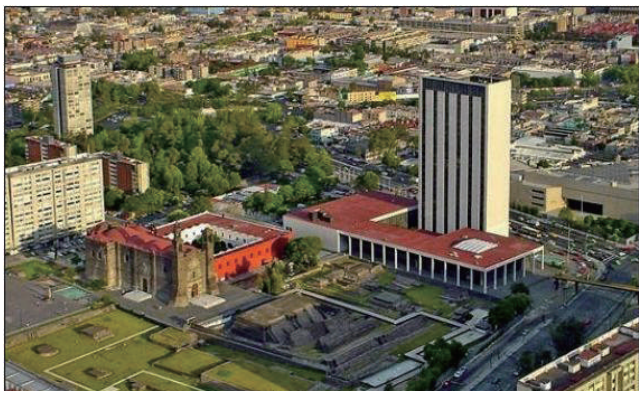
아직도 '인종'은 갈등의 핵심이다!

멕시코의 거의 모든 가정에는 과달루페 성모상이나 그림이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석 앞에 작은 성모상이나 그림을 놓고 안전 운전을 기원한다. 과달루페 성모는 혼혈의 성모 마리아다. 그래서 과달루페 성모는 양 대륙의 문화융합을 대변하는 상징물이다. 혼종화 된, 혹은 라틴아메리카에 토착화된 가톨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정복자 코르테스는 원주민을 개종시키려고 신전을 파괴하고, 원주민의 전통 제례를 엄격하게 금했다. 당시 스페인은 가혹한 종교재판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식으로 원주민을 우상숭배자로 몰고 토착사회를 붕괴시켜 나갔다. 하지만 원주민을 진정으로 개종시키는 사업은 지지부진 하고 있었다.

과달루페 성모

바로 그 때인 1531년 12월 9일, 아스테카문명에서 대지의 여신인 토난친(Tonantzin)의 신전이 있던 테페약에서, 원주민 후안 디에고(Juan Diego)에게 원주민의 피부색을 한 과달루페 성모가 푸른 망토를 두르고 나타나 자신을 기리는 성당을 지으라고 일렀다. 후안 디에고의 말을 들은 사제가 믿지를 않자, 세 번째 나타나 기적을 보여주었고, 결국 사제는 과달루페 성모를 모시는 성당을 짓게 된다. 원주민 모습을 한 성모의 출현으로 원주민들은 수월하게 성모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출현 이후 7년 만에 멕시코 인구의 대부분인 800만 명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된다. 과달루페 성모 사건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종교의 토착화를 극명하게 잘 드러내 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존재하는 산테리아, 부두, 칸돔블레 등의 혼합종교, 다시 말해 가톨릭과 아프리카의 토속종교의 혼합으로 탄생한 종교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종교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각 지역의 인종 구성에 따라 토착화와 혼종화가 이루어져 큰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지만, 정치사회적 영역에서는 아직 많은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 시티에 있는 틀랄텔롤코 광장은 삼색(三色)광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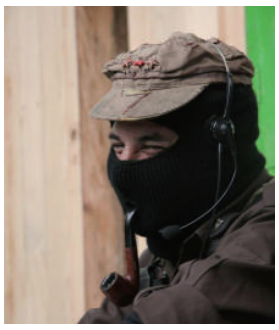

〈틀랄텔롤코 광장, 혹은 삼색 광장〉. 원주민 유적지 위에 성당이 지어졌고, 주변에 근대적 건물들이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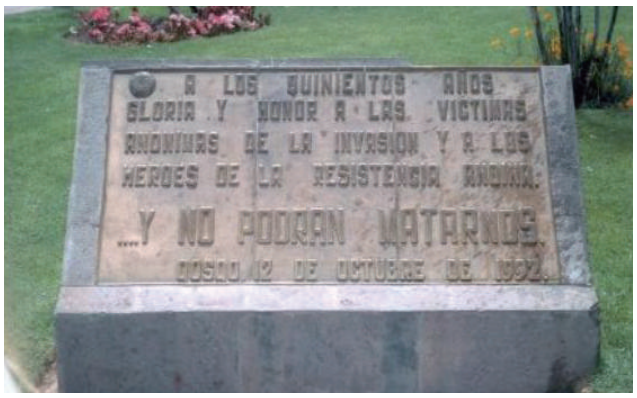
곳은 애초에 아스테카 신전이 있던 곳인데 스페인 정복자들이 그 유적지 위에 성당을 세웠고, 그 후 메스티소 국가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 주변에는 빌딩들이 들어서게 되어 삼색광장이라 칭한다. 그 광장 한 켠에는 멕시코 정복에 대한 의미를 적은 비문이 있다.

스페인에 의한 아스테카 제국 정복의 의미를 알리는 비문

"1521년 8월 13일, 틀랄텔롤코는 쿠아우테목 왕이 장렬하게 방어했으나 에르난 코르테스의 수중에 넘어갔다. 승리도 아니었고, 패배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멕시코인 메스티소 민족이 탄생하는 고통스런 순간이었다." 이 비문은 백인과 원주민의 역사적, 인종적 갈등을 넘어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는 내용이다. 동시에 승자와 패자, 침략자와 피침략자의 피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메스티소 민족의 비극적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민족 통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멕시코 원주민들이 완전히 국민으로 통합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 1994년 1월 1일 발발했다. 미국과 멕시코, 카나다 사이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바로 그날,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밀림에서 원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무장단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이 멕시코 정부군에 선전포고를 했고, 아직까지 미결상태로 남아 있다. 이 무력갈등은 메스티소 국가로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멕시코에서조차 인종 문제가 아직도 생생한 상처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부사령관 마르코스



콜롬버스 도착 500주년을 맞아 쿠스코의 공원에 세워진 비석

과거 잉카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 시의 한 공원에는 콜롬버스 도착 500주년을 맞아 1992년10월 12일에 설치한 비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500 주년을 맞아 침략에 희생된 이름 모를 사람들과 안데스를 방어하려 했던 영웅들에게… 그리고 침략자들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는 2005년 대통령 선거에서 원주민으로선 처음으로 당선된 뒤 "마침내 원주민이 500년 만에 주권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많은 나라에서 인종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인종 불평등 문제는 국민 통합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종 격차는 곧 계급의 고착화와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의미하며, 대도시에서는 도시 빈민촌의 게토화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근래에 페루나 볼리비아 같이 원주민이 많은 국가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인종적 친연성을 내세워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그렇다고 원주민이나 혼혈이 인종에만 근거해 투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족으로 구성된 원주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원주민출신 지도자가 흔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많은 혼혈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해 허위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종 문제와 그것에서 파생되는 경제, 사회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적 민주화와 정보의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원주민들도 많이 의식화되어 가고, 주체적인 원주민 운동도 활발해지고 있어, 미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차이를 넘어 공존으로: 스페인어권 세계의 문화 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이성형 편, 「브라질: 역사, 정치, 문화」, 까치, 2010.
· Fox, Arturo A., Latinoamérica: Presente y pasado, Pearson Education, Inc., Upper Saddle River, NJ, 2003.
· Gilroy, Paul, 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Verso, London, 1993.
· Hillman, Richard S., Understanding contemporary Latin America,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Boulder, Colorado, 2001.
· Rouquié, Alain, América Latina: Introducción al extremo occidente, Siglo Veintiuno Editores, México, 1989.

100작품의 건축사 프로젝트

「100작품스케치 2011-2012」

-창작 과정에 나타난 그 예술정신의 흔적-

기획의도

〈100작품스케치2011-2012〉

금번 건축사지는 〈100작품스케치2011-2012〉라는 제목하에
2011-2012년의 2년 기획으로 회원 여러분이 건축사지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작품 중 100작품을 모집하여 게재하고자 정중하게 부탁 드립니다.
부디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작품을 보여 주십시요.

100작품의 건축사 프로젝트로서 창작 과정에 나타난 그 예술정신 흔적의 가촉성을 통하여 보다 과장없는 진솔한 이야기를 모두가 나누고자 함.

작품내용

1. CG에 의한 작품의 표현기법, 완성된 작품의 사진 보다는 에스키스(esquisse), 스케치, 드로잉, 모형 등과 같은 촉감적인 방법의 정직한 표현을 통하여 건축사의 예술세계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직접 설계자의 프로젝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자세한 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일정

〈응모방법과 일정〉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서 자천과 타천 2가지 형식
작품모집일정: 2011.8.1~8.30
작품게재일정: 2011. 10월호부터(예정)

작품분야

〈모집작품분야〉

1. 준공 작품–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된 작품으로서 가능하면 사용자(건축주)의 평가가 첨부된 작품
[참고: 〈아카시아 건축상〉은 준공 후 2 년이 경과된 작품만 출품]
2. 계획작품 및 현상설계 응모작품– 실현되지 않은 작품으로서 소개하고 싶은 작품 당선작은 물론, 당선작이 아니라도 참여한 작품으로서 작가 의도가 나타난 많은 스케치 등을 소개하고자 하는 작품
3. 환경건축 작품 외 기타작품– 공공디자인, 조각, 설치작품, 다리, 조경 등 기타
[참고: 노만 포스터나 프랭크 게리의 브릿지 설계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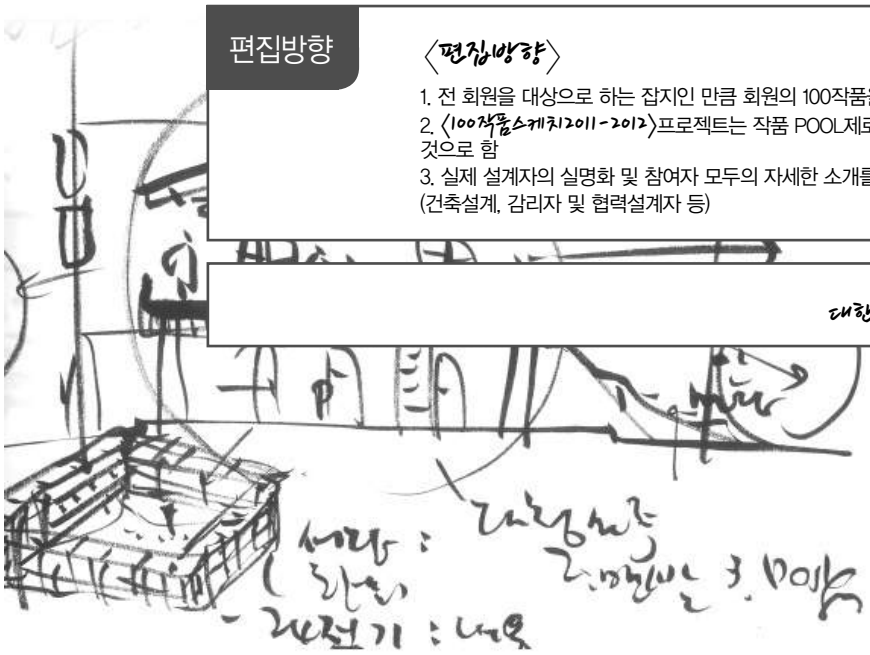
편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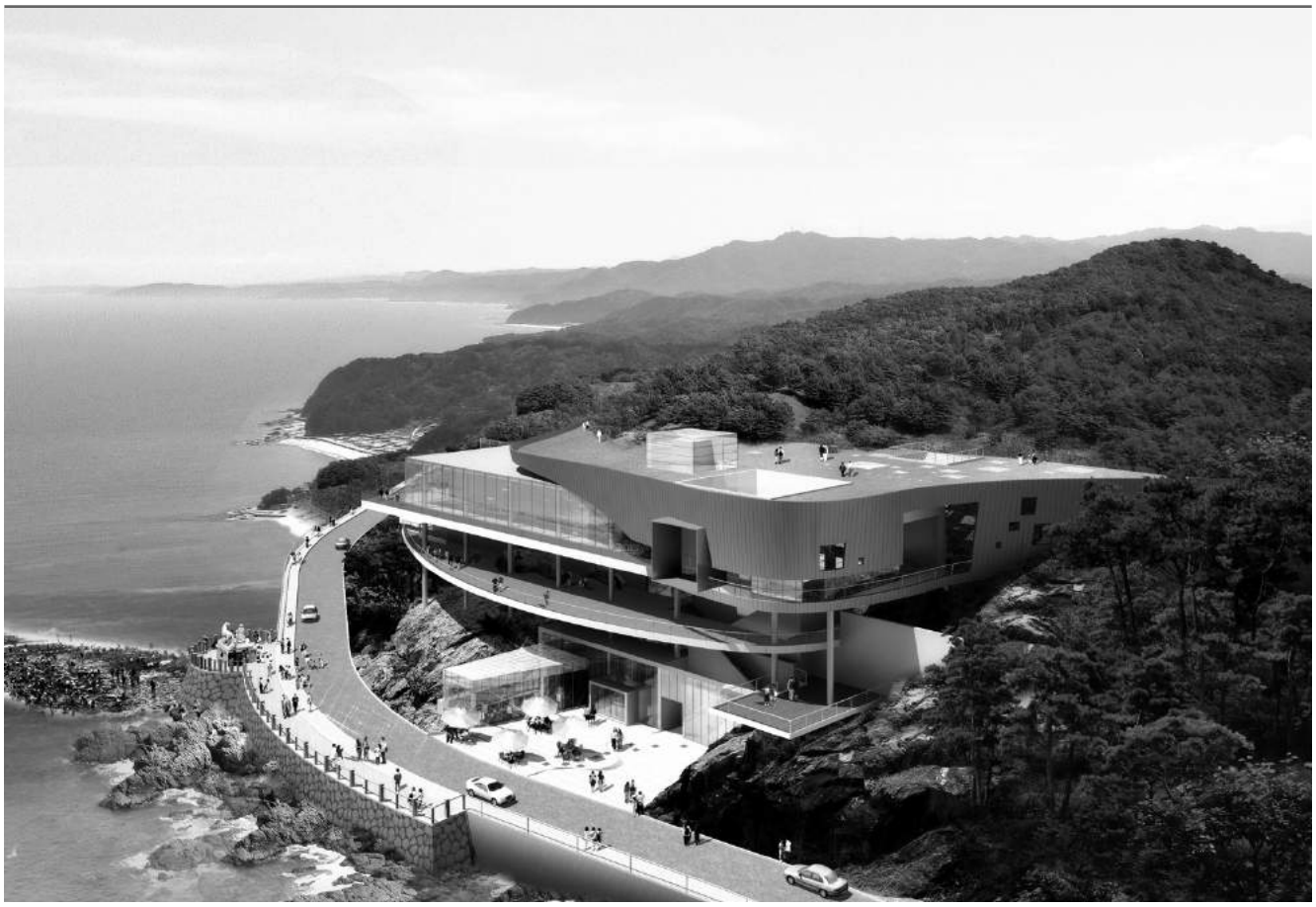
〈편집방향〉

1.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인 만큼 회원의 100작품을 고루 게재할수 있도록 편집
2. 〈100작품스케치2011-2012〉프로젝트는 작품 POOL제로서 미리 100작품을 접수 받은 후에 편집하는 것으로 함
3. 실제 설계자의 실명화 및 참여자 모두의 자세한 소개를 하도록 함
(건축설계, 감리자 및 협력설계자 등)

연락처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02.3415.6862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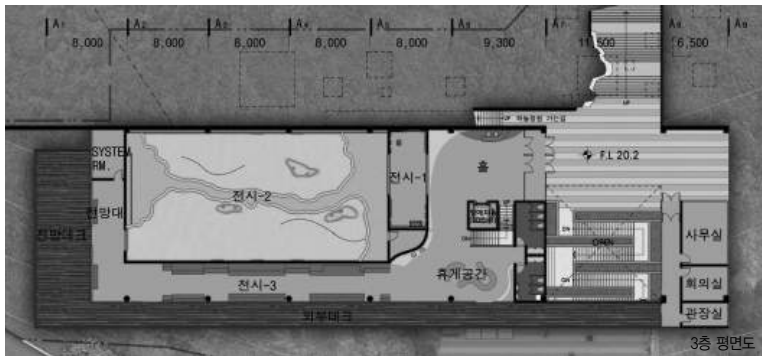
Experience Space for mysterious sea route in Jin-do island

당선작 _ 이순미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지위치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92-1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문화및 집회시설, 전시장
대지면적	4,176.53㎡
건축면적	1,206.56㎡
연 면 적	1,387.20㎡
건 폐 율	28.89%
용 적 률	33.21%
규 모	지상 3층
발 주 처	진도군청
설계담당	백민곤, 김기현, 김도용, 임한영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이 위치할 곳은 진도군 회동마을 신비의 바닷길 전설이 깃든 뽕할머니상 후면이다.
본 계획안은 자연지형과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녹지와 오픈스페이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건물로 계획하였다.
건물 컨셉은 '천공의 섬 (Floting Island)' 이다. 진도군이 갖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신비의 바닷길, 주변 컨텍스트를 반영하여 자연지형위에 섬을 띄운다는 컨셉으로 접근하였으며, 신비의 바닷길과 진도군만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과 상징성을 갖도록 표현하였다.
건물은 평상시와 행사시 다양한 인원의 수용과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전면과 후면에 진입광장과 기존 자연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의 성격별 수직조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진입광장 → 영상관 →에코 커뮤니티 데크(포토존) → 체험관 → 햇살언덕 → 기존전망대로 연계되는 건물로 계획하였다.
앞으로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을 통해서 우리나라만의 축제가 아닌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세계 속의 축제로 거듭났으면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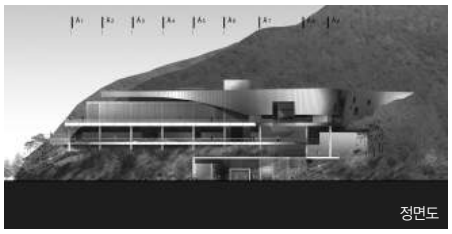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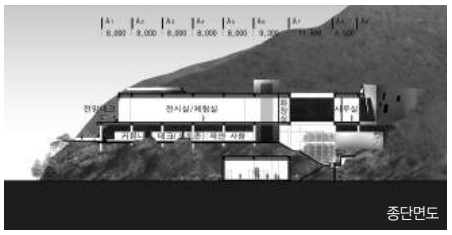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Experience Space for mysterious sea route in Jin-do island

우수작 _ 박동준 정회원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92-1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3D영상관, 체험관, 전시관, 전망대
대지면적	3,874.61㎡
건축면적	829.76㎡
연 면 적	1,230.90㎡
건 폐 율	21.42%
용 적 률	31.77%
규 모	지상 2층
설계담당	김용준, 장지훈, 마재열, 정재원, 조성호, 정하연, 강은이

Flow of the Nature
바닷길의 시작점에 면한 가파른 경사의 돌산인 계획대지의 특성을 감안하였다.
자연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라는 입장에서 기존 지형의 등고선을 조형화하는 자연친화적 체험관을 지향했다.
체험관의 형태는 진도의 부드러운 해안선 및 바닷길의 역동적인 흐름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곳이 뽕할머니 전설과 신비의 바닷길 축제, 진도의 미래를 담는 기적의 장소로 문화,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연과 공생하는 체험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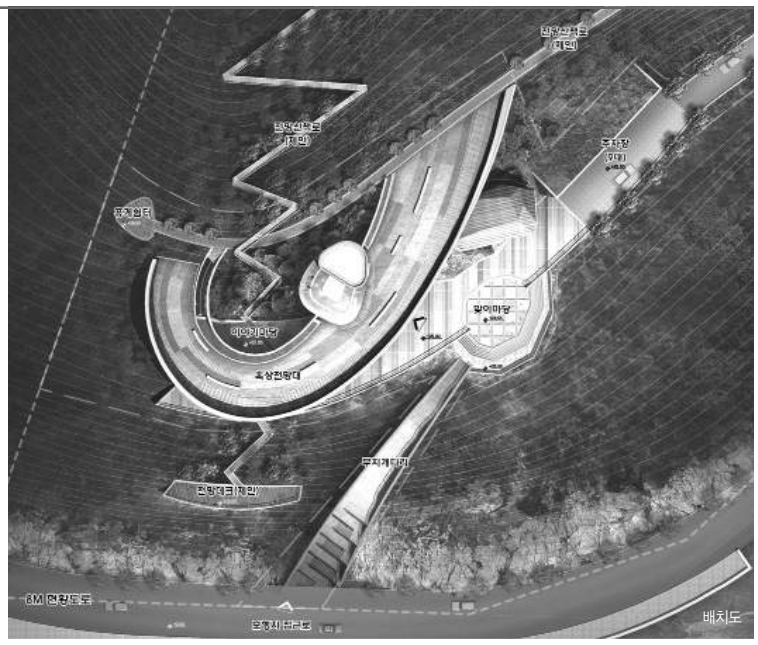
체험관의 조형 및 입단면 계획은 다음의 세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었다.

상징적 요소
국내 최대 규모의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계획대지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닷길 – 체험관 – 회동전망대의 강한 축을 구성한다. 체험관은 바닷길과 관련하여 시각적, 심미적, 위치적으로 구심점을 형성하게 된다.

자연적 요소
체험관은 계획대지가 갖는 자연의 켜를 그대로 살려 형상화했으며 돌산으로 이루어진 진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3D영상관의 돌맹이 형태 및 자연석 쌓기 등의 외부마감에 적용하였다.

설화적 요소
바닷길과 관련된 뽕할머니 전설에 등장하는 무지개, 망부석 등의 설화적 요소를 조형화하여 체험관 자체에 이야기꺼리를 두고자 하였다.
자연의 등고선을 따라 건물의 형태를 담아냄으로써 드러내지 않고 자연에 묻힌 듯한 문화와 휴식의 장소로 문화적 매개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하였다.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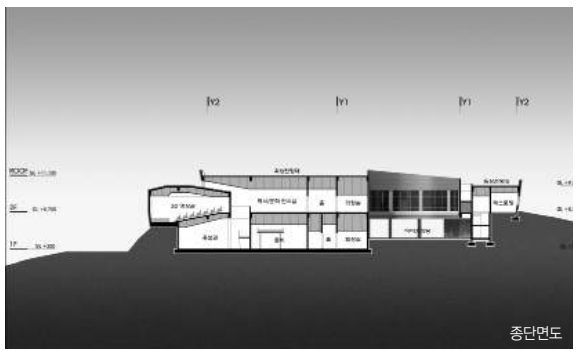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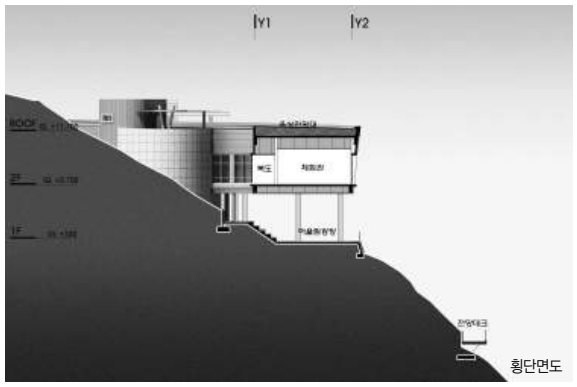
정면도

1층 평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조감도


횡단면도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Experience Space for mysterious sea route in Jin-do island

가작 _ 남상득 정회원
(주)씨엔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 92-1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구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4,132㎡
건축면적	936.33㎡
연 면 적	1,353.48㎡
건 폐 율	22.66%
용 적 률	32.75%
규 모	지상 3층
설계담당	백유미, 이정만, 권도연, 임경빈

바닷길은 산을 따라 하늘로 뻗어 새로운 녹색길로 열리고 그 길의 끝자락에 "바다와 우주,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장소"가 구축된다.

계획의 기본방향

바닷길 체험관은 신비의 바닷길의 연장선상에서 구축되어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전체적인 매스는 길을 모티브로 하여 전체적인 동선을 결정하고 그 위로 공간이 생성되는 형태로 계획하였으며, 전망대는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사선을 이용하여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진도의 바닷길을 상징하였으며, "바다와 우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강화하였다.

건축계획

– 배치계획

건물은 바닷길에서의 인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변 녹지의 흐름에 동화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기존의 전망대 시설과 장래계획에 포함된 상업, 숙박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방문객의 다양한 체험을 유도하고,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도록 계획하였다.

– 동선계획

1층의 주출입구부터 전시공간을 지나 옥외공간까지 이르는 전체적으로 명쾌한 직선의 전시 동선을 계획하여 방문객의 효율적인 관람을 유도하였다. 또한 시설 기능에 따른 수직동선의 분리를 통해 이용편의 및 관리 용이성을 증대하였으며, 1층의 주출입구 뿐만 아니라 3층의 부출입구를 두어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목적 동선을 확보하였다.

– 평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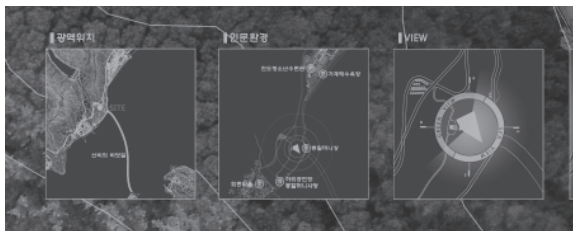
건물은 크게 각기 다른 3가지 공간(전시공간, 전망대, 편의시설)으로 계획되었다. 이 공간들은 유기적으로 엮어져서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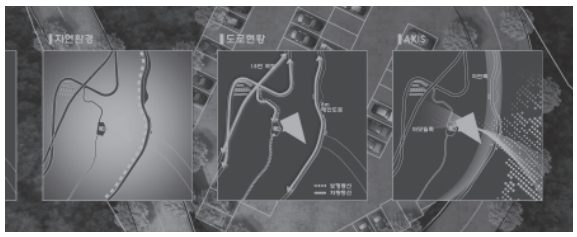
–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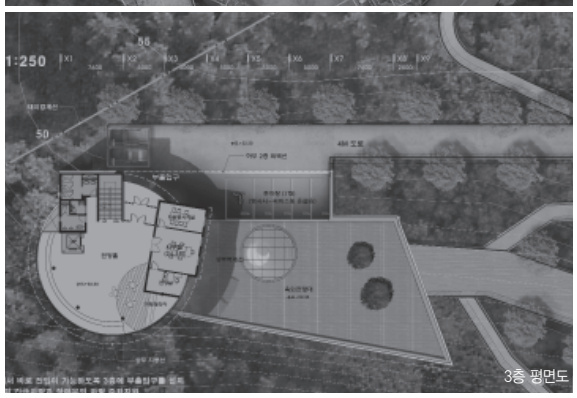
건물의 입면에는 소나무가 다수 분포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소나무의 곧게 뻗은 수직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수직 프레임을 도입, 녹지와 건물을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하였다.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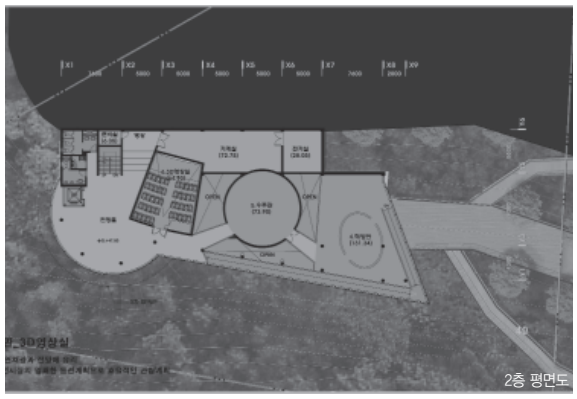
절토를 최소화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회동전망대의 시야확보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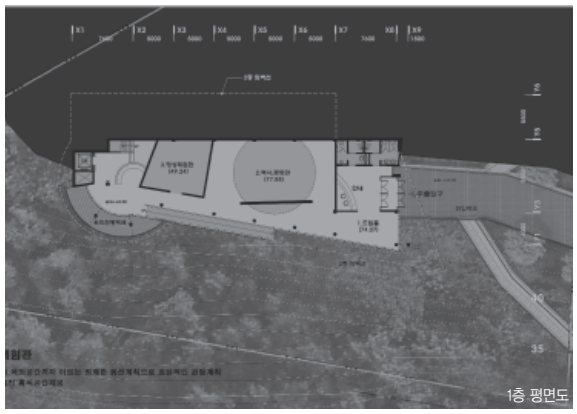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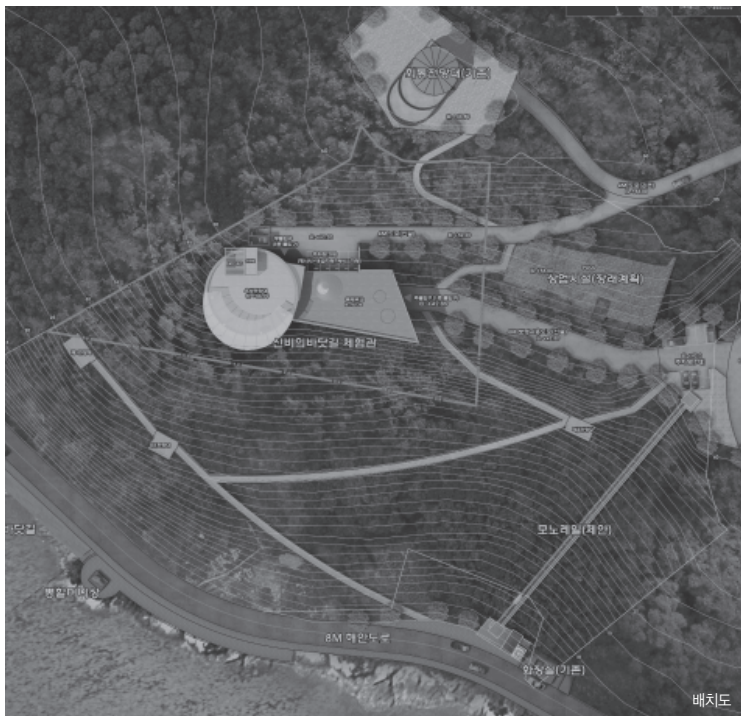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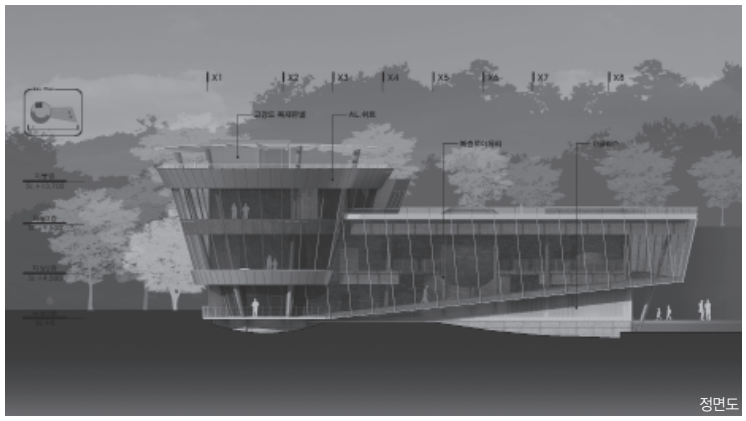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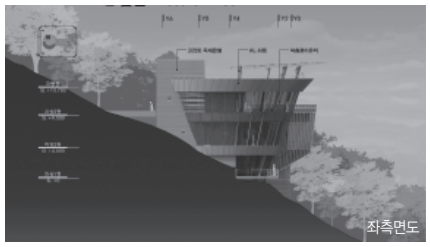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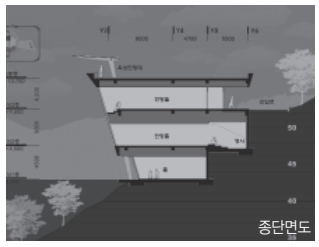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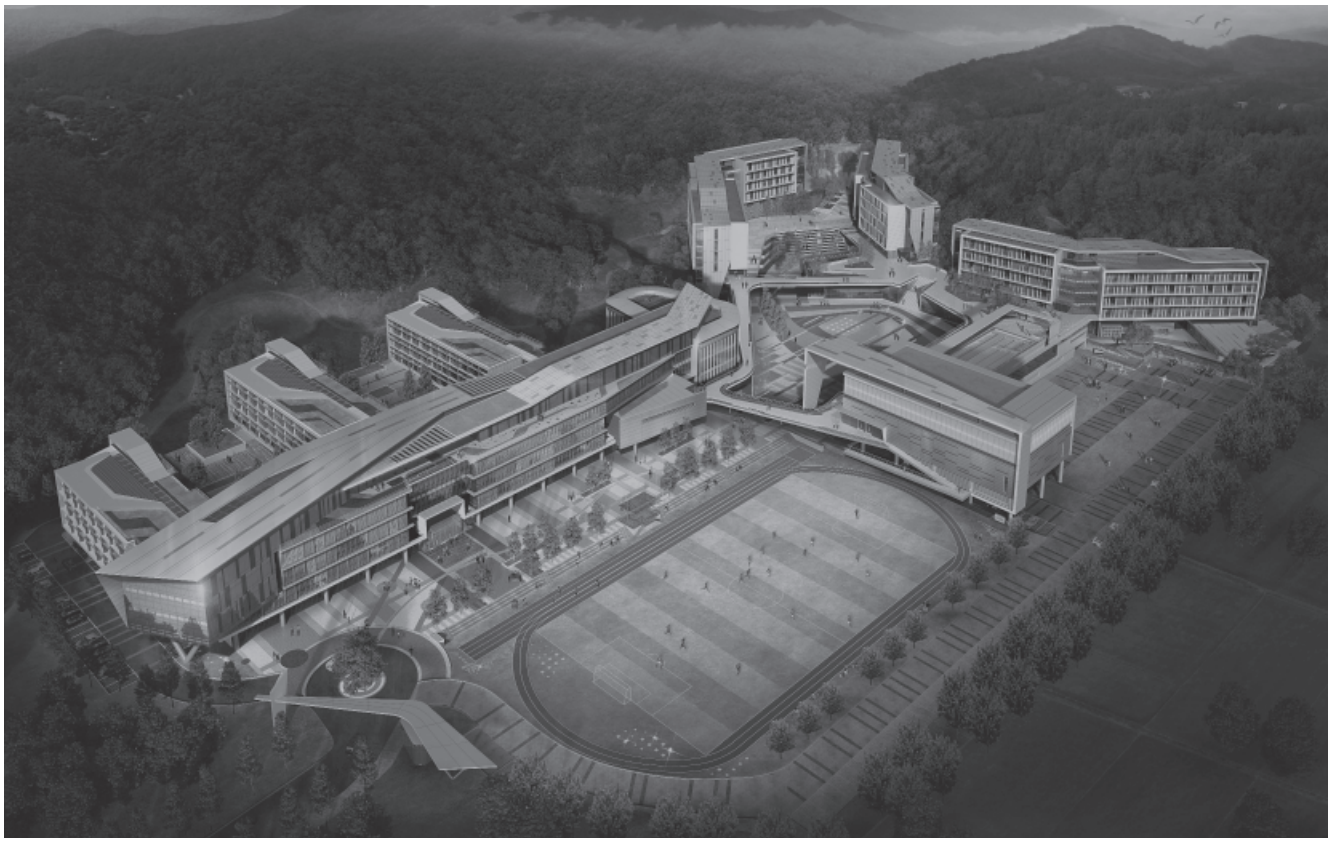


좌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

Dormitory High School for Military Officer's Children

당선 _ 이용호 정회원
(주)행림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29-10 일원
지역지구	보존관리지역
주요용도	기숙형 고등학교
대지면적	59,720㎡
건축면적	11,920.11㎡
연 면 적	40,380.20㎡
건 폐 율	19.96%
용 적 률	62.70%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고등학교) 지하 1층, 지상 6층(기숙사)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설계담당	김성원, 윤재석, 임정국, 정순원, 임승혁, 박찬원, 정돈희, 이종진, 안용일,이승택

가장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이 군부모의 부대배치 등 잦은 복무지 이동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적응도 못하고 옮겨 다녀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 좀 더 신중하게 시작을 하였다.

먼저 모든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 집약시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자. 그리고 포근한 둥지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대지의 조건을 하나하나 분석, 정리 하였다.

대지조건은 산에 둘러 쌓여있어 자연과의 교감은 좋으나 너무 외진 것은 아닌지, 그러면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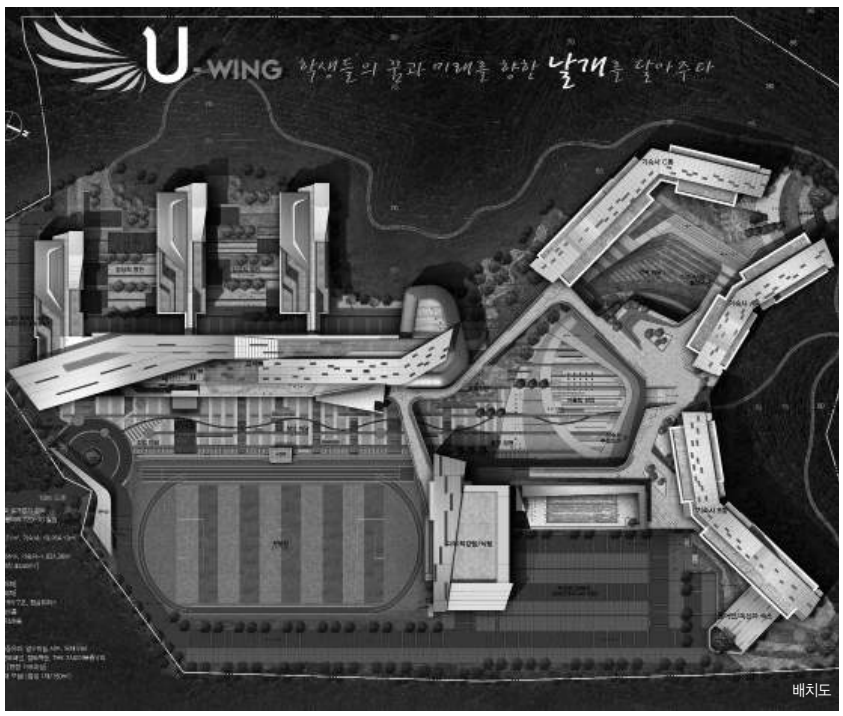
24시간 교내에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관리 기능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공간 만들기에 중점을 두어 고민하였고. 안에서 밖을 바라보게 하기, 그리고 각각의 공간에서 서로서로 자주 만나게 하기를 고민하였다.

물리적인 면으로 친환성과 최소한의 원지형을 보존하기, 각 지반의 높이를 이용하여 사이 공간을 만들기, 그리고 기능에 충실하기에 순서를 정하여 계획을 잡아 나갔다. 각각의 기능을 무리없이 연결하고 분산시키는 동선을 입체적으로 계획하여 전체 학생움직임을 수월하도록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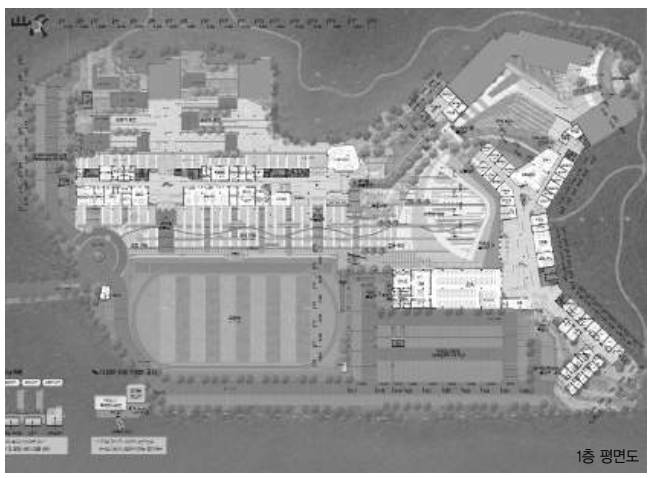
교사동은 원칙대로 위치시켜 면학에 집중하도록 배치하였고, 중심공간이자 만나는 공간에 동선을 모아놓고 주변에 기능적인 부대시설 배치로 다시 분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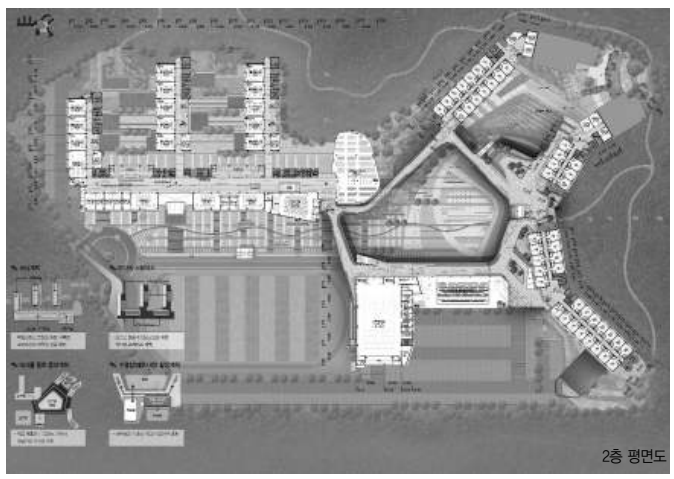
기숙사는 최대한 안쪽으로 남녀 별동 배치시켰고 창문을 열었을 때 여행을 온 기분이면 좋을듯한 전망을 확보하여 공부와 동시에 집에 있는 편안함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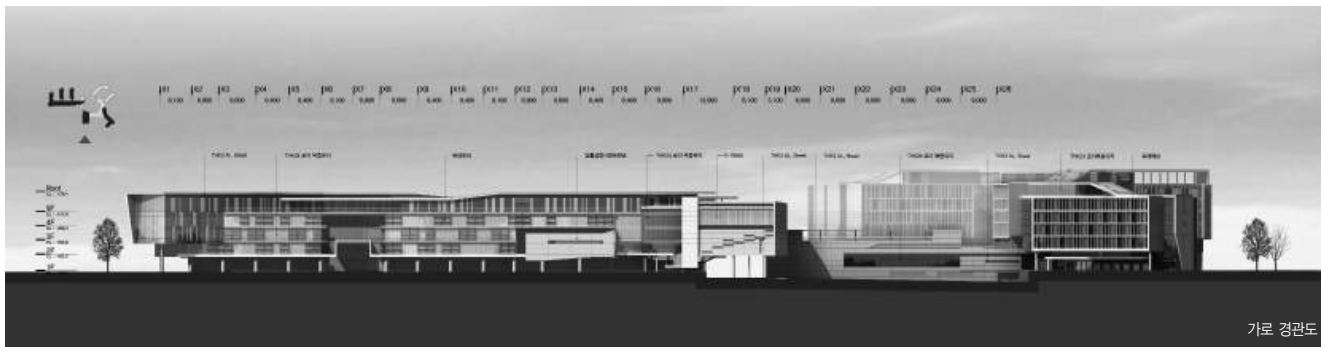
이러한 곳곳의 공간들에서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고, 마음껏 뛰고 공부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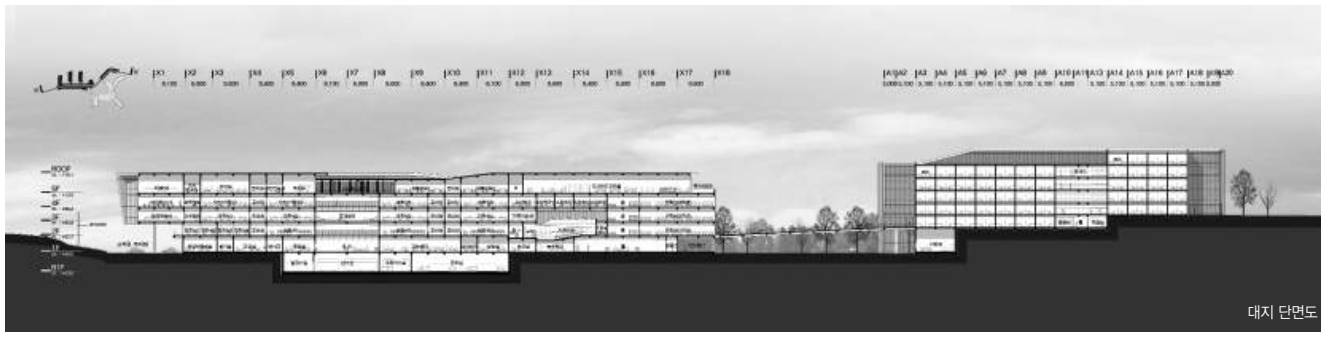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가로 경관도


대지 단면도

군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Dormitory High School for Military Officer's Children

우수 _ 윤세한 · 남기홍 정회원 **· 김태만**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 박기성 정회원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29-10 일원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학교시설용지
주요용도	교육시설
대지면적	59,720.00㎡
건축면적	10,805.91㎡
연 면 적	42,051.97㎡
건 폐 율	18.09%
용 적 률	68.45%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설계담당	**해안** : 조성요(총괄), 문준선, 김민규, 이성영, 주영재, 이주석, 신의재, 이선수 **원양** : 김경묵, 이지은, 정태훈, 양동현, 김용근

본 현상은 11개 업체가 참여한 현상설계로 1차 심사를 통과한 5개 업체(무영, 건원, 행림, 다인, 해안+원양)가 최종 심사를 거쳐 해안건축이 우수상(2nd prize)에 당선되었다.

군자녀를 위한 기숙형 고등학교는 전방에서 근무하는 장교들의 복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군자녀들에게 최적의 면학시스템을 제공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의도를 담아 365일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위한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 및 생활공간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드림 빌리지(Dream village)는 학생들이 키워가는 다양한 꿈을 만들어가는 장소라는 의미로 최적의 면학시스템과 편안한 생활공간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다.

푸른 자연의 흐름을 통한 성장의 공간으로 다양한 지적, 신체적, 정서적 성장을 통한 전인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습과 휴식공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Edu-Care형 학교로서 최적화된 학습시스템을 갖춘 교육,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다양한 여가활동이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환경 학교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학습과 생활의 중심공간인 아트리움과 광장을 중심으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휴게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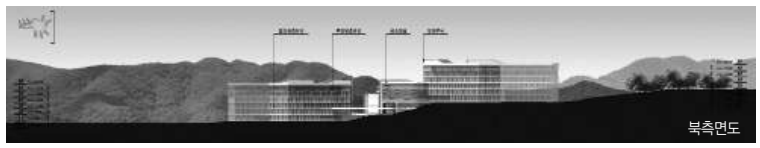
교과교실 수업 중심의 및 U-Learning System 도입으로 최적의 학습공간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양한 외부공간 조성 및 연계 계획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와 콘텐츠가 있는 데크계획으로 학생들의 휴식 및 여가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기숙사측에서 바라본 전경

배치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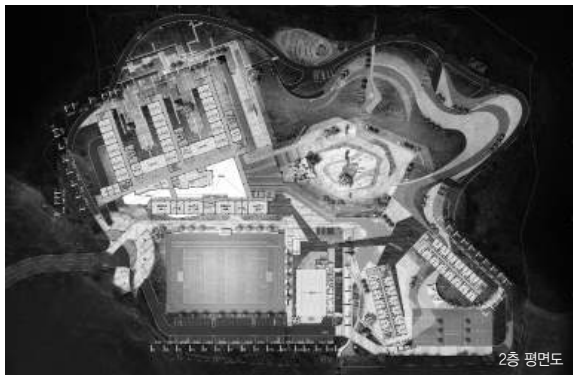
동측면도


북측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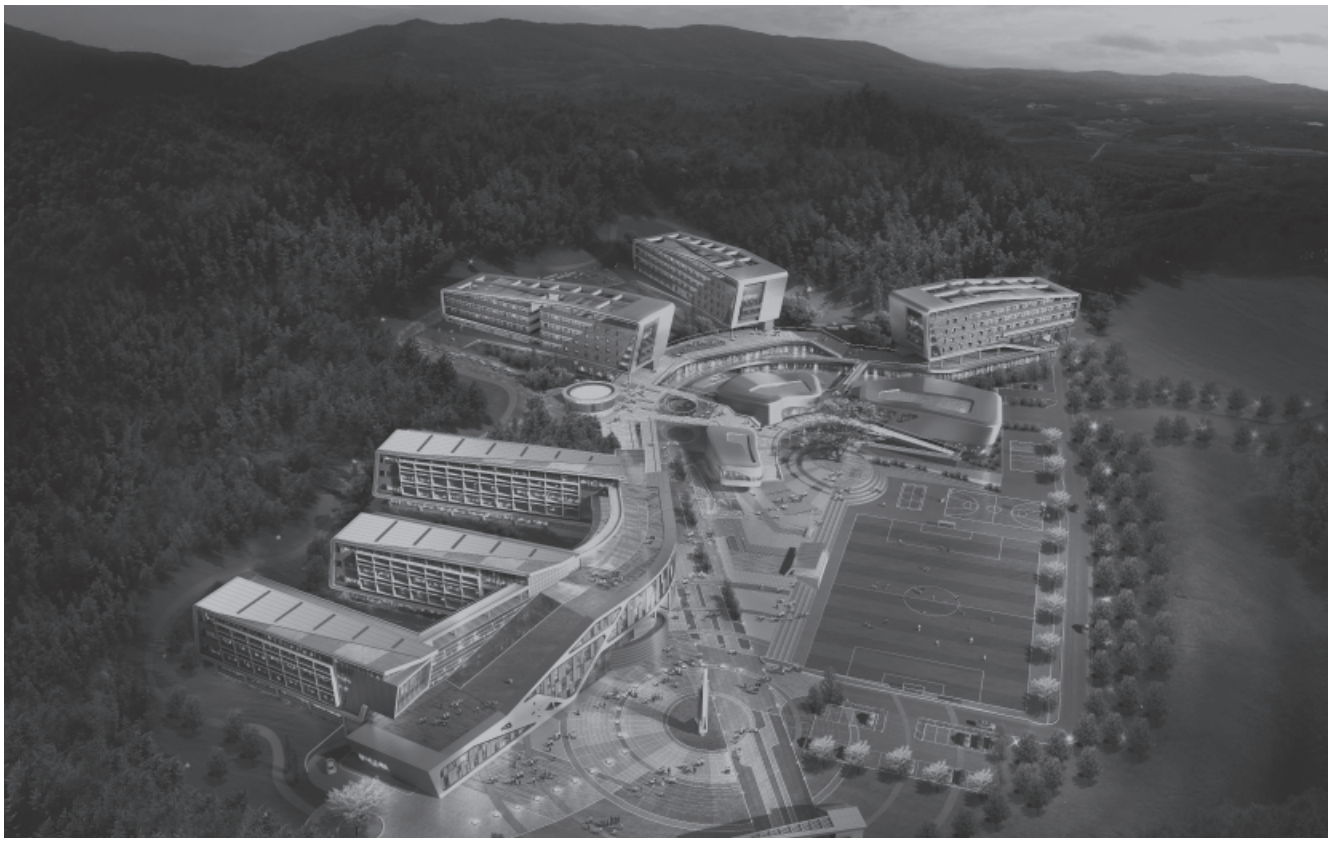
대지 횡단면도1

대지 횡단면도2


2층 평면도

중앙광장

1층 평면도



군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Dormitory High School for Military Officer's Children

가작 _ 안길원 정회원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29-10 일원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요용도	학교, 기숙사
대지면적	59,720.00㎡
건축면적	11,775.46㎡
연 면 적	42,224.54㎡
건 폐 율	19.72%
용 적 률	53.19%
규 모	지하 2층, 지상 6층
설계담당	**무영** : 박명협, 한성희, 송도근, 손기용, 이종은, 김정은, 변봉수, 서상기, 김혜영, 김형률, 고명철, 이현도, 김두영 **휴다임** : 박종일, 김중언, 박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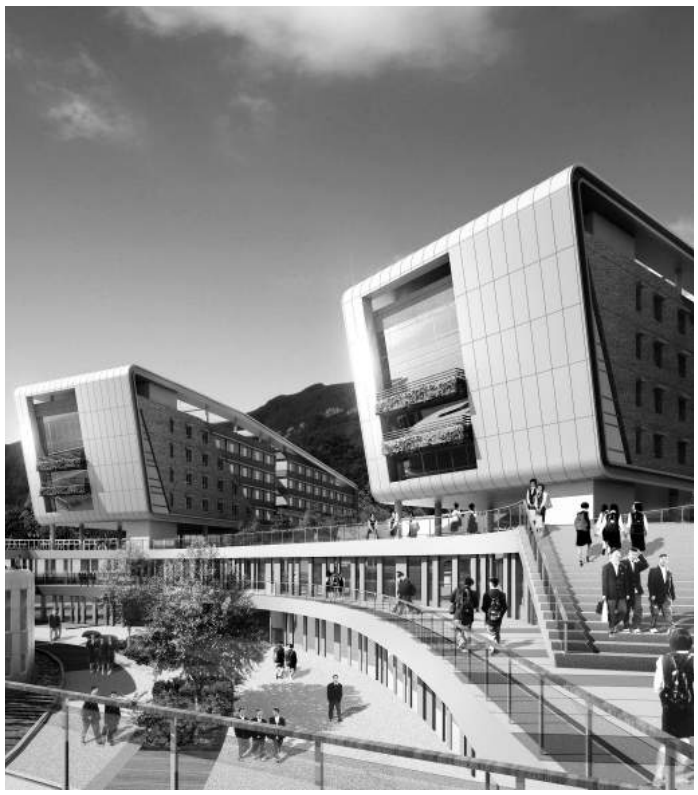
본 학교는 1,200명을 24시간 수용하는 기숙형 고등학교이다.
또한 주변 여건상 편의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과는 단절된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습능률과 생활의 편의를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대지의 특성상 생태환경을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요소를 고려한 4가지 주안점을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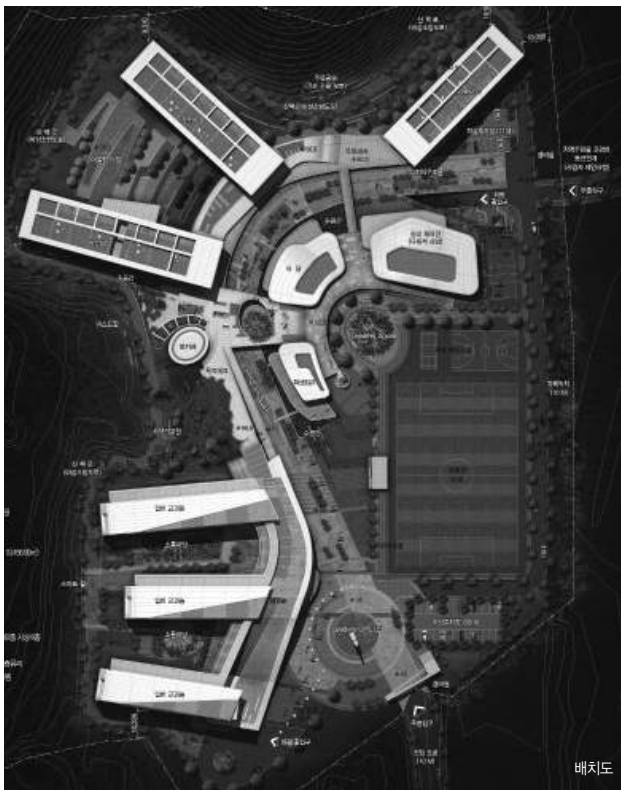
첫째, 단지 중심부에 복지 편의 공간인 학생회관, 식당, 체육관을 집중배치해 활기찬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한 Camp-us Mall. 둘째, 교과교실제를 위한 층별 학년분리, 홈베이스 및 자기주도형 클러스터화를 구연한 Smart Camp-us. 셋째, 동별 사감실 및 커뮤니티 공간 계획으로 여가활용과 캐어 기능을 접목한 Home like Camp-us. 넷째, 자연지형을 고려한 절성토 계획, 자연환경과 조화된 교육 및 주거환경 조성한 Green Camp-us.

즉 자연 속에 있는 캠프같이 즐거운 우리학교를 계획 했다.
계획안인 'Camp-us'는 '야영지 또는 방학동안에 특별활동을 하는 곳'이란 Camp와, '우리'를 의미하는 Us의 조합어로 기존 고등학교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젊은 청년들이 맘껏 공부하며, 즐길 수 있는 대학교정과도 같은 차세대 리더양성을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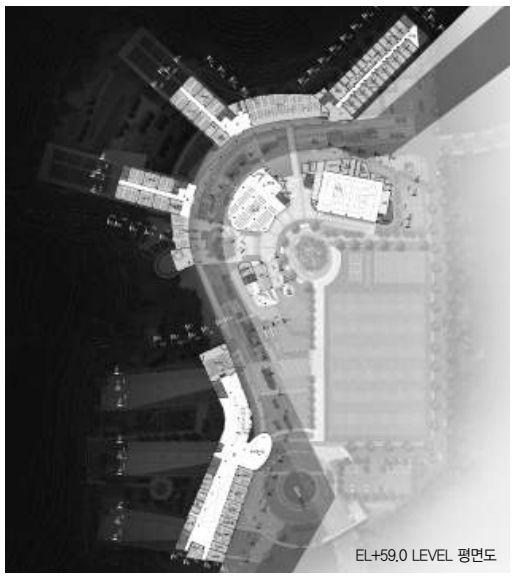
배치계획은 대지 중심부에 식당, 학생회관, 체육관을 집중배치하고 캠퍼스 몰을 중심으로 교과존, 기숙사존, 구성하여 시설간 연계성을 극대화 했으며, 각 존을 캠퍼스 스트리트 및 캠퍼스 데크로 연계시켜 이동편의성을 극대화 했다. 또한, 우천시 데크 하부를 통하여 비를 맞지 않는 동선도 고려했다.
각 건물 사이에 중정에는 자연지형을 끌어들여, 자연속에서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주 진입부 전면에 있는 상징광장은 대표적 외부공간으로서 방문자에게 열린 시야를 제공했다.
2013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교과교실제에는 학급별 교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 시간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해야 함에 따라 학생들의 이동 동선 및 시설간 조닝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따라서 층별 학년 분리를 통해, 각 층에 학년별로 분리하여 교실간 이동시 층별 이동이 아닌 같은 층에서 이동을 하며 편리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최상층에는 특별교과 교실을 배치하여 소음 및 냄세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했다.

기숙사의 경우는 남녀 학생수 변화를 고려한 예비실 계획, 각 층별 최적의 조망권을 확보한 휴게실 계획, 각 동별 최하층에 배치한 장애우 시설 계획을 했다. 또한, 게스트 하우스 및 독신자 숙소를 별도로 계획하여 독립성도 확보했다. 그리고, 1200명의 지정좌석제가 가능한 면학실은 기숙사 하부에 배치함으로써, 야간 및 주말 자율학습 시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교과동과 분리하여 유지관리 또한 고려했다.
자연속에서 숨쉬고 호기심으로 배우며, 설렘으로 생활하는 우리들의 캠프공간"Camp-u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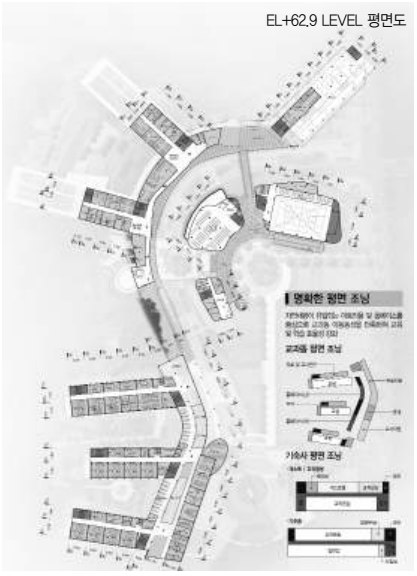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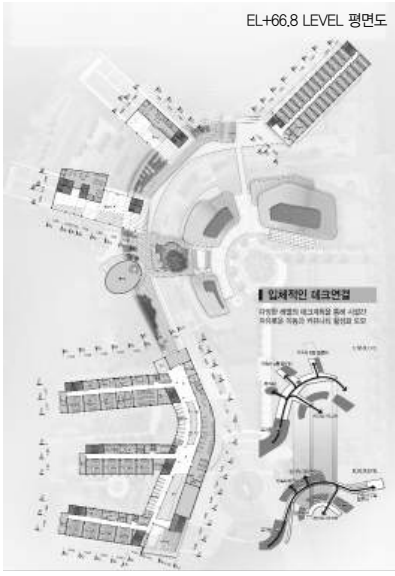
배치도



EL+59.0 LEVEL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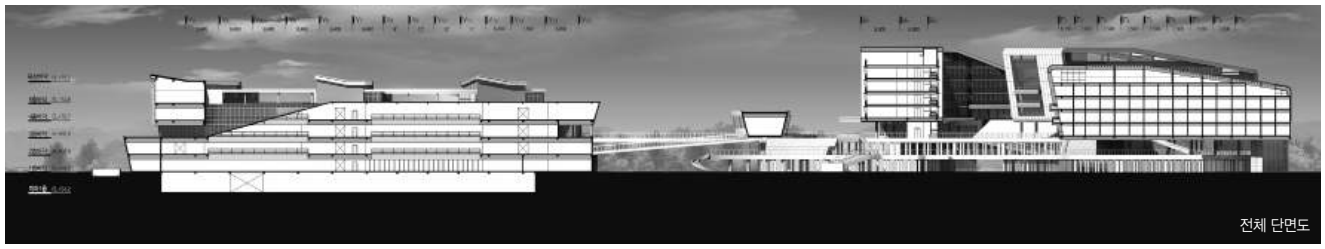


EL+62.9 LEVEL 평면도



EL+66.8 LEVEL 평면도

전체 입면도



전체 단면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실무를 위한 도서발간!!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 KOREAN ARCHITECTURE 2010」

「건축법령 실무해설 시리즈」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회원 및 건축 실무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도서를 제작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축 업무를 함에 있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건축법령 실무해설 시리즈」를 발간했으며,
반세기 한국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동안 게재된 원고를 발췌해 수록하여 제작한「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현재의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 건축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 KOREA ARCHITECTURE 2009」·「 KOREA ARCHITECTURE 2010」을 발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OREAN ARCHITECTURE 2009」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그린홈 특집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388쪽 / 가격: 35,000원
올컬러

「KOREAN ARCHITECTURE 2010」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468쪽 / 가격: 40,000원
올컬러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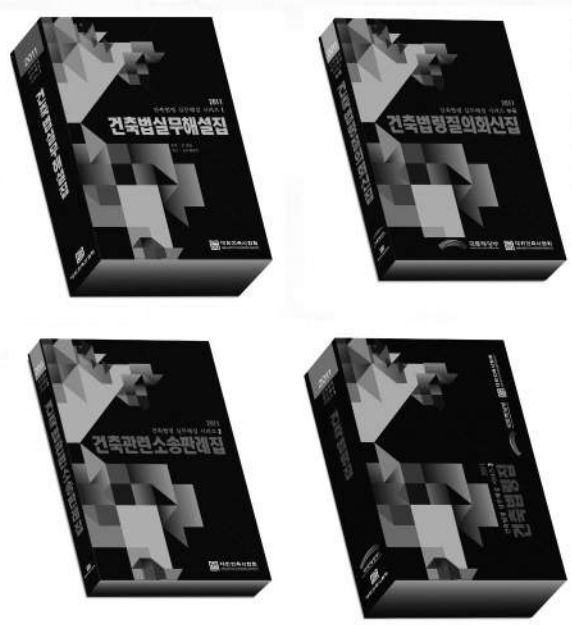
45년간 '건축사'誌에 수록된 칼럼,
시론, 논문 등을 엄선하여 집대성
면수: 695쪽 / 가격: 30,000원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 「 KOREAN ARCHITECTURE 2010」
2권 세트 구매 시 60,000원(배송비 포함)

※ 구입문의: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02-3415-6862~4)

「건축법령 실무해설 시리즈」

- 건축법 실무해설집, 건축법령 질의회신, 건축관련 소송판례집, 건축법령집 등 총 4권으로 구성
- 건축법해설, 질의회신 및 건축관련 판례를 분석 · 연구 · 수집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 면수: 건축법 실무해설집(992쪽) / 건축법령 질의회신(542쪽)
건축관련 소송판례집(395쪽) / 건축법령집(1013쪽)
가격: 인터넷 신청 회원 70,000원(4권 세트),
비회원 100,000원(4권 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문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02-3415-6832~4)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규정(SIA 102) 분석을 통한 건축사의 역할

Regulation governing architects' services and fees (sia 102) by analyzing the role of architects

필자 : 임구성, 현 kimlim architekten eth sia 공동대표
by Lim, GuSung Dipl. Architekt ETH/SIA

중앙대를 졸업 후 동우건축과 삼우설계에 있었으며, 쮜리히 연방공과대학 건축과(ETH Zurich)를 졸업했다. 쮜리히에 있는 설계사무소 Duerig AG와 Burkhalter Sumi에 근무했으며 현재 스위스건축사협회(SIA) 정회원이며, Baumschlager Eberle에 있으면서 다수에 국제현상설계에 당선된 바 있으며 프로젝트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동시에 김은호와 유럽공개현상설계 당선을 계기로 스위스 쎙갈렌(St.Gallen)에서 kimlim architekten를 설립해 공동운영하고 있다.

목 차

1. 스위스의 건축현상설계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of Switzerland

2.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규정(SIA102) 분석을 통한 건축사의 역할
Regulation governing architects' services and fees (sia102) by analyzing the role of architects

스위스에서 건축현상설계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전통적이며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 스위스건축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현상설계는 갓 학교를 졸업한 젊은 건축가의 실습의 터이며, 기성건축가의 계속되는 건축실험의 장이다.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젊은 건축가는 자신의 사무실을 가질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건축현상설계에 관한 세부지침은 스위스건축사협회에 의해 1877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공공건축의 실제적인 발주방법으로 스위스 건축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나의 건축물은 건축주와 건축가를 비롯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완성이 되는데 그 건축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시대와 지역에 따라 건축사의 역할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위스의 전통적인 건축용역계약은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그리고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이 아닌 건축주와 건축사의 하나의 계약으로 건축물이 완성이 된다. 건축사는 건축업무 전반의 총책임자로서 우리나라처럼 건축설계 후 공사 감리업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부터 공사시공 그리고 준공까지 건축업무전반에 막중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업무과정을 통해 건축가의 기본 설계개념을 건축물의 완성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다.

건축사는 건축디자인 능력과 더불어 건축업무 전반에 걸친 총책임자로서의 능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은 다른 예술작업과는 달리 구체적인 작업이기에 종이 위에 그려진 건축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땅 위에 사용자들을 위해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스위스 건축사의 역할은 건축사를 위한 업무와 보수규정(SIA 102)에 명시된 건축업무진행과정과 각 단계별 건축용역비에 의해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본 연재는 스위스의 공공건축발주방법인 건축현상설계가 어떤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건축사를 위한 업무와 보수규정(SIA 102)분석을 통해 스위스의 건축계약형태와 건축사의 건축업무수행단계 및 건축사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고자 한다.

2.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규정(SIA 102) 분석을 통한 건축사의 역할

2. Regulation governing architects' services and fees (sia 102) by analyzing the role of architects

건축업무 수행 단계

전월호에서는 스위스의 공공건축에 있어서 건축사의 선정방식인 건축현상설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건축사가 선정되었으면 그에 따른 발주자와 건축사와의 건축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계약은 앞으로 진행될 건축전반업무에 상당히 중요하므로 발주자와 건축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건축업무수행단계 중 누가 어느 범위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또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대가를 얼마나 받느냐 일 것이다.

스위스에는 이러한 건축업무단계가 스위스건축사 및 엔지니어협회(SIA)[1] 에서 규정한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규정 SIA 102를 통해 단계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그 업무에 따른 건축용역비의 비율이 나누어져 있어 건축용역 계약시 일반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건축용역 계약이 이루어 진다.[2]

스위스건축사의 업무단계는 건축업무단계 LM 95와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규정 SIA 102에 의해 크게는 6 단계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12개의 부분단계로 나누어 진다.[3] SIA 102에는 약 50페이지 분량의 건축사의 기본업무가 단계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그에 따른 대가를 비율로 나누어 건축주는 각 단계에서 어떤 건축서비스를 받고 어느 정도의 용역비를 지불해야 하며 건축사는 각 단계별로 어떤 업무을 수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변 유럽국가들이 건축업무수행 단계에서 프로젝트 초기단계를 건축사업무에 포함시키고 그 대가[4]가 전체용역비에 포함되지만 스위스에선 건축프로젝트 용역계약은 3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1단계 전략적 계획 또는 2단계 예비연구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발주자내의 건축사에 의해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보통 특정 건축사를 선정해 사업계획 및 기본계획을 의뢰하고 그에 합당한 용역비를 지불한다. 건축프로젝트의 시작전의 초기단계인 1, 2단계는 전체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사회, 정치적인 요소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스위스에서는 작은 건물 하나에도 일반인의 관심이 높다. 정해진 공사비를 초과하게 되면 시나 칸톤의 의회에서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젝트가 특정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질 수 없으며 시민이 다같이 공감해야만 하나의 공공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다.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규정 (SIA 102)[5]

표1. 건축업무 수행 단계와 비율

단계	세부단계			
1. 전략적 계획	4.11 필요성 정의,과제해결방안 및 전략	특별업무법위		
2. 예비연구	4.21 프로젝트의 정의 타당성 연구	특별업무법위		
	4.22 건축사 선정방법	특별업무법위		
3. 프로젝트	4.31 기본설계	가능한 해결방안연구	3 %	
		기본 설계 및 견적(오차15%)	6 %	9 %
	4.32 상세설계	상세설계	13 %	
		디테일 연구	4 %	
		견적(오차10%)	4 %	21 %
	4.33 건축허가절차	건축허가 절차	2.5%	2.5%
4. 입찰공고	4.41 입찰공고	입찰공고 도면	10 %	
		입찰내역의 비교	8 %	18 %
5. 시공	4.51 실시설계	실시설계	15 %	
		단계별 시공사계약	1 %	16 %
	4.52 시공	조형적 관리	6 %	
		공사총감독과 감리 및 공사비검토	23 %	29 %
	4.53 준공	준공	1 %	
		건축관계서류	1 %	
		보증업무관리	1.5%	
		최종공사비계산	1 %	4.5%
6. 관리	4.61 사용	특별업무법위		
	4.62 보존	특별업무법위		
		총 기본건축용역 단계	3.4 und 5	100%

1. 전략적 계획 (Strategische Planung)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기본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안을 작성하며 프로젝트 스케쥴을 작성한다.

2. 예비연구 (Vorstudien)

전 단계에서의 조사자료와 조건, 문제해결방안을 토대로 프로젝트가 가능한지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예산안을 확정하며 건축현상설계를

1) SA – schweizerischer Ingenieur – und Architektenverein 스위스건축사 및 엔지니어협회
2) SIA 102를 바탕으로 한 건축용역계약서 (SIA 1002)에 의해 건축주와 건축사와의 계약이 이루어 진다.
3) 건축업무단계 LM 95는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규정 SIA 102를 보조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4) 기본업무가 똑같지는 않지만 독일 HOAI 3%, 오스트리아 HIA, HOA 2% 를 기초조사 및 사전 준비단계로 비율을 할당하고 있다.
5) Ordnung SIA 102는 기본업무수행모델 SIA 112를 기본으로 한 건축사를 위한 규정이다.

통해 건축사를 선정한다.

3. 계획단계 (Projektierung)

기본설계(**Vorprojekt**), 상세설계(**Bauprojekt**) 그리고 건축허가절차(**Bewilligungsverfahren**) 세 단계로 나누어 진다.

기본설계는 건축프로젝트 이전 단계에서 수행된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나 현상설계의 결과물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더 발전시키면서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게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필요한 공간의 정의, 내외부공간개념, 구조개념, 설비개념, 에너지 개념 그리고 재료 및 색채개념 등을 건축사는 세워야 한다.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스케일로 제작된 기본도면이다.

SIA 416[6]에 의해 건축면적계산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예상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으며 기본설계에서는 약 15퍼센트의 오차범위을 허용하고 있다. 초기단계의 건축예상공사비는 비교적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그 오차범위[7]를 작게 요구하고 있어 초기 단계에 재료나 디테일들의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 업무수행에 따른 건축용역비는 전체의 9퍼센트이다.

상세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건축허가와 디테일을 위한 준비단계로 프로젝트와 공사비를 최적화하고 공사기간을 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건축사는 자신의 개념을 더욱 확고히 발전시키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면을 주여진 스케일(1:100)에 맞게 작성하며 예상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부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건축구조와 에너지검정 증명서, 재료개념 등을 세밀하게 준비한다. 대략적인 공사시기와 기간을 도표로 작성해야 하며 이 단계에 요구되는 공사비견적은 10퍼센트 내외의 오차범위를 허용한다. 하지만 공공프로젝트에서는 건축예산을 미리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5퍼센트 정도의 오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단계의 용역비는 21퍼센트이다.

건축허가절차단계는 건축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내는 업무와 건축공사비 및 건축공사기간을 확정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서 건축공사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해당건축용역비는 2.5퍼센트이다.

4. 입찰공고 (Ausschreibung)

건축사는 구조, 설비, 전기 등 외부전문업체들을 조율하고 이끌어 가는 역할로서 입찰에 필요한 도면 작성을 위해 전문업체들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건축도면에 맞추어 임시 실시설계 도면(Werkplan 1:50)을 작성하고 시공 및 견적의 정확성을 위해 재료와 구축방식에 필요한 디테일을 적합한 스케일로 작성을 해 입찰서류와 함께 각 단계별로 입찰공고를 한다.

입찰을 지원한 시공사의 지원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목록표를 만들어 발주자와 함께 단계별 시공자를 선정한다. 단계별 시공사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입찰한 공사비가 가장 중요하고 공사비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업체의 규모나 실적, 가능성을 보게 되며 작은 규모라도 그 지역 출신의 시공사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선정 후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조정해 시공계약서을 만든다. 건축공사기간을 단계별 시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이 단계는 입찰도면작성과 입찰내용분석의 두단계로 나누어지며 18퍼센트의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5. 시공 (Realisierung)

실시설계 (Ausführungsprojekt)

건축사는 외부전문가, 시공사[8] 그리고 자재공급업체 등의 활동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며 입찰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에 필요한 공사도면(Werkplan)과 디테일도면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건축사는 협력전문가들의 도면을 검토해야 하며 건축재료와 시공방법, 시설기구 등을 발주자와 함께 최종 결정한다. 공사금액지불계획과 최종적인 공사기간계획을 작성하며 시공사 및 자재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준비한다.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건축용역비는 15퍼센트이며 각 항목별 시공사와의 계약서 준비는 전체 건축프로젝트 업무수행 중 1퍼센트의 업무에 해당된다.

시공 (Ausführung)

이 단계는 실시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건축사의 의도대로 시공되어지는 단계로서 건축사는 전문업체, 각 시공 항목별 시공사, 공급업체, 외부전문가의 업무활동을 주도한다.

조형적 관리 (Gestalterische Leitung)

설계를 한 건축사에 의해 자신의 조형적인 기본설계개념에 따라 시공이 되는지를 검사하고 지도한다.

건축공사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조형적인 요소들을 결정하며 중요재료의 샘플작업을 지시하고 건물 내외부의 가구나 기구 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발주자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며 용역비는 6퍼센트이다.

공사총감독과 감리 및 공사비 검토 (Bauleitung und Kostenkontrolle)

건축사는 건설현장의 공사행위를 일반적으로 주도 및 감리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자제의 조달을 검토하며 재료의 조사를 지시하고 감리하며 샘플의 작업을 주문한다.

공사비용관리, 작업범위와 그에 따른 용역비 제어, 각 시공항목별 건축공사금액 작성, 시공업체 및 공급업체의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6) SIA 416 건물의 연면적 및 최적계산 – 스위스건축사 및 엔지니어협회
7) 스위스 SIA 102 기본설계 15%, 독일의 DIN 276의 예비설계시 공사견적은 오차범위가 30%, 오스트리아 NORM B1801 – 1는 20% 임
8) 본 연재에서 시공사란 우리나라의 건설회사개념이 아닌 각 항목별 시공업자를 가리킨다.

하자보수작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용역비는 전체의 23퍼센트를 차지한다.

준공 (Inbetriebsetzung, Abschuss)

건축용역수행단계의 마지막 단계로 준공, 건축관계서류정리, 보증업무관리 및 최종건축공사비 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설계와 함께 전체 프로젝트 진행과정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전체업무의 4퍼센트에 해당한다.

건축용역비 산정

건축용역비 산정은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규정 SIA 102에 의하면 시간에 따른 용역비 계산방법과 공사비에 의한 용역비 계산방법이 있다.

시간에 의한 용역비 계산방법은 1단계 전략적 계획 또는 2단계 예비연구에서나 설계변경 시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프로젝트 수행단계인 3, 4, 5단계에서는 건축공사비에 의한 용역비 계산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건축공사비에 의한 건축용역비산정

이 방식은 약간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 계산의 근거가 합리적이며 스위스 공공프로젝트에서 일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T_m = B \times \frac{p}{100} \times n \times \frac{q}{100} \times r$$

Tm : 평균소요시간

B : 건축용역비 산정에 적용되는 건축공사비

p : 공식에 의한 건축용역비 기본비율

n : 설계 및 공사 난이도

건축물 용도에 따라 n=0.7 에서 n=1.3 까지 있으며 일반 건물의 경우 n= 1.0 이며 예를 들어 창고나 주유소는 n=0.7, 병원은 n=1.2, 대학병원, 박물관, 콘서트홀 등에는 n=1.3 이 적용된다.

q : 업무비율

r : 교정비율 (0.8 – 1.2)

$$p = Z1 + \frac{Z2}{\sqrt[3]{B}}$$

Z1, Z2 값은 건축사 및 엔지니어협회에서 물가상승에 맞게 1년 또는 2, 3년에 한번씩 값을 정한다.

$$H = Tp \times s \times h$$

H : 건축용역비 (부가가치세 제외)

Tp : 예상소요시간

s : 특별업무요소

h : 시간당 용역비

건축용역비는 현상설계시 현상설계프로그램에 용역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들 즉 추정공사비(B), 난이도(n), 업무비율(q), 교정비율(r) 등이 주어져 현상설계 참여시 대략의 건축용역비를 추정할 수 있고 당선이 될 경우 주어진 값에 정확한 공사비만 다시 조정하면 건축용역비가 산정이 된다. 또 하나의 큰 변수는 시간당 용역비인데 이것이 현상설계 프로그램에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시 협상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대입되는 시간당 용역비는 평균 130프랑(약 156,000원) 정도이다.

여기서 계산되는 건축용역비는 건축사만을 위한 용역비이며 관련 전문분야 (전기, 설비, 구조 등)의 용역비는 각각 발주자와 개별계약을 한다.

위의 SIA 102에서 보듯이 스위스에서의 건축사는 건축업무전반을 수행하기에 그에 따른 용역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건축용역비는 업무비율(q)에 비례하므로 업무를 수행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 따라서 신진건축사나 작은규모의 사무실일 경우 시공 및 감리업무 등에 경험이 적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약 60% 내외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나머지 40% 정도는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파트너에게 할당된다.

다음은 SIA 102의 건축용역비의 예이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공식에 대입하면 각 업무 단계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계산이 되며 이 값에 시간당 용역비를 대입하면 전체 용역비가 산정이 된다.

건축용역비 산정에 적용되는 건축공사비가 3,000,000프랑(약 36억), 평균난이도, 시간당 130프랑(약 156,000원), 건축업무전과정(100%)일 경우 건축용역비는 532,000프랑(6억 4천만 원)이다.

만약 건축설계, 조형적인 관리업무, 준공관계업무만 수행할 경우 약 60%(최대 64.5%) 업무이므로 건축용역비는 319,000프랑(3억 8천만 원)이다.

건축계약방식 – 조직표

건축사는 SIA 102에 의해 프로젝트의 건축설계팀과 시공팀을 조직해야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프로젝트의 조직표는 건축주, 건축사, 외부전문가, 시공업체까지의 계층구조를 나타냄으로서 작업수행의 권

9) 총 건축공사비가 아닌 순수건설비용, 즉 건축 및 전문외주설계업체용역비 및 조경공사 등은 제외

표2. 설계비 산정예

Formular gemäss SIA Nr. 1002, 2003 (Vertrag für Architekturleistungen)
(alle Kostenangaben in CHF exkl. Mehrwertsteuer)

0

massgebende Koeffizienten (Z1, Z2) , durch den SIA publiziert im Jahre; 2005 — **Z1:** 0.057 — **Z2:** 9.690

$$p = Z1 + \frac{Z2}{\sqrt[3]{B}}$$

aufwandbestimmende Baukosten B — 3 000 000 CHF

n 1
r 1

$$Tm = B \times \frac{p}{100} \times n \times \frac{q}{100} \times r =$$

Tm	durchschnittlicher Zeitaufwand in Stunden
Tmx	durchschnittlicher Zeitaufwand pro Phase
Tp	prognostizierter Zeitaufwand in Stunden
B	aufwandbestimmende Baukosten (BKP 1, 2, 4)
p	Grundfaktor für den Stundenaufwand
n	Schwierigkeitsgrad
q	Leistungsanteil
r	Anpassungsfaktor
i	Teamfaktor
H	Honorar in Franken
Hx	Honorar in Franken pro Phase
s	Faktor für Sonderleistungen
h	angebotener Stundenansatz

			Tm,x	x i	= Tp			
					Tp	x h	x s =	Hx
4.31 Vorprojekt								
Studium von Lösungsmöglichkeiten und Grobschätzung der Baukosten	3%							
Vorprojekt und Kostenschätzung	6%	9.0%	368.9 h	1	368.9 h	130 CHF/h	1	47'957
4.32 Bauprojekt								
Bauprojekt	13%							
Detailstudien	4%							
Kostenvoranschlag	4%	21%	860.7 h	1	860.7 h	130 CHF/h	1	111'891
4.33 Bewilligungsverfahren								
Bewilligungsverfahren	2.5%	2.5%	102.5 h	1	102.5 h	130 CHF/h	1	13'325
4.41 Ausschreibung, Offertvergleich, Vergabeantrag								
Ausschreibungspläne	10%							
Ausschreibung und Vergabe	8%	18%	737.8 h	1	737.8 h	130 CHF/h	1	95'914
4.51 Ausführungsplanung								
Ausführungspläne	15%							
Werkverträge	1%	16%	655.8 h	1	655.8 h	130 CHF/h	1	85'254
4.52 Ausführung								
Gestalterische Leitung	6%							
Bauleitung und Kostenkontrolle	23%	29%	1188.6 h	1	1188.6 h	130 CHF/h	1	154'518
4.53 Inbetriebnahme, Abschluss								
Inbetriebnahme	1%							
Dokumentation über das Bauwerk	1%							
Leitung der Garantiearbeiten	2%							
Schlussabrechnung	1%	4.5%	184.4 h	1	184.4 h	130 CHF/h	1	23'972
Total Grundleistungen		**100.0%**	Total prog. Zeitaufwand:		4098.7 h	**Total Honorar**	**CHF**	**532'831**

0

Total Honorarofferte Gesamtauftrag — Ort / Datum: — Der Anbieter: (Büro) — **CHF** **532'831**

(Stempel und Unterschrift)

리 및 책임여부를 명확하게 한다.

오늘날 건축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발주자와 건축사 사이의 다양한 계약형태들이 나타나게 된다. 발주자는 프로젝트를 질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개별계약방식

스위스에서의 전통적인 조직형태로 공공건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건축사가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규정 SIA 102 업무전반에 걸쳐 총책임자로서 업무을 수행한다. 건축사는 사무실 자체 내에 공사총책임자(Bauleiter)를 두어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발주자는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건축사가 공사총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경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프로젝트의 보장을 위해 시공감리전문회사와의 팀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 시공감리전문회사에 공사총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주를 주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및 신진건축사는 시공감리전문업체[10]와 팀을 이루어 건축공사를 수행하며 공기관리 및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 전문업체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공사에 대한 총책임은 건축사에게 있기에 이 전문업체는 공사비를 관리하면서 건축사의 의도대로 건물이 지어지도록 그리고 건축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게 된다. 건축용역계약은 발주자와 건축사 사이에 이루어지며 시공전문업체는 건축사와의 계약을 통해 건축용역비를 받는다.

설계팀 구성방식

최근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발주자의 입장에서 개별계약방식과 비교해 그 단점들을 보완했다고 할 수 있다. 건축사 및 외부전문업체가 하나의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건축용역계약을 한번만 하면 되고 설계변경 시 그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건축사의 역할은 프로젝트 총책임자로서 개별용역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문제 발생시 외부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위험이 줄어들지만 거대한 팀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건축시공회사방식

건축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건축시공회사가 SIA 102건축업무수행단계 중 건축공사에 관계되는 업무 즉 건축비용의 견적(오차15 %), 견적(오차10 %), 입찰내역의 비교, 각 단계별 시공사계약, 공사총감독과 감리 및 공사비관리, 최종공사비계산 등을 공사총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발주자는 각 단계별로

10) SIA 102 건축업무수행단계 중 공사비관리, 입찰내역의 비교, 단계별 시공사계약, 공사총감독과 감리 및 공사비검토, 최종공사비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시공회사와 비슷하지만 그 규모나 권한에 차이가 있다.

많은 공사계약 대신 시공회사와의 한 번만의 공사계약으로 건축시공을 할 수 있어 행정상의 업무가 줄고 공사비나 공사기간이 위의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건축사는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중요사항들을 모두 결정해야 하며 공사단계에서 비록 SIA 102의 조형적 관리라는 업무수행에 의해 주요 조형적인 현안에 관여하지만 그 영향력이 줄어들어 건축물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설계시공통합회사방식

건축설계와 시공을 통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의 질, 공사비, 건축기간을 한 시공회사에서 총 수행하므로 발주자와 시공사의 단 한 번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건축사 및 다른 모든 전문업체는 발주자가 아닌 시공사와 계약을 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공사비와 공가기간이 보장이 되며 완공 후 건축의 보증기간도 일반적으로 5년이다.

건축사는 건축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며 발주자와의 관계가 적어져 시공시 그 영향력 또한 더 작아진다.

스위스의 공공프로젝트는 전통적인 계약방식인 개별계약방식과 건축시공회사방식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11]

건축사의 역할변천

건축사(architékton)는 그리스어로 archi 즉 시작, 기원, 앞서가다, 명령과 tékton 수공예, 장인, 목수 등의 의미가 합쳐졌듯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건축사는 계획과 시공의 구분 없이 모든 업무를 관장했었다. 그 후 건축사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그 역할이 바뀌어 왔다.

중세시대에는 magister operis라는 이름으로 건축주의 요구대로 도면을 그려서 건축물을 완성했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인쇄기술의 발달로 공동작업이 가능해 졌으며 브라만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건축사는 조형 미술가로서 더 많은 활약을 하고 시공은 수공업자에게 위탁해 이루어졌다. 18세기에는 분업화가 더 촉진되는데 에콜 데 보자르의 건축사는 설계만을 하고 호프바우엠터(Hofbauämter)라는 이름의 업자들이 시공 및 이와 관계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설계만 하는 보자르 건축사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새로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자들이 새로운 건축구조와 공간을 만들었으며 르꼬르뷔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등 근대에 와서 다시 건축사의 역할이 전체 건축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형태로 확대되었다.

지난 세기에 거쳐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분업화 과정은 더욱 심화되어 엔지니어 자체 내에서도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비용과 공사기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업체가 등장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1960년 이후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건축의 형태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건축사의 역할 또한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었다. 오늘날 다시 건축사는 보자르 때처럼 창조적인 건축의 총책임자와 디자이너, 그 사이에 있는 듯 하다.[12]

건축의 총책임자로서의 건축사가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관련되는 모든 분야를 한 가지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어우러지도록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의 지휘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스위스의 공공건축발주방법인 건축현상설계와 건축사를 위한 업무와 보수규정(SIA 102)분석을 통해 스위스의 건축계약형태와 건축사의 건축업무수행단계 및 건축사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건축이란 구체적인 작업이다. 설계도면이나 그림 만으로는 건축이라 할 수 없으며[13] 건축설계는 건축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건축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 중 한 부분이며 도면에 의해 지어지면서 비로소 건축이 완성되는 것이다.

좋은 건축설계안은 한 작가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좋은 건축물은 각 건축업무단계에 걸쳐 설계를 한 건축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SIA 102에 규정 하듯이 스위스건축사는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감리까지의 총체적 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렇게 때문에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사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건축설계와 시공을 분리한 계약방식에 의해 시공되더라도 건축사가 각 단계별 시공 중 건축의 조형적 관리업무를 통해서 건축사의 설계의도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품질이 유지된다.

건축사의 역할변천을 살펴보면 시대상황에 따라 건축사의 역할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후 지금까지 양적인 건축물을 공급하는 건설문화가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스위스의 사례처럼 건축사의 역할확대를 통해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문화를 가진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1. Bundesgesetz über 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 vom 16. Dezember 1994 (Stand am 1.Juli 2010)
2. Ordnung SIA 142 Ordnung für Architektur und Ingenieurwettbewerbe, Ausgabe 1998
3. Ordnung SIA 416 Flächen und Volumen von Gebäude
4. Ordnung SIA 102 Ordnung für Leistungen und Honorare der Architektinnen und Architekten, Ausgabe 2003
5. Gesamtleitungen und Bauen, Paul Meyer-Meierling, Vdf Hochschulverlag AG an der ETH Zürich 1999
6. Drei Bücher über den Bauprozess, Sacha Menz, vdf Hochschulverlag AG an der ETH Zürich 2009

11) Gesamtleitungen und Bauen, Paul Meyer-Meierling, Vdf Hochschulverlag AG an der ETH Zürich 1999 P. 153
12) Gesamtleitungen und Bauen, Paul Meyer-Meierling, Vdf Hochschulverlag AG 1999 p.32 – 35
13) 페터 춤토어(Peter Zumthor) Zukunft der Architekt, interview Deutsche Welle 15.06.2009, 물론 한스홀라인 등 모든 것이 건축이다 라는 건축사도 있다.

campaign

*.dwg 납품! 하지 맙시다!

국내의 건축설계 및 각종 설계에 중요한 수단인 CAD 프로그램은 그 결과물을 주로 *.dwg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간 인허가, 심의 등 대관업무나 납품 등 건축주 관련업무, 또한 시공사와의 업무에서 *.dwg파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스(source)파일 형태로서 변경과 재생산이 용이하여 인허가상 기록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관리측면에서도, 또 업로드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저장장치의 용량도 매우 많은 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건축주나, 시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에 관련한 자료로 활용되는 도서류에 있어서도 기록의 의미가 크므로 dwg 포멧의 파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만일 현장에서 도면의 치수 등을 알기위해 dwg파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dwf파일로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서의 치수를 알고 싶다면,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면을 납품하시거나, 업로드 하실 때는 *.dwg파일 대신에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도면의 크기대로 만드셔서 납품 하시면 건축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되고, 편리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건축사님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민원신청 내용과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699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계의 건축도면에 대한 단상

A Few Ideas for Architectural Drawings of Korean Architectural Community

서언

1990년대 이후 CAD를 이용한 도면제작과 컴퓨터 저장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건축도면은 관리하기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 또는 사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건축도면을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의 하나로 취급하지 않았다[1]. 그 결과 이미 수많은 건축도면이 이 세상을 하직했으며 그나마 스캔이 이루어진 것도 원도는 사라진 채 디지털 자료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건축아카이브의 구축과 건축박물관의 건립에 대한 논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건축계의 일각에서는 건축도면의 가치를 재평가 하고 정리하는 등 일말의 희망이 엿보이고 있다[2]. 여기서는 현재 우리나라 건축계의 건축도면에 대한 연구성과와 보존상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경험을 언급함으로써 건축도면의 미래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건축도면에 대한 학술연구의 동향

한국에서 건축도면과 관련하여 학술적인 분석을 시도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전통건축에 대한 〈조선시대영전의궤(朝鮮時代營建儀軌)의 건축도(建築圖) 연구〉(박익수, 전남대박사논문, 1994년)와 근현대건축에 관한 〈한국건축설계도면의 변천에 관한 연구〉(이안, 인하대박사논문, 1999년)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전통건축의 영건과정을 기록한 서적에 보이는 건축그림의 유형을 분류하고 표현방법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자는 현대적인 방법에 의해 제작된 건축도면을 처음으로 다룬 논문이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삼아 기본적인 건축도면(建築圖面) 이외에 구조도(構造圖)와 설비도(設備圖)는 물론 상세도(詳細圖)까지 다루고 있으며 그 변화양상도 추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록에는 해방 이후 설계도면목록(設計圖面目錄)과 건축잡지(建築雜誌)에 소개된 설계도면목록을 수록하고 있어 건축도면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뒤를 잇는 연구성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이와는 달리 1945년 이전 일

1) 우라나라의 대표적인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근대시기의 건축도면도 목록만 작성되어 있을 뿐 전시의 기회를 갖거나 연구의 성과물이 나온 바가 없다.
2)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필자 : 한동수,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by Han, Dong-soo

한동수 교수는 1979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하여 1984년 학부를 졸업하고, 1986년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 후 대만으로 건너가 1994년 국립대만대학에서 중국 청대 도시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1998년 중국 북경 청화대학에서는 한중고대건축의 비교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부터 한양대학교 건축학과의 부교수로 재직하며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제강점기에 생산된 건축도면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한 논문으로는 〈일제시기 건축도면의 보존 현황〉(대한건축학회, 2001년)과 〈탁지부건축소의 기록물 관리와 현존 기록물에 관한 연구〉(건축역사연구, 2002년)가 있다. 이들 연구성과는 한국과학재단 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건축도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서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일제강점기 건축도면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조선통독부의 근대시설 건립과 건축계획의 특징〉(주상훈, 서울대박사논문, 2010년)이 있다.

그밖에 건축도면 아카이브의 구축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건축도면 관리의 체계화〉(황태원, 한양대석사논문, 1993년), 〈건축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대한건축학회, 2004년), 〈건축도면 아카이브스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정은경, 이화여대석사논문, 2010년), 〈건축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Auribrife 34, 2010년) 등이 있다. 특히 Auribrife에 발표된 논문은 향후 건축도면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성과로서 향후 한국에서 건축아카이브의 구축에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건축도면과 관련해서 가장 활발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전봉희 교수의 주도하에 규장각과 국가기록원의 도면자료에 대한 해제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건축사연구실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자료의 성격상 아직은 대부분의 연구성과가 1945년 이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며 1945년 이후의 건축도면에 관한 연구성과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사 김중업(金重業), 김수근(金壽根)과 같은 인물들의 건축세계를 조명한 서적에서 부분적으로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건축도면과 관련된 학술대회로는 2009년 4월 한국건축역사학회가 주관한 〈해체집 발간(解題集 發刊)을 계기로 본 조선–근대기 건축도면〉이라는 세미나가 처음이었으며 2011년 10월에는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건축도면 및 설계도구 전시회〉와 한중일 건축도면에 관한 심포지엄이 계획되어 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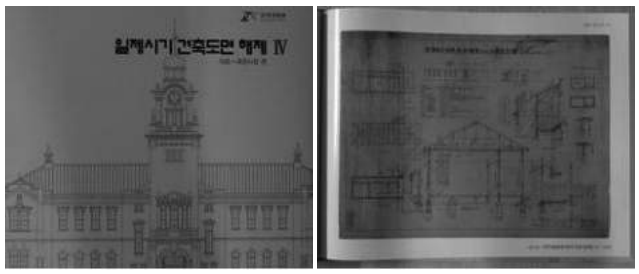


그림1.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의 일환으로 간행된 제4권 의료세관시설편의 표지와 본문

그림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펴낸 〈근대건축도면집: 도면편 · 해설편〉의 표지와 본문

건축도면에 대한 기록과 보존

우리나라에서 건축도면의 기록과 보존 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 가운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건축도면 가운데 국가적인 차원의 보존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보존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이러한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보존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도면을 소장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가기록원이 있는데 이 기관은 1962년 내각사무처 총무과 촬영실로 출발하여, 1969년 총무처 산하 정부기록보존소로 변경된 이후 2004년 4월 행정안전부[4] 소속 국가기록원이 되었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주도하여 건축한 공공건물과 전통건축물 등의 설계원도 26,483매를 소장하고 있어 국내 최대의 건축도면 소장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자료들은 2000년부터 전문적인 도면 보존처리 작업에 착수하였고 2007년부터는 도면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목록화 및 해제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보존처리가 끝난 도면 가운데 선별하여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라는 명칭으로 도서를 간행하고 있다. 이미 간행된 것으로는 학교건축편(學校建築篇, 4,797매 중 선별수록, 2008년부터 11월 30일), 고적(古蹟) · 박람회(博覽會) · 박물관(博物館) · 시험소(試驗所) · 관사(官舍) · 사사(寺社) · 군훈련소편(軍訓練所篇, 3,547매 중 선별수록, 2009년 4월 28일), 법원(法院) · 형무소편(刑務所篇, 3,515매 중 선별수록, 2010년 4월 30일), 의료(醫療) · 세관어설편(稅關施設篇, 3,208매 중 선별수록, 2010년 12월 28일)이 있다. 그리고 해제작업이 끝난 자료들 가운데 일부를 웹사이트로 구축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

3) 이 전시회와 심포지엄은 한양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과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준비하고 있다. 전시 자료는 대부분 수원 화성과 관련된 근현대 실측도면 위주이고 세미나의 주제는 〈동아시아 고건축도면의 세계와 특징〉이다. 한국의 학자와 더불어 중국의 텐진대학(天津大學)과 일본의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서 전문가가 발표를 할 예정이다.

4) 대한민국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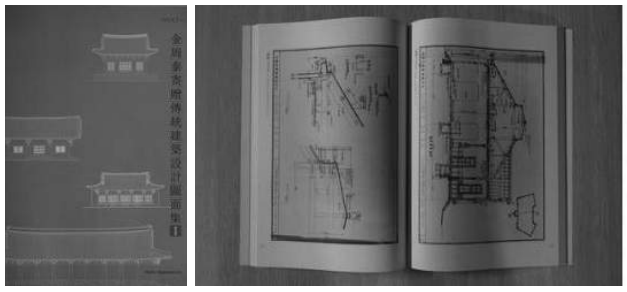


그림3. 한울문화재연구소에서 펴낸 김주태 기증 전통건축도면집의 표지와 본문

능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1945년 이후의 건축도면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건축도면을 다수 소장한 또 다른 기관으로는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곳은 주로 전통건축과 근대건축 가운데 국가가 발주한 용역을 통해 생산된 건축도면을 납품 받아 소장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의 각 부서를 포함해서 산하기관 모두 2006년부터 시행중인 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생산되는 기록물의 리스트와 기록물 자체를 1년에 한 번씩 대전(大田)에 있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은 상태가 좋은 도면 원본은 자체적인 보존서고에 소장하고 이를 디지털화 하며 보존상태가 안 좋은 것은 디지털화 한 다음 국가기록원에 도면 원본을 이관하여 보존처리를 하고 있다. 기록화 사업은 기존의 문화재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문서와 시청각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50% 정도가 진행되었다. 결과물은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의 이름으로 홈페이지가 구축[5]되어 있으며 현재 국가행정망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일반인의 열람은 아직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건축도면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는 규장각[6]과 장서각[7]이 있는데 1945년 이전의 건축도면이 대부분이며 이 두 기관이 소장한 건축도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규장각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71종에 대한 정리를 끝냈으나 그 결과는 아직 책자로 간행되지 않았으며 장서각은 소장 도면 가운데 궁궐 및 주거와 관련된 174종을 수록한 〈근대건축도면집: 도면편 · 해설편〉(한국중앙연구원장서주간행(韓國學中央硏究院藏書閣刊行), 2009년 1월 28일)을 간행한 바 있다.

최근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에서 도면자료를 정리한 서적이 하나 간행되었다. 2권으로 된 〈김주태기증전통건축설계도면집(金周泰寄贈傳統建築設計圖面集)〉(재단법인 한울문화재연구원간행, 2010년 10월 15일)이다. 이것은 김주태(金周泰)라는 전직 문화재전문위원이 민간연구기관에 기증한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문화재 조사에 참여하면서 생산한 건축도면 700매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화 이외에 건축도면 자체에 대한 보존처리와 관리에 대해서는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연세대학교 건축과에 재직했던 김정수(金正秀) 교수의 건축도면을 정리한 〈건축가 김정수〉(공간사, 2008년 11월 25일)가 간행되어 나왔으며 이 자료는 모두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보존처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945년 이전의 건축도면은 그나마 부분적으로 연구와 보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는 1945년 이후 현대건축과 관련되어 생산된 건축도면이다. 이러한 건축도면은 대부분 개인설계사무소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리와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각 사무소별로 차이는 있지만 CAD로 제작된 건축도면이 아닌 것은 디지털화 한 이후 원도를 폐기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사 김수근의 건축도면 조차도 자신이 운영했던 건축사사무소 공간에 보관은 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디지털화 했을 뿐 원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목천문화재단(木川文化財團)이라는 민간단체에서 현대건축가들의 건축도면을 수집, 정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필자는 최근 국내 몇몇 건축사사무소의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규모가 비교적 크고 역사가 있는 건축사사무소들도 대부분 동일한 상황이었고 디지털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원도에 대한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장소와 경비 문제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었다.

그림4. 공간사 건축도면자료실의 전경으로 프로젝트별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5) 2011년 2월 현재 50,563장 도면을 원본 DWG, DWF, JPG, PDF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6) 1776년 궐내(闕內)에 설치, 역대 국왕의 시문, 친필(親筆)의 서화(書畵) · 고명(顧命) · 유교(遺敎) · 선보[璿譜(王世譜)] · 보감(寶鑑) 등을 보관 관리하던 곳이다. 1912년 총독부에 참사관실(參事官室)이 설치되어 이들 도서와 관련된 사무는 참사관실로 이관되었고, 1922년 학무국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으로 이관되었는데, 이때 15만 1519권의 책이 이 대학의 도서관으로 옮겨졌다. 이 책들은 1945년 광복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다.
7) 1911년 이왕가(李王家)에 의해 설립된 이왕직도서관(李王職圖書館)으로 장서수는 88,700여 권에 이른다. 1945년에는 미군정법령 제26호에 따라 구왕궁사무처 장서각이 관리하다가 1955년에는 창경원사무소 장서각, 1969년에는 문화재관리국으로 각각 이관되었다가 1981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

그림5. 국회의사당 건물에 관련된 건축도면과 마이크로 필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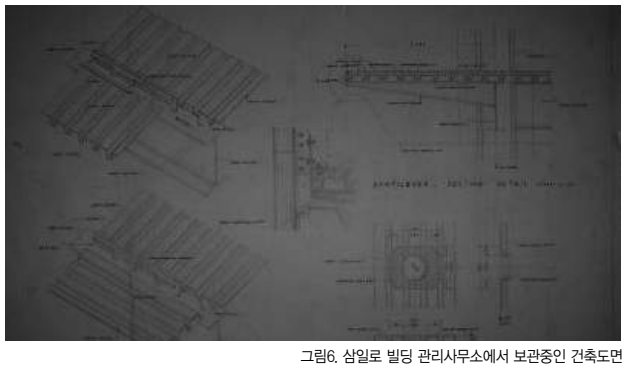


그림6. 삼일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보관중인 건축도면

다음으로 필자가 최근 연구실의 석사과정 학생을 지도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통해 건축도면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이 학생의 논문 주제는 197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초고층 건축물이었던 삼일로(三一路)빌딩이었다. 그러나 이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도면은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에게도, 시공을 한 건설회사 어디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그나마 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위해 보관하고 있는 도면원도 일부와 청사진이 남아 있어 겨우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는 국회의사당의 건축배경을 연구하는 학생의 경우였다. 이것은 1970년대 건축설계, 시공, 설비, 재료 등의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이루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다행히 각종 문서기록이 잘 남아 있어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정작 당시 납품된 건축도면은 볼 수가 없었다. 역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맺음말

이상 간략하게 우리나라에서 건축도면의 기록과 보존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현재 디지털화 되지 않은 건축도면의 보존과 관리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분적으로 과학적인 보존처리와 관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역부족이고 특히 1945년 이후 생산된 현대건축의 건축도면은 매우 절박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기관에 제출되는 디지털 건축도면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건축행정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DB가 구축되고 있고 2009년부터 시작된 국토도시건축기록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8]을 통해 건축도면 이외의 자료들이 수집, 정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디지털화 되지 않은 건축도면은 소외되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축아카이브 내지 건축박물관이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니면 대한건축학회나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중심이 되어 관리조직을 결성하고 공간을 확보하여 건축도면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관심을 가져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차원에서도 건축도면에 대한 재인식과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도면 전시회와 교육, 홍보가 절실하다.

(이 글에 사용된 도판의 촬영을 허락해 주신 공간의 이주연 편집주간과 국회사무처의 송기형 사무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8) 이 사업은 연간 5억원씩 투입되고 있다.

ARCHITECTURE
TRAVEL

이종호 시원 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ho, KIRA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이사
· 녹청련 홍보위원장

땅 끝에서 길을 찾다

Finding a road at the end of land

3년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서울 북부지역 건축사회(강북, 노원, 도봉, 성북) 건축탐방을 올 해는 전주 한옥마을과 전남 해남지역으로 정하고 다녀왔다. 지역 건축사들끼리 공동체 의식도 느끼고 우리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다.

전주 한옥마을

1박 2일(2011.5.27~5.28)의 일정으로 서울을 출발하여 전주 한옥마을부터 돌아보았다. 전주는 나의 본향(全州李氏)이라 그런지 낯설지 않고 친근감이 드는 도시다. 전주 한옥마을은 인구 4,000여명과 700여 채의 한옥이 모여 있어 한옥마을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비빔밥을 비롯해 한지와 한지공예, 판소리, 풍물놀이 등 다양한 문화유산의 본고장으로 작년에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그래서 기대가 컸는데 다소 실망스러운 면도 있었다.

마을길 바닥은 화강석을 전통마루 문양으로 깔아놓았고 처음 입장한 한옥체험학습장 건물인 세화당(世化堂)에도 기단석을 화강암으로 마무리 했는데 너무 정형적이고 매끄러워(기계로 자른 것) 자연스러운 맛이 없다. 그리고 몇몇 건물의 마당에 자갈을 깔아 놓았는바 이것은 우리 전통방식이 아니고 일본식이다.

세화당에서 단체사진

한지공예관과 전통술박물관에도 가보았다. 천년을 간다는 한지는 물질이 아닌 정신임을 '달빛 길어올리기'(2010)라는 영화(임권택 감독)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술은 느리게 익어갈수록 깊은 맛과 향기가 우러나듯이 우리네 삶도 그러하리라. 전통 찻집에서 느긋하게 쌍화차 한 잔 마시는 여유도 누려보았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해남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누렇게 익은 보리밭에선 보리 베기가 한창이다. 또한 남도 땅 특유의 황토 빛 들녘에서 생기가 넘친다. 해남으로 접어들어 우선 땅끝 해양 자연사박물관부터 들러 보았다. 개인이 30년간 수집, 소장한 4만 여점의 희귀한 해양생물(패류, 산호, 어패류 등)과 육지생

물이 전시되고 있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음 목적지인 땅끝탑 전망대로 이동했다. 모노레일을 타러 가는 길에 팽나무 가로수의 기묘하고 멋진 자태에 반한 반면, 공사 중인 유치하고 볼품없는 건물에 실망했다. 관광지의 빼어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볼썽사나운 음식점, 모텔들이 격을 떨어뜨린다. 국내 대부분의 관광지가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집을 보면 주인의 수준을 알 수 있고 도시를 보면 시민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작년에 개인적으로 와 보았던 전망대라 처음보다 감흥은 떨어진다. 그렇지만 저녁 무렵 댈기미 해변과 고깔섬 너머로 해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내려갈 때는 걸어서 갔는데 일부 돌계단이 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갈두산 숲길이 운치 있고 좋았다. 다 내려와서 보니 오른쪽으로 땅끝탑 가는 길이 있었다. 예전에 보길도 갈 때 와서 이른 아침 완도 쪽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본 경험이 있다.

해변과 접한 갈두산의 사면을 따라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편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몇 차례의 계단을 오르내리고 나서야 땅끝 탑에 도달했다. 전과 달리 지금은 일몰을 보고 있자니 땅 끝에서 일출과 일몰을 다 보게 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타이타닉 뱃머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되돌아 내려갔다.

왔던 곳을 다시 와도 그 때마다 새롭고 느낌이 다른 것이 여행의 묘미다. 식당에서 싱싱한 회를 안주로 동료들과 함께 건배를 하고 저녁식사. 밤중에 차로 이동하여 숙소인 두륜산 온천가족호텔에 도착, 여장을 풀었다. 서울과 달리 칠흑 같은 밤하늘에 별이 총총하고 개구리 울음소리 요란하다.

이튿날 아침을 먹고 대흥사 탐방 길에 올랐다. 우리는 포장도로를 마다하고 산책로를 따라 흙길을 걸었다. 길 왼편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꽃과 나무의 향기가 온몸으로 퍼져온다.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소나무, 편백 등 다양한 나무들로 어우러진 숲길에서 물소리 새소리에 눈과 귀가 밝아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아마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바로 이런 길이 아닐까?

대흥사 대웅보전

얼마 후 일주문을 통과하고 대흥사 경내로 들어섰다. 다리 2개를 건너 절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인 대웅보전 앞에 이르렀다. 조선시대 명필 이광사 선생이 쓴 현판 글씨와 건축물을 감상하고 나와 1km 산 속으로 더 들어가 일지암을 보고 가기로 했다. 예전에 비해 길이 넓어지긴 했어도 호젓한 숲길이다. 긴 오르막이라 땀이 흐른다. 그렇지만 기분은 좋다.

일지암에 가면 옛 초의선사(1786~1866)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최초로 다도(茶道)를 정립하시고 녹차의 인연으로 만난 추사 김정희와 고산 윤선도의 흔적도 배어있다. 초당 마루에 걸터앉아 연못의 연꽃을 보고 누마루에 올라 안산의 문필봉을 바라다보며 높고 깊은 뜻을 품었던 당대 최고 인물들을 그려본다. 작은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노닐고 주변 뜰엔 양귀비꽃과 머위나물이 자라고 있다.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내려오니 주차장에서 버스가 기다린다.

윤두서 초상화

오전 11시경 대흥사를 출발하여 다음 목적지인 윤선도 고택으로 갔다. 15분 만에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 도착했다. 우선 유물전시관부터 관람을 했는데 한옥 건물 지하 전시관에 갖가지 진귀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해설사로부터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쉽다. 해남윤씨의 시조인 어초은 윤효정과 윤선도 선생의 증손자인 윤두서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갖고 보았다. 특히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앞에서는 발길이 저절로 멈추고 그 형형한 눈빛에 매료되었다. 마치 나를 노려보며 세상을 똑바로, 꿋꿋하게 살라고 이르는 것만 같았다.

윤선도 고택인 녹우당(사적 167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앞의 500년 된 은행나무(일명 학자수,學者樹)가 먼저 눈길을 끈다. 고택을 둘러보던 중 안채에 거주하는 17대 종손 윤형식(78세) 할아버지가 지붕을 고치러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뒷산 명당 터에 자리 잡은 어초은 윤효정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둘러보았다. 주변에 천연기념물인 비자나무숲이 자라고 입구 쪽엔 대나무 죽순이 자라고 있다.

지붕위의 종손

시계 반대방향으로 한 바퀴 돌며 사당을 둘러보고 숲길을 따라 사랑채로 건너왔다. 녹우당 현판글씨는 윤두서의 친구 이서가 썼다고 한다. 건축물은 전면에 처마를 덧대어 내밀고 기둥을 세워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나 좀 흉해 보였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인 셈이다. 앞뜰엔 붉은 모란꽃이 한창이고 감나무에 노란 감꽃도 피었다. 벌들이 잉잉거린다.

고산 유적지는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볼거리도 많았다. 그러나 시간 때문에 다 둘러보지 못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오면서 보니 주변의 드넓은 논밭이 모두 해남윤씨의 풍요로운 토지였다. 서울로 돌아오면서 이번 탐방 여행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해남은 마치 불가의 윤회처럼 끝이 시작인 곳이다. 육지 쪽에서 보면 땅끝 이지만 바다에서 보면 시작점인 것이다. 그렇다! 우리도 바닥,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현실이 아무리 버거워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자. '세상을 직시하라 그래야 길이 열린다.'고 암시하는 듯 한 윤두서의 강렬한 눈빛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ARCHITECTURE
E S S A Y

소영선 건축사진가
by So, Young-sun

· 중앙대 예술대학원 사진학과(미술학 석사)
· 서라벌대, 중앙대, 경주대, 경일대 출강
· 다시 만난 백제, 부여에 가 보았어요,
진주성, 불교 동자상, 불국토 등 저술
· 현 cmy photo 운영

조선 왕릉의 사계

Four seasons of Chosun Dynasty Royal Mausoleum

창작인의 길 – 창작을 위한 동행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상은 참 혼란스럽다.

물질문명은 그야말로 개벽적으로 변화하고, 그에 따른 인간의 욕심, 지도층의 도 넘은 불공정과 부패, 자기 이해를 위한 온갖 술수와 이탈은 심지어 학교나 예술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그 세상 속에서도 의연함을 지키거나 인고의 무게와 따스한 체온의 느낌은 우리의 희망이요, 위안이 아닐 수 없다.

창작혼!

자타를 막론하고 인간의 선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추함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인간의 진실 됨과 자연 그대로의 생생함을 그려 낼 그것은 모든 창작인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리라!

동구릉

'사진'은 마음의 표상, 침묵의 흔적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진의 값어치는 삶을, 자연을, 우주만물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른다고 한다. 찍는 찰나의 마음 이야기! 세상이 찰나의 연속이요 움직임이니 마음이 연하고 하나 됨이면 과거, 미래의 시간의 분별 또한 넘을 수 있단 말인가.

차 맛을 본 사람만이 그 차 맛을 온전히 알듯이, 주의 주장보다는 느낌이요, 진정한 앎이다. 말 없는 앎이 옳으나, 편견과 집착만 버린다면 말이나 글도 얼마나 큰 보물인가.

창작인은 말없이 작품으로 말한다. 그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도 담아낸다. 맑은 눈으로 세밀히 들여다보면 사랑, 고통, 여러 가지 관계, 마음의 흔적 등이 보이기도 한다. 대상의 아름다움은 내 마음에 달렸다.

가장 '아름다운 집'이란 나 스스로 내 삶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인연들이랑 어울리는 꿈을 꽃피우는 집이 아닌가?

인식의 차이는 곧 행위의 차이로 나타난다. 한 여인을 놓고도 사내는 여색으로, 사자는 먹을거리로, 성인은 진리의 화신으로 본다면 대상이란 실체가 아닌 다만 인식의 차이가 아닌가. 돈 벌이로 건축함은 '돈벌이의 건축'이지… 그냥 건축을 한다는 것은 본질적 건축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은혜로움이 배어날 때 진정한 건축 행위이다!

그들의 일상을 사랑하는가?

삶의 실제 문제를, 자연을 생생히, 원만하게 바라보는가?

우리 건축사의 그 마음은 어떠한가?

동구릉

이제 우리도 산업화 시대의 건설에서 진정한 '건축'으로의 재정립이 절실한 시기이니 만큼 사진 또한 그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결국 창작인은 그 때의 삶이나 당대를 정직하고 섬세하게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그도 우리도 기대하고 함께 만들어가 보자!〈편집자주〉

조선 왕릉은 신의 영역, 신성한 침묵의 공간이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2009. 6. 27)된 조선 왕릉은 1392년 고려 왕조를 끝으로 1910년까지 519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뒤로 한 채 오늘도 깊은 침묵에 잠겨있다.

신적 공간인 조선 왕릉은 사방으로부터의 번잡함이 두려워 여러 겹의 산세로 둘러 싸여 있다. 저마다의 나무들도 짙푸름을 지닌 채 봉긋 솟아난 대지위에서 옹위하듯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같은 숲을 이룬다.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침묵은 대지를 지나 나무에 이른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바람에 실려 숲 전체에 퍼져 나아간다. 숲에서 한 마리의 새 울음소리가 침묵을 깨운다. 함박눈이 내리는 겨울밤, 숲에서의 그 울음소리는 더욱 깊은 침묵으로 인해 맑고 청아하다.

신의 영역인 조선 왕릉에도, 우리 인간세계에도 어김없이 계절은 찾아온다. 계절의 변화는 침묵의 리듬이며, 생동의 리듬이다.

겨울에 내리는 눈은 침묵을 더 한다. 대지와 하늘사이 모든 것들이 그 무게에 눌려 숨이 막힐 것만 같다. 그러나 눈 내리는 겨울에는 침묵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다. 대지와 하늘이, 자연과 동물도 곧 하나가 된다. 그리고 신의 영역의 주인들도 500년 역사를 안은 채 대지와 하늘과 함께 침묵하고 있다.

인헌릉

왕릉에 봄이 찾아오면 대지는 깊은 침묵으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신비로운 창조가 시작 된다. 숲길을 따라 지나가는 물길이 대지를 적시며, 물길 가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나고, 새들의 노래 소리는 한 줄의 시가 되어 번져 나아간다. 모든 것이 침묵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한다. 물길을 가로질러 놓여 진 금천교를 지나면, 홍살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아침 봄 햇살에 더욱 붉게 빛난다. 이 문을 지나면 능역 중심부에 다다를 수 있는 신도와 어도가 열리고, 죽은 자와 산 자의 길은 또 다시 침묵 속으로 인도한다.

이 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제사를 모시는 중심적 공간인 정자각이 나온다. 침묵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

가 하나 될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 되어 영원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선조와의 만남을 통해 오백년의 역사를 알고 미래를 예견하기도 한다.

정자각 위 언덕을 넘어 봉분 앞에 다다르면 화강암의 다양한 석물들이 나타난다. 바로 앞에는 무석인과 문석인이 후면의 마석과 함께 하나씩 놓여 있다.

최초의 거대한 화강석은 다듬어 지지 않은 하나의 침묵 덩어리였다. 석공은 이 거대한 덩어리에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이야기를 새겨 넣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열정'이었다.

마침내 거대한 침묵덩어리는 새로운 사랑과 진리의 생명체로 태어났다. 그 앞의 장명등과 혼이 쉬는 자리인 거대한 혼유석. 봉분과 그 둘레의 호석과 양석, 역시 사랑과 열정과 진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다. 눈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겨울의 침묵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묵묵히 서 있었던 그들에게도 봄은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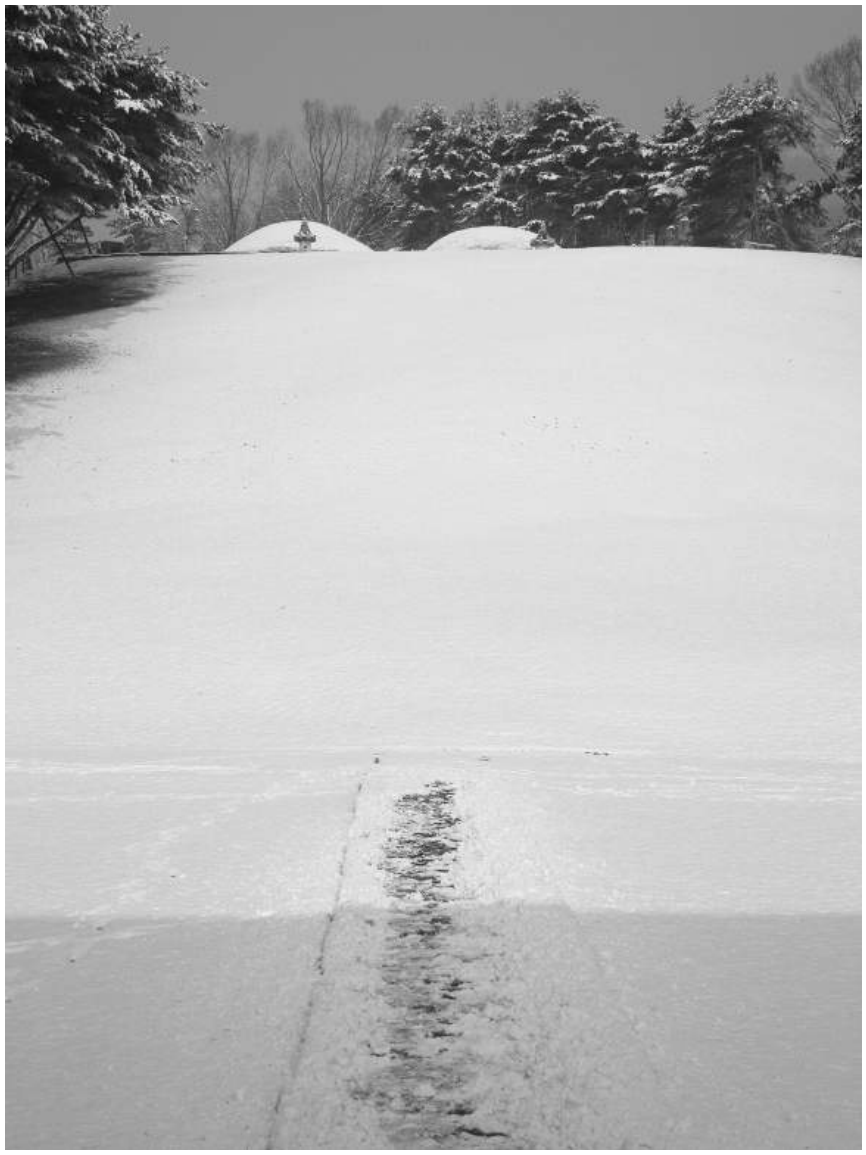
겨울 눈 덮인 대지에 뿌리박고 서 있던 나무들도 봄의 태양아래 침묵에서 깨어난다. 봄바람의 리듬은 음악이 되고 나무의 움직임은 곧 춤이 된다. 새들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또 밤이 찾아오면 부드러운 달빛과 함께 내일을 위한 침묵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여름의 왕릉은 푸름으로 가득하다.

겨울 침묵 속의 사랑과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 왕릉의 숲은 푸르다 못해 검푸르다. 새들의 사랑의 노래도 더욱 힘차다. 숲이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는 왕릉의 담을 넘어 인간세상으로 퍼져 나간다. 이 세상 모두가 사랑의 열기로 가득해진다.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아래 봉분 앞의 석물들도 자신을 잊은 채 사랑의 정열로 지칠 줄 모른다. 한 줄기의 소낙비가 내린다. 굵은 빛줄기는 대지

홍유릉



인헌릉

사릉

와 숲으로부터 넘쳐나는 열기를 식혀주며, 자연은 잠시나마 침묵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가을이 왔다.
왕릉은 이른 봄, 긴 여름 동안 사랑의 에너지로 넘쳐났다. 겨울의 무거운 침묵에서 깨어난 사랑과 열정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다. 이제는 쉬어야한다. 그리고 다시 침묵해야 한다. 사랑의 충전을 위해 침묵의 계절인 겨울로 돌아가야만 한다. 나무들이 차례차례 침묵의 길을 위한 붉은색, 노란색의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다. 동물들도 함께 준비한다. 그리고 왕릉의 가을은 깊어져만 간다.

나는 평소 조선 왕릉의 사계를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었기에 한 겨울 눈 내린 왕릉을 찾았다. 눈 덮인 왕릉은 나를 깊은 침묵의 세계로 안내하였다. 나는 그를 침묵으로 바라보았으며, 마침내! 나는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의 세계인 현존으로 안내되었다.

시인은 시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듯이, 사진가는 사진을 통해 드러낸다. 그의 시에는 침묵의 진리와 사랑이 가득하고, 사진가 또한 침묵 속에서 그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침묵 속에 진정한 사랑과 생생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을 한다'는 것은 대상을 바라봄으로서 시작한다. 대상을 온전히 바라봄은 대상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이는 대상에 대하여 나름의 이해가 아니라 올바로 아는 것이다. 자신의 견해가 살아있는 이해함은 주관적이며 자아에 의해 대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봄'에 있어 잘못 될 수 있다.

대상을 올바르게 바라본다는 것은 자아가 없는, 즉 모든 욕구와 희망, 동경에서의 자유로움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침묵하여야만 한다. 침묵 속에 충만 된 사랑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상에 대하여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며, 대상이 갖는 참 존재에 대하여 바로 아는 것이다. 즉,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상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그것은 침묵하는 자로서 "봄"과 "앎"을 하나로 통합하는 자이며, 대상을 바로 볼 줄 아는 자이다. 이것은 이원적인 세계에서 일원적인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는 찰나의 세계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없는 현존의 세계로 모든 것이 초월되는 순간이다. 이 순간 대상과 나는 사라지며, 남는 것은 순수한 존재 자체인 최고의 존재자(우리는 이를 신이라 부르기도 함)!
바로 그것인 것이다.

그리고 침묵을 통해 조선 왕릉에서 우리는 그 하나의 신을 만날 수 있다.

사릉

소식
NEWS

협회소식

제6회 이사회

2011년도 제6회 이사회가 지난 6월 15일 오후 3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의 건과 대한건축사협회 대변인 선임의 건, 사무기구 직제 개편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가칭)건축구조연구소 설립지원의 건,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건설기술자(사망자) 미납관리비 결손처분(안)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의 건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협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제2호 : 대한건축사협회 대변인 선임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제3호 : 사무기구 직제 개편의 건
– 원인 무효이므로 정관에 부합되도록 하고, 결재방법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기로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가칭)건축구조연구소 설립지원의 건
– '(가칭)건축구조연구소 설립의 건'은 안건폐기하고, 안건제목을 '(가칭)건축구조연구소 설립지원의 건'으로 재상정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의결정족수(찬성 11명) 부족으로 부결됨.
▷ 투표참여이사 20명중 찬성 7명, 반대 9명, 무효 3명, 기권 1명
• 제2호의안 :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단과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회장에게 위임함.
• 제3호의안 : 건설기술자(사망자) 미납관리비 결손처분(안)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미납관리비 결손처분액 : 77,565,000원

▲기타사항
• 협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매주 이사들에게 메일로 보내주도록 요청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4회 국제위원회

제4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별 국제위원 참여 희망 조사〉

구 분	팀 구성
ㅇ 교류 국가의 우선순위 및 장기 전략	김지덕 자문위원 이승석 위원(2순위)
ㅇ 교류협정서(MOU) 관리 및 표준화	
ㅇ 교류국가의 건축실무 자료 수집/분석 (계약서, 설계비 산정, 법규체계 등)	심형섭, 임희선, 이윤석
ㅇ 교류국가의 건축사단체 자료 수집/분석 (조직, 규모, 행사 등)	이승석(1순위)
ㅇ 해외 자료/인맥의 국내 활용 (세미나 개최, 자료 공유 등)	조인숙
ㅇ 2011 UIA총회(도쿄) T/F팀 (여행 프로그램, 행사 지원 등)	이성란, 전성호

– 한국을 외국에 소개하는 업무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조인숙 위원)

• 제2호 : 제32차 ARCASIA 이사회 및 제16차 포럼 참가의 건
– 전체 국제위원의 참석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우선 대표단 구성(안)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소요예산을 확인하기로 함.

구 분		인원	성 명
대표단	공식대표	2인	회장
			미정
	일반대표	7인	김항년, 신춘규 국제담당 이사 김성민 국제위원장 김지덕 자문위원 김은미, 임희선, 전성호(미정), 조인숙 위원
	학생대표	2인	선정안함
			선정안함
	ARCASIA 임원	1인	이근창 ARCASIA 고문
	UIA 이사	1인	심재호 UIA 이사

• 제3호 : 제24차 국제건축사연맹(UIA) 동경 총회 참가의 건
  – 조속한 시일 내에 참관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관단을 모집하기로 함.
• 제4호 : 제6차 중국 국제건축 EXPO 참가 및 중국건축학회와의 MOU 추진의 건
  – 중국건축학회는 6월에 이사가 교체되고 '11. 10. 20(목)부터 10.22(토)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6차 중국국제건축EXPO에 본 협회 대표단 참석과 MOU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협회의 주요 행사가 10월에 다수 개최되는 관계로 MOU 체결 시기는 본 협회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6월 이후, 10월 이전 중 체결시기에 대해 중국건축학회와 다시 협의하기로 함.
  – 제6차 중국 국제건축 EXPO 참석 여부는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함.
• 제5호 : 2012년도 미국건축사협회(AIA) 컨벤션 발표 신청의 건
  – 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기로 함.
• 제6호 : 유럽건축사협의회(ACE)와의 교류 추진 방향의 건
  – 향후 FTA 및 시장개방 관련 사안은 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국제위원회에서는 논의하지 않음.
• 기타
  – 미국건축사협회(AIA)와의 국제교류는 본협회가 양해각서의 체결 주체이므로 FIKA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항년 이사)
  – 2011년도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PAM) 컨벤션에서의 2017 UIA총회 유치활동을 위해 유치위원회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현지 건설회사 지사의 현장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를 건의함. (김항년 이사)
  – 2011년도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PAM) 컨벤션에서의 2017 UIA총회 유치활동을 위해 유치위원회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현지 건설회사 지사의 현장
    ▷ 김지덕 자문위원이 6.8(수)에 개최되는 유치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므로 유치위원회에 위 내용을 건의할 수 있음.

■ 제5회 국제위원회

제5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국제위원회 활동계획 및 업무분장의 건
  – 국제위원회 업무별 참여희망 의사를 조사하여 업무를 분장함.

〈업무별 국제위원 업무분장〉

구 분	위 원	자문위원 등
1. 교류 국가의 우선순위 및 장기 전략	김은미, 하태석	이근창
2. 교류협정서(MOU) 관리 및 표준화	민규암, 이윤석	심재호
3. 교류국가의 건축실무 자료 수집/분석 (계약서, 설계비 산정, 법규체계 등)	임희선, 심형섭	김성민
4. 교류국가의 건축사단체 자료 수집/분석 (조직, 규모, 행사 등)	이성란, 이승석	신춘규
5. 해외 자료/인맥의 국내 활용 (세미나 개최, 자료 공유 등)	조인숙, 전성호	김지덕
6. 2011 UIA총회(도쿄) T/F팀 (여행 프로그램, 행사 지원 등)		

※ UIA 총회 T/F팀은 10월까지 한시적이므로 5와 6을 당분간 통합하여 운영

• 제2호 : 제32차 ARCASIA 이사회 및 제16차 포럼 참가의 건
  – 전체 국제위원의 참석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구성하고, 업무를 분장함.

가. 대표단 구성

구 분		인원	성 명
대표단	공식대표	2인	회장
			김성민 국제위원장
	일반대표	2인	전성호, 조인숙 위원
	ARCASIA 임원	1인	이근창 ARCASIA 고문
	UIA 이사	1인	심재호 UIA 이사
	UIA 유치활동	2인	김지덕 자문위원, 신춘규 이사

나. 대표단 업무 분장

회 의 참 가 (회의참석 담당 위원은 회의전 보고서와 회의 후 회의록도 작성)	
이 사 회	공식대표 2인 및 대표단
교육위원회	조인숙 위원
건축실무위원회	김성민 국제위원장
Fellowship 위원회	김지덕 자문위원
친환경위원회	전성호 위원
보고서 작성	
Country Report	김성민 위원장
ARCASIA Center 건립	이근창 자문위원
ARCASIA 홈페이지 운영	이근창 자문위원

• 제3호 : 제24차 국제건축사연맹(UIA) 동경 총회 참가의 건
– 조속한 시일 내에 참관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관단을 모집하기로 함.
• 제4호 :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 현대건축 강연회 협조 요청의 건
– 연합회는 본 협회와 오랜 국제교류단체이고 향후 활발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연합회에서 요청한 강의실(1층 대강당) 사용 및 본 협회 회원의 참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연합회 아이치 지부에서 추천한 연사(조민석 건축가, Furuya Nobuyaki 교수)가 건축사가 아님을 고려할 때, 본 협회가 교류하는 단체가 주최하고 본 협회가 후원하는 행사인 만큼 건축사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조인숙 위원)이 있었음.
• 제5호 : 기타의 건
– 본협회에서 예식장으로 대여하고 있는 1층 대강당을 협회 회원들에게 개방하고 보다 회원들에게 유익한 장소로 사용하기를 건의함. 예를 들어, 유럽 및 AIA의 경우 유명 출판사의 서적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서점을 운영하는 등 회원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음.(이윤석, 임희선, 전성호 위원)

■ 제3회 법제위원회

제3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개선의 건
– 법제위원장과 조충기 이사를 포함한 5~6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유지관리 관련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① 건축지도원의 범위를 건축사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함.
② 인 · 허가 받은 설계도서대로 건축물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③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 이상 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④ 벌칙, 양벌규정, 징계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제2호 :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건
– 법제위원장, 전영철 이사, 조충기 이사 및 법제위원, 2010년 법제위원을 포함한 총 5~6명으로 건축사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6월 중순에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함.(사무처 안 축조심의 등)
• 제3호 : 건축설계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의 건
– 동 규정이 건축설계업무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 사무처에서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검토받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제4호 :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의 건
–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사무처에서 검토내용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검토 받은 후 행안부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제1안) 신용평가제도 삭제
(제2안) 실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도입
(제3안) 우리협회가 평가기준(실태조사 등)을 마련하여 평가한 내용으로 입찰기준에 적용하는 방안
• 제5호 : 기타의 건
–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대하여
▷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2항(구조안전확인 관련)은 지진안전확인을 한 건축물만 증축, 개축시 지진안전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내진보강이 의무화되어 소규모 건축물 증 · 개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기존 사무처 초안에 보완하여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리모델링협회와의 리모델링 건축대전에 대하여
▷ 우리 협회의 명목상 참여가 아니라 지원할 부분은 확실히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구체적인 참여방안은 리모델링TF위원장 및 담당위원, 법제위원장, 문화홍보위원장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제4회 법제위원회

제4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대가기준 연구의 건
– 연구보고서 내용 중 문제점 · 보완사항 및 각 법제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최종보고회(7/7)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최종보고회(7/7) 후 당일 전문가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므로 토론자 선정 및 발표내용에 대하여 정리한 후 별도로 전문가토론회 일정을 잡는 것이 필요함.
• 제2호 : 한국농어촌공사 건축설계 대가지급 문제점의 건
– 건축사업역 T/F팀(위원장 : 전찬흥)에서 동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제3호 : 기타의 건
– 협회 제도개선 추진사업 및 예산사용 관련
▷ 법제도개선 관련 예산사용이 저조하므로 협회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사업에 예산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각 T/F팀장이 사업과 소요되는 예산을 검토하여 사전회의(7/12, 10시)를 갖고, 차기 법제위원회 회의(7/15, 9시30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함.
– 리모델링협회 관련
▷ 리모델링 T/F팀은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후 법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필요함.

■ 제5회 법제위원회

제5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구조안전문제 관련 대처방안에 관한 건
– 법제위원회 및 관련 T/F팀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 및 예산을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배정은 차기 법제위원회(7/15)에서 결정하기로 함.

■ 제3회 구조안전 T/F

제3회 구조안전 T/F 회의가 지난 6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구조안전문제 관련 대처방안에 관한 건
  – 차기 이사회(6/15)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가칭)건축구조연구소' 설립(안)에 관하여 차기 TF팀 회의(6/10 예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구조안전 관련 간담회(6/7)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건
  – 구조기술사회와의 워크숍(6/10)의 일시 · 장소 · 참석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우리협회 참석자는 워크숍 한 시간 전에 사전모임을 갖도록 하며 우리협회 발표내용은 전영철 상근이사와 백민석 편집국장이 협의해서 정하기로 함.

– 다 음 –
1. 일 시 : 2011. 6. 10. (금) 15:00
2. 장 소 : 우리협회 중회의실
3. 참 석 자 : 이창율(부회장), 강희달(前서울건축사회 회장), 전영철(상근이사), 조충기(이사), 오동욱(법제위원장), 백민석(편집국장), 성용택(회원), 구조기술사회 7인

• 제3호 : 기타의견
  –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 부실업무 사례 활용방안 및 해당 교육청 편법발주에 대한 대응여부는 법제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함

■ 제4회 구조안전 T/F

제4회 구조안전 T/F 회의가 지난 6월1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가칭)구조안전연구소' 설립에 관한 건
  – 이사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구조안전 T/F팀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회 친환경 T/F

제2회 친환경 T/F 회의가 지난 6월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 TF팀 운 영 및 추진방향에 관한 건
  – 과제 및 추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음.

– 다 음 –

1) 친환경 자재 DB 구축 : 친환경 자재정보 공유를 위한 카페(포털사이트)를 위원장이 개설하고 위원들이 운영 · 관리하기로 하고, 향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우리협회 홈페이지 Archi DB를 활성화하는데 기반이 되기를 바람.
2) 친환경건축 포럼 개최 : 금년 산업대전과 연계하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3) 친환경 관련 법령 검토 :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제정되어야 할 법령을 각 위원이 검토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4) 건축자재 코드화를 위한 기획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5) 친환경 인증기관 추진 : 위원장이 상근이사와 협의하기로 함.

■ 제3회 문화홍보위원회

제3회 문화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1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홍보사업계획' 방향에 관한 건
  – 2011년도 홍보사업계획 중 추진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담당위원하에 차기회의까지 완성하고,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 1. 건축용어 정리 – 배홍열, 김양희
    2. SNS, QR코드 활용 – 김규성, 김경오, 노경찬, 정동덕
    3. 교육홍보 – 초 · 중학교 : 김형수, 김양희, 고등학교 : 박홍근, 송미정
  – 문화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을 김경오 위원으로 선임함.

■ 제4회 건축영화제 T/F

제4회 건축영화제 T/F 회의가 지난 6월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에 관한건
  –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함.
  – 1. 협찬사 유치
    50여개 업체 리스트를 작성해 앞으로 두달간 스폰서링에 주력하기로 함.
    2. French Film Day 추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프랑스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영화를 영화제기간 중 상영하는 French Film Day는 협회에서 개막식 프랑스대사 참석, 상영작 선정, 협찬금 지원을 공식요청하기로 함.
    3. 홍보대사 선정
    본 영화제에 맞는 인사를 위원별로 찾아보기로 함.
    ⇒ 영화배우 김규리 논의

■ 제4회 사업위원회

제4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2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한국건축산업대전' 마케팅 및 홍보의 건
  – 위원들은 회의때마다 마케팅 결과를 보고키로 함
• 제2호 : 우수건축자재추천제 심사위원단 구성의 건
  – 차기회의 안건으로 순연함.
• 제3호 : 기타의 건
  – 포스터 시안은 다음주까지 완료하여 이메일로 전달하겠음.
  – 협회행사용 부스디자인은 분위기, 자재, 스타일을 미리 구성토록 노력함.

■ 제5회 사업위원회

제5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우수건축자재추천제 심사위원단 구성의 건
  – 심사단 구성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키로 함.
• 제2호 : 기타의 건
  – 포스터는 심플하고 세련되게 로고와 전시일정만으로 재구성키로 함.
  – 대형건축사사무소, LG하우시스, 이건창호 등의 부스참여를 추진함.

■ 제2회 리모델링 T/F

제2회 리모델링 T/F 회의가 지난 6월2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문제점 개선에 관한 건
  – 리모델링 관련 법령을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도 개선 추진하기로 함.

리모델링 관련 제도상 문제점	주요 내용
리모델링 관련 통합법 필요	리모델링 관련 법령이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리모델링 관련 법령을 통합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촉진법' 등이 필요함.
적용의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6조)	– 건축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 리모델링시 관련 법령을 완화하고 있어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특혜적용 우려가 있어 실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 정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 리모델링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 (수선과 대수선의 범위에 대한 개념 재정립)
소규모 건물 리모델링시 완화 추진	– 피난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완화 조치 필요함
리모델링 공사시 건축사 날인제도 도입 (법제위원회)	– 회원들의 업역보호 및 일거리 창출과제로 리모델링 위원회 우선 과제로 선정

■ 제2회 회관관리 T/F

제2회 회관관리 T/F 회의가 지난 6월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물 하자보수 건
  – 일단 남흥건설에서 제시한 하자 보수공사를 인정하여 추진토록 하되, 하자보수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최초 건축시방대로 다시 하는 조건으로 책임시공토록 하고, 주차장 도색은 하자보수 후 상태를 지켜보고 안정화되면 차후 협회 주관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협의함.
• 제2호 : 회관임대 및 사용의 건
  – 제1안의 삼성전자가 2층을 모두 사용토록 하고 3층에는 협회에서 세미나실과 건축사등록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함.
• 제3호 : 외부간판 개선의 건
  – 간판 명칭은 "대한건축사회관"으로, 글씨체는 고딕체로 하는 것을 검토 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키로 함.
• 제4호 : 지하 경보장치(정화조, 배수펌프장) 이설공사의 건
  – 계약시 하자보수에 대한 약정을 받아놓고 공사를 시행토록 협의함.
• 제5호 : 화장실 벽체타일보수공사 공사비 증액에 대한 승인의 건
  – 당초 설계물량의 50%이상 증가됨에 따라 총 공사금액 55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것으로 승인함.
• 제6호 : 기타의 건
  – 조경관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상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근의 유지보수 가능한 업체를 정하여 지속적 유지보수가 되도록 할 것.(신동출 이사, 김후석 의원, 김용찬 위원)
  – 앞으로 매년 예산에 대하여 모두 집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보수연혁사항관리 등 세심한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관리를 한다면 비용을 절약 할 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생각으로 관리하기 바람.(김용찬 위원)

■ 제2회 저작권 T/F

제2회 저작권 T/F 회의가 지난 6월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저작권 TF팀 실천과제 수립 및 실천방안에 관한 건
  – 저작권 TF팀 실천과제의 큰 틀은 "건축사 대가기준"으로 하고, 그 안에 저작권 관련 항목들을 포커스로 다루기로 함. 그 항목들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장이 정리한 후 다음 회의때 논의하기로 함.
  – 사후설계관리업무(정리내용 사무국에서 송부)에 대한 의견을 다음 회의까지 각 위원이 정리한 내용으로 다음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기타의 건(건축인을 위한 저작권 실무 특강에 관한 건)
  – 교육 형태는 특강 형식으로 하며, 강사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초빙하기로 함. 특강일정은 평일 오후(월요일 제외)로 하며, 특강 참석시 회원 교육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교육 실행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제4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제4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1기 등록갱신 심사에 관한 건
  – 심사일자는 '11. 7. 19(화) 09:00시 임원실에서 개최하기로 협의하

고, 심사위원은 김지덕 위원장, 이근창 위원, 황두진 위원, 조인숙 간사 및 대한건축학회 대표위원(김정곤, 이영한 위원) 중 1인(총 5명)으로 협의함.

• 제2호 : 모쉐 사프디(Moshe Safdie) 강연회 후속조치에 관한 건
  – 본협회 홈페이지에 비디오 영상물을 게재하고, 보고서는 건축사지에 게재하여 APEC 등록건축사 및 본협회 회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함.
  ▷ 강연회 개최 시 보고서 작성은 업무분담을 하여 진행하도록 건의(조인숙 간사)
• 제3호 : APEC 등록건축사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건
  – APEC 등록건축사 제도 운영 취지, 실제 활용 방안 및 사례, 계속교육이수에 대한 안내문을 APEC 등록건축사에게 송부하기로 함. (작성자 : 황두진 위원)
• 제4호 :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참여도 관련 협의의 건
  – 위원들의 회의 참석 가능일자를 조사한 뒤,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협의
• 제5호 : 기타의 건
  – APEC 등록건축사 도장은 신청자에 한해 제작비를 받고 추진하는 방안 협의

■ 제1회 발주제도 T/F

제1회 발주제도 T/F 회의가 지난 7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발주제도개선 TF팀 운영 및 추진방향의 건
  – 발주제도와 관련한 총론적인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턴키, 현상설계, PQ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전략)은 위원장이 정하기로 함
• 제2호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용평가의 건
  – 사무처에서 건의(안)을 정리하여 위원장이 검토한 후 TF팀 안으로 정리하기로 함.

■ 제2회 재경위원회

제2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차입의 건
– 한국콜마(주)와의 임대차 계약 해지('11.7.1)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부족분' 일시 차입안을 이사회에 상정키로 합의함.
• 제2호 : 예비비 사용의 건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안을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 제4회 행정위원회

제4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 추진일정 계획의 건
– 정관개정 T/F를 7인 범위 내에서 구성 · 운영하기로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함. (위원 구성 시 2010년 행정위원회 위원 약간 명 포함)
– 추진일정은 회의자료에 있는 추진일정 보다 앞당기되 새로 구성되는 T/F팀에서 추진 일정을 수립키로 함.
• 제2호 : 임원평가규정 제정의 건
– 금일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박운천 위원이 규정(안)을 보완, 위원장과 협의하여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 임원평가 규정 제정 : 상근임원과 비상근 임원의 평가규정을 달리하여 규정 마련
  ▷ 상임임원 처무규정 개정 : 상근임원 평가항목을 추가 검토
• 제3호 : 사무기구 직제 개편의 건
– 제6회 이사회('11.6.15) 결과에 따라 이사회 결의 이후의 사무기구는 '10.3.16일 개정 이전의 기구표로 복귀하고 사무기구 및 직제는 회의 자료 (1)안으로 함. 다만 '관리본부장'의 존속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협의함.
• 제4호 : 기타의 건
–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김지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함.
– 한국산업대전 협약서는 원안대로 하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기로 함.
  ▷ 미수금이 발생시 유치비용 지급시 미수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계약 후 전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최영집 회원 '건설의 날' 석탑산업훈장 수훈

최영집 회원(우리협회 고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탑)이 지난 6월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1 건설의 날'기념식에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17일 13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등 정부관계 인사와 장광근(국회 국토해양위원장), 강기갑, 김성태 국회의원, 건축계 · 건설업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 최영집 회원은 석탑산업훈장을, 석종구(석종구 건축사사무소 루트), 신춘규(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조성원(주.대우 건축사사무소) 회원은 국토해양부장관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최영집 회원은 약 32년간 건축최고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서울특별시건축상 금상을 수상하는 등 친환경건축, 저에너지건축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 국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손해배상업무를 비롯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도를 높여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시대에 맞추어 국내 건축사들의 실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업적이 인정되어 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협회 '2011 협회발전 워크숍'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대전 KT인재개

발원에서 '2011 협회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우리협회 강성익 회장과 권병조 상근부회장 및 임원진과 본 협 각 위원회 위원장, 16개 시도건축사회 회장 및 부회장, 각 지역 건축사회 회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강성익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협회의 역할과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재정립해서 건축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상호간 친목도 돈독히 다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날인 24일에는 (사)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한상규 교수의 '원활한 회의 진행방법'과 국토해양부 유병권 도시정책관의 '도시 · 건축을 통한 선진국가 구현' 특별강연 등이 열렸으며, 총 5개의 주제로 분임토의가 개최돼 참석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제에 참여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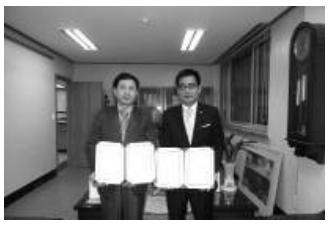
분임토의 주제는 크게 '정관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 '제도 개선1(감리, 현장조사검사 업무)', '제도 개선2(공공건축사 제도, 세움터 업무 개선)', '업무영역 확대' 등으로 개최 됐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협회 발전 방안과 건축사 현안 문제에 대해 늦은 시간까지 토의를 하는 등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옹진군, 연평면 피폭 건축물 복구공사 감리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건축사회(회장 조동욱)와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6월 13일 오전 10시 옹진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연평도 피폭주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상호 피폭건축물의 복구공사 감리업무 무료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건축사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비롯해 마감공사, 공법 및 시공도 검토 등의 업무를 보게 된다.

충청북도건축사회,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및 건강검진 관련 MOU 체결



충청북도건축사회(회장 이재삼)는 지난 6월 18일 충북건축사회 회의실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재형 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충북지역 건축사 회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강화방안 마련', '건축물의 유지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건축신고 건'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또 충북건축사회는 같은 날 '김내과의원 건강검진센터'와 의료편의에 관한 상호 협력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건축사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의 국민건강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 및 충북건축사회에서 확인하는 증빙서류 제출 및 건강강좌, 보건교육, 건강정보 무료 제공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협력해가기로 했다.

충청남도건축사회, '해외테마건축기행' 및 '사랑의 집짓기 봉사' 가져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최종옥)는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해외테마 건축기행을 가졌다.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건축기행은 중국 하문, 영정, 무이산 일대를 탐방해 중국건축문화에 대한 안목을 높임은 물론 회원 간의 친목도 도모했다.

또 충남건축사회는 지난 6월 16일 13명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목천읍 교촌리 '희망의 마을'에서 상반기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지붕을 형성하는 목조 트러스제작 공정과 벽체 조립작업 공정에 대한 공사가 진행됐다. 충남건축사회는 이번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는 사랑을 불어 넣고, 봉사자에게는 나눔의 보람을 선사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국-오스트리아 지속가능 안산국제건축전

'한국-오스트리아 지속가능 안산국제전'이 지난 6월 16일부터 3일간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전시관 및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경기도건축사회 안산지역건축사회(김훤인 회장)와 안산시(김철민 시장), 안산YMCA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오스트리아건축사와 한국건축사, 안산건축사의 작품전시회와 더불어 안산 관내 대학의 학생 작품이 전시됐다.

또 오스트리아건축사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관련 강의가 3일 동안 있었으며, 행사 둘째날은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친환경건축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안산국제전은 자원과 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급증으로 이상기후 등 전 지구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전체 온실가스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개최 됐다. 세계적 수준의 저에너지건축설계기술과 에너지 기술을 가진 오스트리아 건축사들의 실제 건축된 건축물을 통한 오스트리아 친환경 저에너지 패시브하우스 국제 건축전을 개최하여 친환경건축물을 통한 에너지활용 기술과 선진설계기법을 전시와 토론회, 강연회 등으로 함께했다.

안산지역건축사회는 지속적인 행사를 통해 지역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체적 역량을 발휘 할 것을 공표하고, 주최측과 한양대학교,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서울예술대학과 시민단체가 친환경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친환경 지속가능건축의 지역적 공론화를 계기로 사회적,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안양지역건축사회와 군포소방서 'MOU' 체결 및 안양지역건축사회 창립 46주년 '安果軍義'집사람展 개최

경기도건축사회 안양지역건축사회(회장 황규태)는 군포소방서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지난 6월 3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하고 있는 건축사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계 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두 기관은 소방 및 건축 관련 법령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도 추진키로 했다.

또 창립 46주년을 맞은 안양지역건축사회는 지난 6월 21일 안양아트센타 컨벤션홀에서 기념식과 기념 전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양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들과 전시회를 통해 건축을 이야기하고 정감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사였다.
기념식은 식전행사로 시작해 오프닝 영상(안양지역건축사회의 46년 및 작품영상), 안양지역건축사회 경과보고, 환영사, 축사, 어린이 창작건축모형 시상, 전시관람 등의 내용으로 개최됐다. 작품전시회는 기념식과 함께 26일까지 안양아트센타 갤러리 미담에서 개최됐는데, 기념책자 발행과 더불어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지역 건축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단합과 지역과의 소통을 꾀했다.
한편 어린이 창작 건축모형 공모전은 안양시소재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종이를 소재로 한 건축모형 만들기를 통해 어린이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꾀하고,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건축에 대한 상상력을 불어넣어 미래 건축문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회로 삼았다.
• 문의 : 안양지역건축사회 031-449-2698

오성 · 화성지역건축사회와 화성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건축사회 오성 · 화성지역건축사회(회장 이석규)는 화성시와 '건축품질 무한돌봄 업무협약'을 지난 6월 13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현장지도 · 자문 등 무한돌보미로서의 재능기부를 수행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화성시 건축허가 4,068건 중 건축품질 무한돌봄 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단독주택 신고 건수는 552건이다.

건축계소식

제16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작품공모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가 주관하는 '경기도건축문화상'에서 작품을 공모했다.
'사용승인부문'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용 승인된 도내 건축물에 한한다. '계획작품부문'은 전국 소재 대학(대학원 포함)건축전공 학생의 작품으로써 미발표된 창작 작품이어야 한다.
작품접수는 사용승인건축물 부문은 오는 10월4~10월14일까지, 계획작품부문은 10월24일~10월 28일까지 경기도건축사회에서 받는다.
수상작 시상은 오는 12월 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은 사용승인부문은 설계자 · 시공자에게 도지사상을, 건축주에게는 기념동판과 도지사상이 주어진다. 작품계획부문은 도지사 상과 상금, 해외건축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 문의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031-8008-3463, 경기도건축사회 031-247-6129

2011 경상북도 건축대전 작품 공모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건축사회가 주관하는 '경상북도 건축대전'에서 작품을 공모했다.
'일반 공모 작품전 부문'은 각종 건축의 준공작품 및 계획작품 등 자유로이 선택하되, 건축물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지역에 한하며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다. '건축작가 초대전 부문'은 건축물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 지역으로 한정하고, 참가자격은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축가협회 경북대구 회원으로 한한다. '건축사진전'은 경북도내 건축물, 도시디자인 혹은 공간의 이미지 등이며 자격제한 없다.
응모신청서 접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작품접수는 11월 2일~4일, 심사 및 수상작 발표는 11월 7일 경북건축사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한다. 아울러 수상작 시상은 11월 10일 예정이며, 출품작품 전시는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 문의 : 경상북도건축사회 053-744-7800, www.kkba.or.kr

2011년도 제6회 공중화장실 설계공모전 개최

쾌적한 다목적 다기능의 아름다운화장실을 개발, 보급 확산시키기 위한 '제6회 공중화장실 설계공모전'이 개최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부분과 건축설계 및 관련디자인을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생 부분으로 나뉘어 개최된다.
등록기간은 오는 8월 26일까지이며, 응모기간은 9월 30일, 발표는 10월

10일 예정이고,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문의: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02-703-1665/6, www.bkm.or.kr

KCC 상재 통합브랜드 'KCC숲' 출시

KCC는 6월 1일, 친환경 상재통합브랜드 'KCC숲'을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브랜드는 KCC에서 각기 독자적으로 운영해오던 PVC바닥재시트, 마루재, PVC타일 등 상재 브랜드 공동의 친환경 마케팅 전략으로, 상재 브랜드 상호간의 윈윈 효과를 꾀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KCC숲'은 '숲'이 가지는 친환경적 이미지에 주목하며, 숲에서 느껴지는 싱그러움, 맑은 공기의 상쾌함, 평화로운 휴식공간 숲에서의 인간과 자연과의 소통, 숲을 구성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표방한다. 친환경 가소제를 사용하여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제공하는 'KCC숲'은 제품의 물성뿐 아니라 디자인에도 친환경 콘셉트를 적용하여 자연적 감성의 컬러와 패턴을 적용하였다. 따뜻하고 친숙한 브라이트 계열의 컬러들이 주류를 이루며, 다양한 수종 개발과 인쇄 기술 개선을 통해 최대한 원목의 질감을 구현한 'Real 디자인'으로 공간에 자연 감성을 더하였다. KCC 관계자는 "KCC 상재는 가장 편안하고 휴식이 되는 공간으로서의 집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해왔으며, 다양한 친환경 인증들을 획득해왔다. 금번 출시한 상재 대표브랜드 'KCC숲' 역시 자연을 닮은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친환경 기능성과 감성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다양한 제품 군을 갖추고 있다. 'KCC숲'이 소비자들이 숨쉬고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바닥재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다. 또한 'KCC숲'의 출범으로, 친환경 기업으로서 KCC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www.kccworld.co.kr

신간안내

알기쉬운 건축법

김도환 편저 | 985쪽 | 대건사

이 책은 2011년 5월 30일 개정, 2011년 12월 1일에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을 수록한 책이다.

건축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석면 문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관련 법규와 규정을 섭렵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조사, 수록하여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 문의 : 대건사 02-715-6683

설계사무소 전략계획

레이몬드 F. 코간(AIA), 카라 봅첵 저 | 강인수, 비퍼플 역 | 238쪽 | 기문당

이 책은 역자가 번역한 『건축제안의 성공전략』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에 소개하는 건축분야의 전략서이다. 이전의 책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전략서라면 이 책은 바로 설계사무소와 설계하는 사람들의 성공을 위한 전략서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전략계획을 한 기업이 성공을 위한 노력을 통합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하며 전략계획의 프로세스를 건축설계 프로세스에 견주어 자세히 설명했다.

• 문의 : 기문당, 02-2295-6171

한옥시리즈

안은영 외 저 | 총 2,020쪽 | 한문화사

한옥시리즈는 한문화사가 5년간 전국 300여 곳의 중요 한옥들을 찾아다니며 기획하고 만들어낸 국내 최초, 최대의 한옥자료집이다. 전 6권의 단행본과 CD도면집으로 구성된 한옥시리즈는 총 2,02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한옥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5,000여 컷에 달하는 생생한 사진자료를 담고 있다. 또한 별도의『한옥CD도면집』은 한문화사와 국립한밭대학교, RP건축사사무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CD 1장에는 한옥시리즈 전 6권에서 선별한 도면 150개가 각각 dwg, eps, jpg 포맷으로 저장되어 있고, 한옥 짓기 3D 동영상 4개와 함께 별책 부록에는 CD사용설명, 한옥 답사 248곳의 사진과 목록이 실려 있다.

한옥시리즈 1 – 마음의 고향, 한옥마을
한옥시리즈 2 – 작은 한옥의 美, 전통소형한옥
한옥시리즈 3 – 도면으로 보는, 한옥설계집
한옥시리즈 4 – 아이와 함께하는 한옥이야기, 우리집이 한옥이면 좋겠다
한옥시리즈 5 – 한옥, 전통에서 현대로 · · ·, 신한옥
한옥시리즈 6 – 한옥 인테리어, 한옥의 열린공간

• 문의 : 한문화사, 070-8269-0860

홈페이지 리뉴얼!!

◆ 리뉴얼의 대상

디자인과 컨텐츠 개편

◆ 디자인 개편

가. 메인화면 구성

편안한 블루와 회색을 기본 컬러로 자극적인 색감으로부터 눈의 부담을 줄이고 색상을 절제함으로써 통일감과 세련되고 심플함을 강조

나. 서브메뉴의 메인화면 구성

서브메뉴의 메인화면은 기존 홈페이지에 없었던 메뉴로 총 8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었으며 메인 메뉴의 특성 및 설명, 서브메뉴로의 분기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다. 서브화면 구성

1) 8개의 Main menu와 170개의 Sub menu(2depth : 55개, 3depth : 115개) 및 영문 홈페이지, Scrap, 마이 페이지 등 총 204개 메뉴의 Design이 개편되었음
2) Main Design의 가이드를 따르며 navigation과 본문과의 간격을 최소 화하고 게시물의 가로폭을 기존보다 100pixel정도 넓게 표현하고 화려하지 않으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모든 페이지를 통일 시킴

◆ 컨텐츠 개편

가. 개선방향

1) 신속한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 각계 각층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및 배포
2) 정보의 질 향상 : 각종 법령정보 기술정보 및 법령체크리스트 등 유용한 정보의 확보 및 배포
3) 정보의 제공 대상 확대 : 정회원 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범국민적 정보제공 확대
4) 정보 제공방식의 변경 : 일방적인 정보 제공 방식이 아닌 유기적인 정보제공 방식으로 전환
5) 커뮤니티 기능 강화 : 회원상호 간, 회원과 일반인 간에 의견교환 및 정보교환
6) 새로운 아이템 추가

나. 나만의 메뉴

1) 개요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사용자가 임의로 등록하여 메인화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Contents
2) 기대효과
사용자가 자신만의 메뉴를 구성하므로 서 사용상의 편의성 향상시키고 개인을 위한 개별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의 홈페이지의 활용도 및 참여도 고취

다. 스크랩기능

1) 개요
각종 게시물을 사용자가 생성한 카테고리 별로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의 Contents
2) 기대효과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체계적인 자원관리 및 활용

라. SMS 답변 기능

1) 개요
민원인들이 상담코너에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면 자동으로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답변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하는 Contents
2) 기대효과
민원인이 민원에 대한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를 하고 협회의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 및 민원인의 협회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협회의 위상제고

마. 문서수발

1) 개요
총 5개의 메뉴(받은문서함, 보낸문서함, 내문서함, 문서작성하기, 친구목록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회원", "회원 ←→직원", "회원 ←→협회", "본회 ↔ 시도건축사회", "직원↔직원"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Contents
2) 기대효과
기존 이메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문서의 소실, 스팸, 전송지연 및 전송속도 등)을 개선하고 협회내 정보교환 네트웍 시스템 구축 및 협회 홈페이지 활성화, 협회의 위상 제고

바. 파일 멀티업로드

1) 개요
기존 게시판이 게시물당 1개의 파일만을 업로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동호회〉사진첩"에 멀티 업로드 기능을 구현함
2) 기대효과
기존 단일파일 업로드에 따른 불편함 해소를 하고, 동호회 활동상 편의성 제고를 통한 동호회의 활성화 기대도 고취

사. 기술정보서비스

1) 개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자재데이터베이스(www.archidb.com)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사이트 링크방식에서 archidb의 보유 정보 중 시방서와 디테일 일부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Contents
2) 기대효과
본협회 홈페이지의 Contents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건설자재데이터베이스(archidb)의 간접적 홍보를 통한 활성화

아. 회원작품전시관

1) 개요
협회 홈페이지 활성화 및 회원 작품의 홍보, 지식정보의 구축을 통하여 회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회의 위상을 제고 하고자 함
2) 기대효과
회원작품의 대국민 홍보, 지식정보의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공유를 통한 회원 경쟁력 강화 및 협회 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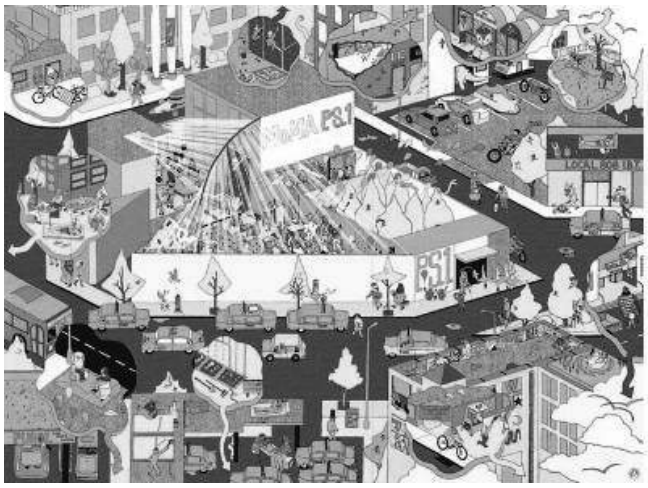
자. 그밖의 기능

1) 글씨 돋보기
게시물의 폰트 사이즈를 사용자가 조절토록 하여 게시물에 대한 가독성을 향상
2) 아이디저장
아이디 자동저장 기능을 통하여 홈페이지 활용에 편의성을 제고
3) 방문자카운트
방문자 카운터를 통해 사용자 별 협회 홈페이지 이용 통계 추출 등 활용
4 협회도서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구현(현재 8,703권의 자료 등록)

김은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 Kim, Eunmee |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시도한 올해의 PS1의 건축사들

Courtesy Interboro Partners



Courtesy Interboro Partners

지난 11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MoMA의 젊은 건축사를 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PS1 설치예술'(이 공모전은 젊은 건축사를 대상으로 MoMA의 주최 하에 매년 열린다)이 지금까지 작품 중 가장 통합적인 디자인 구현을 목표로 6월 16일에 설치되었다.

올해의 당선작으로 브루클린을 본거지로 하는 'Interboro Partners' 사무소의 'Holding Pattern'이 선정되었다. PS1 디자인 공모전의 기본요건인 그늘, 앉을 자리 그리고 16,000 스퀘어풋(square-foot) 크기 한도의 인공 연못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이번 당선작은 전작들과는 다르게 광범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주어진 사이트와 주변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킨다. Georgeen Thodore, Tobias Armborst와 함께 Interboro 사무실을 공동 지휘하는 세명의 소장 중 하나인 Dan D'Oca는 "우리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MoMA 미술관을 연결시키길 원했다."고 말한다.

쉼터라는 프로젝트의 최우선 과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Interboro는 저예산의 밧줄 캐노피를 디자인 하였다. 이상한 모양을 띈 다각형의 공간에 대응하기 위해, 그 캐노피는 중정의 벽들 사이에 쌍곡면의 형태로 묶여졌고, 그것들을 흰색의 네트로 덮었다.

그리고 같은 PS1 사이트에서 열리는 자유분방한 여름 축제인 'Warm Up' 뮤직 페스티발을 위한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Interboro는 캐노피 밧줄들을 잭슨 애비뉴 쪽 벽에 묶은 후, 반대편 난간 꼭대기에 붙어 있는 후크를 통해 이것들을 엮어 내었다.

이 기둥이 없는 지붕 시스템은 또한 중정 건물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CMU블럭으로 고정된 플랫폼의 무게를 난간의 눈 하중 수용 량에 따라 계산하여 디자인하였다.

다양하긴 하지만 가구들은 마린그레이드 합판을 사용하여 패밀리 디자인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일시성(temporality)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구들은 고정된 것들과 움직이는 것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러한 구성들은 이용자들이 그 중정을 어떻게 보고 느낄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이번 Interboro의 디자인 프로세스의 가장 혁신적인 면은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공모전의 진행초기에, 디자이너들은 거리로 직접 나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디자인과 설치물이 필요한지 대화를 시도하였다.

Interboro의 D'oca는 "처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우리는 단지 주변 거주민 10명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지금까지 우리는 총 200여명의 거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말한다. 거주자들의 요구사항들은 다양했으며, 그중에는 나무, 벤치, 그리고 라이프 가드 타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결과로 interboro의 프로젝트에서 PS1은 가구와 식물들을 위한 장소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며, 전시에 쓰인 가구들과 나무들은 전시가 끝나는 9월 26일에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어 질 것이다.

이웃 주민들의 가장 많은 요구 중에 하나는 주변에 더 많은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Interboro사는 전체 외부공간을 60그루의 오크 나무로 채우고, 전시가 끝나고 나면 그 나무들을 주변 지역에 심을 것이다.

요구사항에 의한 전용방법의 재설정이란 명제, 즉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개념의 해석으로, interboro의 간단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의 접근은 다시 "지역사회"라는 가장 큰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 지역주민들은 PS1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이곳에 방문 한 적은 없다. 라고 한다. 이 미술관을 가장 근거리에 두고 가장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던 지역 주민들은 이제는 적어도 이곳이 지역주민들을 초청하고 있는 장소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곳을 방문할 것이며, 이 미술관이 가진 놀라운 작품들을 구경하게 될 것이다.

PS1 미술관은 브루클린에 위치한 노후한 학교 시설을 개보수 하여 미술관으로 사용하며 신진 건축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공모를 하여 작품을 선정, 여름 동안 설치품을 전시한다. 필자도 미국에서 이 공모전에 초청된 팀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이 공모를 경험했었는데, 그때 신진디자이너들의 과감한 아이디어를 선정, 받아들이는 미술관의 성숙한 의식에 놀라움과 부러움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 전시에서 보여지는 인스톨레이션들은 기존 건축인의 시선으로 보면 상당히 전위적이며, 미술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공모를 거쳐 나간 젊은 건축사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발전시켜, 이 후 건축계에서 실제 훌륭한 건축물을 설계하며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이 많다.

이런 체계적인 신진 건축인을 발굴하는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훌륭한 건축인들을 뉴욕으로 모이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여 뉴욕이 설계와 디자인 수도와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되는데 일조를 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이벤트는 도시 전체의 건축 의식과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현재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이란 물결이 건축설계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고 수준 높은 건축인 등용 시스템이야 말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장을 지켜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윗글의 일부는 http://archpaper.com/news/ 의 기사 일부를 발췌, 인용 하였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1년 5월 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385	5,385	101	202	8	24	5,494	5,611	1,608	1,608	236	472	54	162	25	100	24	156	1,947	2,498	7,441	8,109
서울	847	847	26	52	2	6	875	905	824	824	137	274	35	105	11	44	14	84	1,021	1,331	1,896	2,236
부산	467	467	17	34	2	6	486	507	99	99	19	38	2	6	1	4	3	20	124	167	610	674
대구	447	447	19	38	4	12	470	497	69	69	17	34	2	6	3	12	2	10	93	131	563	628
인천	273	273	3	6	0	0	276	279	66	66	7	14	1	3	0	0	0	0	74	83	350	362
광주	202	202	1	2	0	0	203	204	41	41	7	14	2	6	2	8	0	0	52	69	255	273
대전	246	246	5	10	0	0	251	256	36	36	6	12	4	12	1	4	1	15	48	79	299	335
울산	180	180	5	10	0	0	185	190	17	17	2	4	1	3	0	0	0	0	20	24	205	214
경기	749	749	1	2	0	0	750	751	234	234	20	40	2	6	2	8	1	5	259	293	1,009	1,044
강원	174	174	2	4	0	0	176	178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04	211
충북	217	217	3	6	0	0	220	223	31	31	4	8	1	3	1	4	2	15	39	61	259	284
충남	249	249	1	2	0	0	250	251	49	49	4	8	2	6	2	8	0	0	57	71	307	322
전북	247	247	4	8	0	0	251	255	22	22	2	4	1	3	1	4	0	0	26	33	277	288
전남	200	200	1	2	0	0	201	202	18	18	2	4	0	0	0	0	1	7	21	29	222	231
경북	363	363	5	10	0	0	368	373	38	38	3	6	1	3	0	0	0	0	42	47	410	420
경남	405	405	7	14	0	0	412	419	27	27	3	6	0	0	0	0	0	0	30	33	442	452
제주	119	119	1	2	0	0	120	121	12	12	1	2	0	0	0	0	0	0	13	14	133	135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 건축사회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109	10	8,119	100%	23
서 울	2,236	3	2,239	33.9%	10
부 산	674	1	675	7.9%	9
대 구	628	0	620	7.7%	0
인 천	362	0	363	3.8%	0
광 주	273	0	273	3.7%	0
대 전	335	1	336	3.7%	0
울 산	214	0	213	2.6%	0
경 기	1,044	2	1,046	12.2%	2
강 원	211	0	209	2.6%	0
충 북	284	0	284	3.0%	0
충 남	322	3	325	3.1%	0
전 북	288	0	289	3.0%	0
전 남	231	0	230	1.9%	0
경 북	420	0	418	4.6%	1
경 남	452	0	452	5.0%	1
제 주	135	0	135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 계	비 고
회원수	5,611	2,498	–	8,109	
비율	69.19%	30.81%	–	100%	
사무소수	5,494	1,947	–	7,441	
비율	73.83%	26.17%	–	100%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